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자료의 내용분석

2001. 6

충 남 발 전 연 구 원

발 간 사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지식정보화의 시대라고 한다. 지식정보화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정보화를 통해 사이버 공간상에서 유통시킴으로써 경쟁력과 고부가가치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문화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각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역사·문화지식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상호 소통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문화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입지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충남은 삼국시대 백제의 중심권역으로 2개의 古都(공주, 부여)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은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역사·문화자산을 보존·전승하고, 문화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1992년 11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8년 4월에는 본격적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백제문화권 개발추세에 발맞춰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을 구축하게 되었다.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구축사업의 목적은 첫째,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백제의 문화·사회·예술 전반에 대한 정보를 백제문화에 관심있는 사용자 및 일반인에게 인터넷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백제문화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수익사업의 육성기반으로 삼으며, 둘째, 백제문화정보를 집대성하고 DB화하여 각 연구기관·박물관·행정기관의 연계성을 도모하며, 일반인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백제문화의 연구 및 홍보를 위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이 구축되어 사이버 상에서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일어로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목적이 백제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홍보 등에 맞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총사업비 가운데 인건비가 66.26%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본 사업은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 전공자의 참여가 미흡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사이트 구축자료의 체제 및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 당시에 내재하였던 문제점과 실제 사이트 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함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사이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구축내용 가운데 백제역사정보에 한정하여 체제 및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가하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사이트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충청남도의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아울러 본 연구를 수행한 충청학연구부 강종원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1년 6월

충남발전연구원장 권한대행 김 대 길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제2장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자료

1. 역사일반분야·민속학분야
 - 1) 역사일반분야
 - 2) 민속학분야
2. 고고미술분야·문헌정보통계분야
 - 1) 고고미술분야
 - 2) 문헌정보통계분야

제3장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자료의 분석

1. 체제구성에 대한 검토
2. 구성내용에 대한 검토
 - 1) 역사일반분야·민속학분야
 - 2) 고고미술분야·문헌정보통계분야

제4장 결 과

제5장 정책제언

참고자료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자 지식정보화의 시대이며, 또한 문화의 세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문화와 지식정보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1999·2000년 2차에 걸쳐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을 구축하였다.

충남은 삼국시대 백제의 중심권역으로 2개의 古都(공주, 부여)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2년 11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4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이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개발추세에 발맞춰 충청남도에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을 구축하게 되었다.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구축사업의 목적은 첫째,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백제의 문화·사회·예술 전반에 대한 정보를 백제문화에 관심있는 사용자 및 일반인에게 인터넷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백제문화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수익사업의 육성기반으로 삼으며, 둘째, 백제문화정보를 집대성하고 DB화하여 각 연구기관·박물관·행정기관의 연계성을 도모하며, 일반인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백제문화의 연구 및 홍보를 위한 기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정보화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대민 서비스 개선, 고용창출의 효과 등이 기대되었다.

사업기간은 1차 1999. 5. 25~1999. 12. 31, 2차 2000. 4. 12~12. 11 등 2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차 21억7천2백만원, 2차 5억9천6백7십만원 등 총 27억6천8백7십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동원된 인력은 연인원 57,135명으로 당시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이 구축되어 현재 사이버상에서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일어로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

의 목적이 백제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홍보 등에 맞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총사업비 가운데 인건비가 66.26%를 차지하였다. 결국 본 사업은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 전공자의 참여가 미흡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사이트 구축자료의 체재 및 내용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2차 완료 보고서 제3장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① 백제역사자료에 대한 학계의 고증 및 검증이 필요하고, ② 지속적인 자료변경을 위한 자료 제공·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자료관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료의 정체 및 결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① 역사자료의 추가·변경시 역사전문가로 구성되어 고증을 거친 자료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되고, ② 역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유지보수팀을 두어 역사에 관한 고증과 검증을 실시한 후 지속적인 역사정보의 추가 갱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 당시에 내재하였던 문제점과 실제 사이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와 함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충청남도에서는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9년·2000년 2차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사업이 종료되어 관리체제로 들어갔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사업이 전문가의 참여가 미흡한 공공근로사업적인 성격이 강하여 사이트를 구축한 자료의 체재 및 내용에 있어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효율적으로 홍보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백제역사문화관」의 구축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본 사이트의 주된 구축 목적이 고용창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단계에 와서는 이를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

적 특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충청남도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외 일반인, 전문가들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백제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입장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요성은 본 사이트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충청남도에서는 2000년 제37회 지방행정연수대회 자료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지식정보화 구현방안-충청남도의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 연계시책을 중심으로-』이라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¹⁾ 여기에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직접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통해 실시한 결과 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내용)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설문조사의 경우 ①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중 가장 유익한 사항으로 백제역사정보가 2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② 이용상의 개선 사항으로는 역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높았으며, ③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기여 가능분야로는 백제역사문화·학술교육이 21.8%,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정보화분야 14.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이용분야 중 가장 유익한 사항으로 백제역사정보가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여 가능분야는 백제역사문화·학술교육이 45.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용상의 개선사항으로는 정보의 양적·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주로 백제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공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성을 가지는 부분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여 가능분야에 있어 백제역사문화 및 학술교육 부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본 사이트의 내용구성과 장기적 운영방안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구축자료의 내용은 양적인 측면과 함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반인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면서도 체계성이 있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정도의 정

1) 충청남도연구단,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지식정보화 구현방안-충청남도의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 연계시책을 중심으로-』, 2000.

확성과 논리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백제 역사·문화 분야의 경우에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방대하지만 체제 및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사이트 구축과정의 1·2차 교정단계에서 백제사 관련 전공자가 참여해서 내용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1차 교정에서는 주로 한자에 대한 교정, 2차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및 PC 분야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는데 그쳐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1차 사업이 완료된 이후 2차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약 4개월 이상의 운영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체제 및 내용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2차 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점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사업자측에서 제출한 완료보고서에 따르면,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시스템개발절차」²⁾의 구성체계 및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요구사항 분석」의 경우에도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는 1차에서 구축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1차 구축자료의 체제 및 내용에 대한 오류가 수정·보완될 기회와 함께 2차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방법론 개발절차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본연의 구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운영과정에서 구축내용의 체제 및 내용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나아가 본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체제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즉, 새로운 자료의 증가와 연구의 축적에 따른 학설의 변화 등을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백제 역사·문화에 관한 체제와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찾아 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³⁾

2) 한국전산원, 『1999년도 정보화근로사업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구축 완료보고서』, 2000, p.77 ; _____, 『2000년도 정보화근로사업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구축 완료보고서』, 2001, p.80.

3)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정보화담당관실 남학현 씨로부터 자료제공을 비롯해 많은 자문을 받았다.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백제사 정보분야인 역사일반분야·고고미술분야·민속학분야·문화정보통계분야 등의 구성체제 및 내용에 한정한다.

본 사이트에 구축된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사업의 DB 구축 현황 (단위 : 장)

구 분	내 용	계 획 량	실 적	달 성 률
TEXT 자료	백제역사 관광정보 특산물정보	29,928	38,324	128%
Image/Graphics 자료	백제역사 관광정보 특산물정보	19,810	73,921	373%
GIS 자료	위치정보	10.7GB	11.2GB	105%

* 2차 사업의 DB 구축 현황 (단위 : 장)

구 분	내 용	계 획 량	실 적	달 성 률
백제역사정보	TEXT 자료	10,000	10,948	109%
	Image 자료	7,000	25,732	368%
지리정보	GIS공간정보	200Kb	225Kb	113%
외국어서비스	TEXT 자료	100	140	140%
	Image 자료	100	136	136%
동영상	동영상/3D/파노라마	15부작/10점 /1곳	15부작/10점 /1곳	100%

이들 내용 가운데 1차 사업에서 계획한 관광정보 및 특산물정보는 별도의 사이트로 분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은 순수하게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2차 사업 DB 구축 내용 중에서 백제역사정보의 TEXT 내

용의 한국어 제공자료에 한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내용을 살펴보면, ① 역사일반분야의 백제사 개관/백제의 제도/백제의 경제와 관련된 개설적 내용, ② 고고미술분야의 백제의 도성/백제의 성곽/백제의 고분/백제의 불교문화/백제의 건축/백제의 산업/백제의 공예/백제의 문자/백제의 문양/백제의 복식 등에 대한 개설내용과 각종 유적·유물의 사례, 사진 및 도면, 상세보기의 내용 등이며, ③ 민속학분야의 백제의 종교·사상/백제의 예술/백제의 민속/백제의 생활/백제의 설화·전설/백제의 인물 등에 대한 개설 및 자료에 내용, ④ 문헌정보통계분야의 연표로 본 백제사/백제사료집성/백제사연구도서목록/백제유적조사연표 등의 자료에 대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구축내용을 한정하는 이유는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의 양이 워낙 방대하여 한 번에 이들 모두를 검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질적으로 본 사이트의 구축목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백제역사정보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백제사의 흐름을 이해시킬 수 있으며,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공되는 백제역사정보 분야의 내용에 대한 체제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각각 항목의 Text 자료에 대한 개설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가하여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제와 내용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내용의 검토

① 구축자료의 체제분석 - 사이트 구축내용의 체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축내용에 있어서 체제상의 문제점이나 백제사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빠진 부분이나 내용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제의 재구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한다.

② 구축자료의 내용분석 -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자료인 TEXT 자

료 가운데 내용상의 오류 또는 미흡한 점, 중복된 부분 등에 대한 분석과 보완 방법 등을 제시한다.

③ **구축자료의 기본원칙에 대한 분석** - 본 사이트의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쉽게 구축자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체 내용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구축자료의 기본원칙을 도출하도록 한다.

(2)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구축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① **내용의 수정·보완의 방안** - 현재 구축된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② **지속적인 내용의 업데이트 방안** - 백제사의 경우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학설이 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료의 출현으로 전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의 지속적인 관리와 내용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만 본 사이트가 살아있는 백제 역사·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다.

③ **자유게시판 및 전문가마당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방안 모색** - 자유게시판과 전문가마당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일반인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백제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제2장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자료

본 장에서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각 분야별 개설내용을 그대로 전재하여 제시함으로써 분석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개설내용이 사이트의 구축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각 분야별 내용에 있어 중복된 점이나 내용상 문제점 또는 오·탈자 등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개설부분은 백제사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내용이 많아 번잡함이 있지만 사이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개설내용은 모두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종 자료(사료 및 유적·유물·도면 등)과 그에 대한 설명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사이트상에서 분석을 시도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제외하였다.

내용에 대한 검토는 백제역사·문화에 대한 일반적 개설내용 중심인 역사일반분야·민속학분야, 각종 자료의 제공에 해당되는 고고미술분야·문헌정보통계분야로 각각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1. 역사일반분야·민속학분야

1) 역사일반분야

역사일반분야는 백제의 성장·발전과정과 정치·경제제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를 크게 백제사 개관, 백제의 제도, 백제의 경제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각 분야별 세부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백제사 개관 부분은 백제사 개관을 포함해 백제란?/백제인의 고향/백제의 건국과정과 주민구성/백제의 건국시기/백제의 왕위계승/왕위계승도/재위기간/도성과 시대구분/인구와 사회·경제구조/영역과 전쟁/외교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백제의 제도는 정치·행정제도, 군사제도, 법률·교육제도 등 3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정치·행정제도는 관등과 관직/5부제/22부와 22담로/방군성제 등 4개, 군사제도는 군사조직/방어체제와 무기 등 2개, 법률·교육제도는 법률/교육 등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백제의 경제는 다시 토지/조세제도, 산업구조로 구분하고, 토지/조세제도는 토지제도/조세제도의 2항목, 산업구

조는 농업/수공업 등 2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백제사개관

삼국(三國) 가운데 하나인 백제(百濟)는 기원전 18년에 한강 하류에서 건국되었으며, 서기 660년 사비도성(泗水都城)이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에 의해서 함락되기까지 충청도·전라도 지역과 강원도·경상도 일원을 678년간 지배했던 왕국이다.

백제는 부여족(夫餘族) 계통의 고구려(高句麗) 유민이 세운 나라이다.

백제에는 두 가지의 건국 설화가 전해져오는데, 이중 온조(溫祚) 중심의 설화는 다음과 같다.

고주몽(高朱蒙)의 두 아들인 비류(沸流)와 온조(溫祚)는 이복형인 유리(瑠璃)가 나타나 태자(太子)로 책봉되자 남하하여 각기 나라를 세웠다.

이중 온조는 처음 하북위례성(河北慰禮城)에 정착하여 십제(十濟)를 세웠는데, 그 뒤 미추홀(彌鄒忽 - 지금의 인천 주안)에 정착했던 비류 집단의 합류를 계기로 중심지를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백제(百濟)라 하였다.

백제가 한강유역 일대의 여러 성읍국가(城邑國家)들을 거느리는 연맹왕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때 부터이다.

고이왕(古爾王)은 울령반포, 관동제정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고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었다.

백제 최대의 전성기는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시기로 근초고왕은 왕권의 강화와 담로제를 통한 지방 통제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정복사업에 나서서 경기·충청·전라 3도의 전부와 낙동강 중류의 일부지역, 강원·황해 양도의 일부 및 중국 요서 지방과 일본 열도에 이르는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내적 팽창과 발전 위에 근초고왕은 박사 고흥(高興)으로 하여금 서기(書記)를 편찬하게 하여 왕실의 권위와 신성성·정통성을 확립하였다.

침류왕(枕流王)대에는 불교를 공인함으로써 부족적 전통을 극복하고 확대된 영토와 강화된 왕권을 지지하는 고대국가 이데올로기를 확립하여 보편적인 세계관의 형성을 이룩하였다.

침류왕 이후 백제는 왕위계승을 둘러싼 지배층의 내분으로 국력이 쇠약해 졌고,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은 이 틈을 이용하여 백제를 공격하여 개로왕(蓋鹵王)을 죽이고 왕도를 함락시켰다.

이에 백제는 웅진(熊津 - 현 공주(公州)) 천도를 단행하게 된다.

4) 제2장에서 제시한 개설내용은 본 사이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轉載하였다. 그러므로 내용상의 오·탈자 및 문맥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일체 수정을 가하지 않은 상태이다.

웅진 천도 후 즉위한 동성왕(東城王)과 무령왕(武寧王)은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을 물리쳤으며, 남제(南齊 - 梁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의 전래와 국제관계에서의 위치 확립 및 호남지역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축소된 경제기반의 확대를 꾀하였다.

동성왕·무령왕대의 안정기반을 바탕으로 성왕(聖王)은 백제의 중흥과 왕권강화의 목적으로 사비(泗水)로의 천도를 단행하였다.

천도 후 성왕은 중앙관제의 정비와 지방통치조직을 강화하였으며, 신라(新羅)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유역(漢江流域)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공격으로 백제는 한강유역을 다시 상실하게 되고, 이에 격분한 성왕은 신라에 대해 보복공격을 단행하다가 관산성(管山城)에서 신라군에 패하여 전사하게 되었다.

무왕(武王)의 뒤를 이은 의자왕(義慈王)대에는 탐락(耽樂)과 황음(荒淫), 빈번한 전쟁에서 오는 국력의 피폐와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의 공격으로 660년 사비성과 웅진성이 함락됨으로서 백제는 멸망하게 된다.

백제 멸망이후 곧바로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부흥운동으로 흑치상지(黑齒常之), 복신(福信)·도침(道琛)·풍(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임존성(任存城)·주류성(周留城) 등지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켜 한 때 기세를 떨치기도 하였으나 나당연합군의 토벌 및 내분 등으로 말미암아 임존성의 지수신(遲受信)이 고구려로 망명하는 것을 끝으로 백제의 부흥운동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백제는 멸망하였지만 백제인들이 창조한 화려한 문화는 신라와 일본 등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이후에도 그들의 문화 창달에 큰 힘이 되었다.

◆백제(百濟)란?

백제는 우리나라 고대에 한반도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고구려(高句麗), 신라(新羅)와 함께 이른바 삼국시대(三國時代)를 형성하다가 서기 660년 신라에 의해 멸망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백제는 나라의 이름, 곧 국호(國號)를 몇 차례 바꾸었으며, 또 기록에 따라 여러가지 별명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시대를 떠나서 가장 일반적인 이름은 역시 백제(百濟)입니다. 백제라는 국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 설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한국고대사 연구의 기초자료인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백제의 시조 온조왕(溫祚王)이 그의 형인 비류(沸流)가 다스리던 백성을 합쳐 더 큰 나라를 만들때 비류의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 하여서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쳤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한편, 중국측의 역사서인 수서(隋書)에는 백제를 간략하게 소개한 [백제전(百濟傳)]이 있는데, 거기에는 처음에 백여 호(戶)가 바다를 건너[百家濟海] 남하하여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백제라고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백제의 국호에 대한 삼국사기와 수서의 설명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는 아직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양쪽 모두 설화에 입각한 설명이기에, 어쩌면 양쪽 모두 잘못된 설명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백제가 처음부터 백제(百濟)라는 국호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처음 나오는 백제의 국호는 십제(十濟)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백제의 건국과 관련된 삼국사기의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제 시조 온조왕(溫祚王)의 아버지는 추모(鄒牟)로서 주몽(朱蒙)이라고도 하는데, 북부여(北扶餘)로부터 난을 피해 졸본부여(卒本扶餘)에 이르렀다. 졸본부여의 왕에게는 아들이 없고 단지 딸만 셋이 있었다. 왕이 주몽을 보더니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둘째 딸을 시집보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졸본부여의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잇고 두 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을 비류라 하고 둘째 아들을 온조라고 하였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매,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하다가 마침내 오간(烏干)·마려(馬藜) 등 10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가니 백성 가운데 따르는 자가 많았다.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 살만한 땅을 바라보았는데, 비류는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 하였다. 10명의 신하가 간언하기를 "생각컨대 이곳 하남(河南)의 땅은 북쪽으로 한수(漢水)를 끼고, 동쪽으로 높은 산악에 의지하며, 남쪽으로 기름진 들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큰 바다에 막혀있으니, 그 천혜의 험준함과 땅의 이로움은 좀체로 얻기 어려운 지세입니다. 이곳에 도읍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류는 신하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彌鄒忽)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하였다. 10명의 신하로 하여금 돕게 하고 나라 이름을 십제(十濟)라고 하니, 이때가 전한(前漢) 성제(成帝)의 홍가(鴻嘉) 3년이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히 살 수 없었는데, 위례성으로 돌아와 보니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들이 편안하였다. 마침내 비류가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다 죽으니, 그 신하와 백성이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백성들이 올 때 즐거이 따라왔다 하여 나중에 국호를 백제(百濟)로 바꾸었다. 그 세계(世系)가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부여(扶餘)를 성씨로 삼았다.

삼국사기 [백제본기(百濟本紀)] 온조왕 즉위년조. 위의 기록은 내용상 백제의 건국설화라고 하여도 무방한데, 고구려·신라의 그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특이하다고 할 만합니다. 즉, 백제의 건국설화-온조설화(溫祚說話)에는 묘하게도 신비라든가 기적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사실적이고 소탈한 방법으로 백제 건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제의 건국 설화가 뒤늦게 채록되었거나 중국화된 합리주의적 시각에서 채록되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백제의 건국설화가 고구려, 신라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하

튼, 위의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국호는 애초 십제(十濟)였으며, 나중에 국력이 더욱 커지자 백제(百濟)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십(十)에서 백(百)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설명이야말로 중국화된 시각, 곧 한자(漢字)에 입각한 해석이자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렇기에 인위적인 분위기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즉, 나라가 성장함에 따라 '십(十)'에서 '백(百)'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었다는 설명은 마치 '백'을 옆두에 두고 숫자 논리에 입각하여 '십'을 지어낸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록은 중국에서 진수(陳壽)라는 이가 3세기 후반에 편찬한 역사서 삼국지(三國志)입니다. 중국 삼국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삼국지에는 [한전(韓傳)]이라 하여 우리의 삼한(三韓)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 마한(馬韓)에 속한 54개 소국의 이름을 열거하던 가운데 백제국(伯濟國)이라는 국호를 적어놓은 대목이 있어 우리의 눈길을 끄니다. 백제(伯濟)와 백제(百濟)는 한자만 약간 다를 뿐 같은 음(音)으로 된 글자이며, 또 백제국의 위치가 한강유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백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학자들은 보통 백제국을 백제의 초기 단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백제국이 국력을 신장한 결과 국호를 한자 뜻이 더 좋고 세련된 백제(百濟)로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한편, 일본 정부에 의해 서기 720년에 편찬된 역사서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위례국(慰禮國)'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는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한 백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대에는 도시의 명칭을 그대로 나라 이름으로 사용한 예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위례국이라는 이름도 그다지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일본서기의 위례국이라는 표현이 어떤 근거를 가진 것임을 인정할 경우, 그것이 백제라는 국호보다는 앞선 시기의 국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도 될 듯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식의 국호였는지, 아니면 별명과 같은 것이었는지는 아직 가리기 어렵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는 성왕(聖王) 16년(538)에 도읍을 웅진(熊津) 곧 지금의 공주시에서 사비(泗水) 곧 지금의 부여지방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로 다시 한번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부여'라는 국호는 다른 기록에 별반 남아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백제 내부에서도 그리 오래 사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도읍을 옮길 때 국가 분위기를 새롭게 한다는 뜻에서 국호도 바꾸었지만, 백제라는 국호가 지니는 전통적 이미지가 이미 국내·외에 널리 퍼져있어 오래지 않아 환원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백제인의 고향

앞에서 소개한 백제의 건국설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주몽(朱蒙)을 백제에서도 역시 건국시조화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던 경쟁상대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에서는 자존심 상하게 고구려의 건국시조를 백제 건국시조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백제의 건국집단이 고구려지역에서 남하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남아있는 백제 초기의 유적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石村洞)에는 대규모의 적석총 유적이 있습니다. 적석총은 고구려의 특징적 묘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제의 수도, 특히 지배계급의 공동묘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1~2기(基)가 아닙니다. 그 사이 도시개발 등으로 많은 고분이 파괴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래는 수십기의 적석총이 석촌동 일대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 어떤 것은 왕릉(王陵)일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고구려에서 나왔다고 확정적으로 말해도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설화에 의하면 주몽은 어디까지나 북부여 출신의 졸본부여 사람이었습니다. 백제 왕의 성(姓)도 부여(扶餘)씨입니다. 그래서인지 백제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제는 부여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 538년에 백제의 성왕(聖王)이 사비(泗水)로 도읍을 옮긴 뒤 남부여(南扶餘)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부여계승의식의 강렬한 표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백제 초기의 무덤 양식 가운데 하나인 토광묘(土壙墓)는 부여인들이 조영하였던 토광묘와 축조 방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백제에서 고구려식의 적석총이 축조되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3세기 이후로서, 토광묘보다 늦습니다. 그런데, 주몽을 부여 출신의 고구려 건국자로 설명하지 않고 졸본부여의 계승자로 소개한 백제의 온조설화가 어떤 면에서는 고구려의 건국신화보다 주몽의 입지에 대해 더 정확하게 묘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한가지 예로서, 고구려의 유리왕(琉璃王)에 대한 설화를 들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 소개된 유리왕 설화에 따르면, 유리는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얻은 부인이 주몽의 독신 남하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부여에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멸시를 당하던 유리는 아버지가 낸 수수께끼를 풀어 주춧돌 아래 숨겨진 칼 조각을 찾아낸 뒤 남녘에서 왕이 된 아버지 주몽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몽과 마찬가지로 유리도 옥지(屋智)·구추(句鄒)·도조(都祖) 3명과 함께 남하하였으

며, 주몽을 만나 태자에 책봉된 뒤 왕위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규보(李奎報)의 동명왕편(東明王篇)에 실린 고구려의 건국신화에는 한 대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칼을 맞대어본 주몽이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무슨 신성한 것이 있느냐?"하고 물었더니, 우리가 몸을 날려 공중에 솟아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타는 재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몽의 능력에 육박하는 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보다는 동명왕편에 인용된 설화가 원형에 더 가깝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주몽의 건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리명왕의 출현과 즉위로 종결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의 건국은 유리명왕의 즉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제의 온조왕은 건국하자마자 동명왕묘(東明王廟)부터 세웠다고 합니다. 위패(位牌)를 모셔두고 제사지내는 곳을 묘(廟)라고 합니다. 여기의 동명왕이 부여의 건국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고구려의 주몽을 지칭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온조왕이 주몽의 아들을 자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주몽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왜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제사지냈을까요? 주몽은 졸본부여의 계승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제인에게 주몽은 고구려의 시조가 아닌 졸본부여의 계승자로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동명왕묘를 세우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유리왕의 고구려'와 경쟁적인 계승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여하튼, 온조설화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이복형제의 국가로 묘사되는 친밀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백제에는 온조설화 이외에 또다른 건국설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비류설화라고 하는 것인데, 내용상 온조설화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삼국사기에 조그맣게 실린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제의 시조는 비류왕(沸流王)으로서, 그의 아버지인 우태(優台)는 북부여왕 해부루의 서손(庶孫)이며, 어머니인 소서노(召西奴)는 졸본사람 연타발(延陀勃)의 딸이다. 소서노가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으니, 맏아들이 비류이고 둘째 아들이 온조이다.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과부가 되어 졸본에서 살았다. 나중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않자 전한(前漢) 건소(建昭) 2년 봄 2월에 남쪽으로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고구려라고 불렀다. 주몽이 소서노에게 장가들어 왕비로 삼았는데, 소서노가 국가의 기틀을 열고 다지는 데에 자못 내조가 컸으므로, 주몽이 소서노를 특히 두텁게 총애했고 비류 등을 자기 아들처럼 대하였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禮氏)에게서 낳은 아들인 유유(孺留)가 오자 그를 세워 태자로 삼고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에 비류가 아우인 온조에게 이르기를 "처음에 대왕께서 부여의 난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집안의 재산을 기울여가며 도와 방업(邦業)을 이루니, 그 노

고가 많았다. 그런데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국가가 유유의 소유로 되었으니 우리가 이곳에서는 한낱 흑과 같아서 답답할 뿐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땅을 택하여 따로 국도(國都)를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다. 드디어 아우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패수(溟水)와 대수(帶水)를 건너 미추홀(彌鄒忽)에 이르러 살았다.

앞에서 본 온조설화와 달리 비류를 중심으로 한 비류설화는 주몽과의 연계가 매우 약합니다. 비류설화에서 주몽은 단순히 비류 형제를 예뻐해 준 의붓아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류 형제의 친아버지는 주몽과 마찬가지로 북부여 출신의 졸본사람 우태입니다. 우태 역시 남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몽에 대한 비류 형제의 감정은 매우 우호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강하진 않으나 주몽과 백제의 연계는 비류설화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국호들처럼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매우 특징적인 명칭도 있습니다. 바로 응준(鷹準)과 나투(羅鬪)라는 이름입니다. 고려시대의 저작인 제왕운기(帝王韻紀)에는 “후대의 왕 때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한 적이 있으며, 또 응준 혹은 나투라고 칭하기도 하였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응준과 나투는 모두 조류(鳥類)의 일종인 ‘매’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응준과 나투는 정식 국호라기 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백제를 지칭할 때 사용한 일종의 별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신라가 선덕왕(善德王) 14년(645)에 건립한 황룡사(皇龍寺) 9층탑의 제5층에 신라의 경계해야 할 적대국으로서 응유(鷹遊)를 적어놓았다는 기록이 있는바, 여기의 응유를 앞서의 응준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백제의 건국과정과 주민구성

비류설화에서는 비류와 온조가 함께 나라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이 수도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온조설화와 비류설화가 각기 다른 경로로 전승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온조설화는 하남위례성 지역에서, 비류설화는 미추홀지역에서 각각 전승되어 온 설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설화 모두 온조와 비류를 형제로 설정한 점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신화속의 개인은 집단을 상징한다는 학계의 연구결과를 상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온조집단과 비류집단은 형제라는 말이 됩니다. 집단과 집단간의 형제관계? 다소 어색한 이 말은 집단과 집단 사이의 연맹관계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시기 온조집단과 비류집단 사이의 연맹관계를 이야기로 만든 것이 바로 온조설화와 비류설화라고 하겠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비류는 미추홀, 온조는 하남위례성에 자리잡았습니다. 미추홀의 위치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

흔히 지금의 인천(仁川)이라고 이해하지만, 그 증거는 매우 미약합니다. 오히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금의 경기도 양주(楊州)·파주(坡州)·연천(漣川)을 잇는 임진강 연안의 지역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반면, 하남위례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일대, 특히 풍납토성(風納土城)과 몽촌토성(夢村土城)을 포함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화에서는 비류가 형이며, 온조가 동생입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원칙에 따른다면 형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백제에서는 동생인 온조가 시조로 존숭되었습니다. 비류의 현명하지 못한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설화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형이란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류집단이 먼저 한강유역에 자리잡은 사실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뒤이어 온조집단이 남하하여 한강유역에 정착하였는데, 온조집단의 경제·군사력이 비류집단을 압도한 결과 나중에는 비류집단의 구성원까지 흡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온조설화에 숨은 속뜻이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간략한 분석을 종합하면, 부여에서 고구려방면으로의 주민 이동과 부여·고구려방면에서 한강유역으로의 주민 이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한강유역에 여러 집단이 공존하다가 하나의 정치체제 속으로 통합된 역사적 사실이 백제의 건국설화에 반영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백제의 건국설화로는 도모(都慕)라는 사람이 백제를 세웠다는 이야기와 구태(仇台)라는 사람이 백제의 시조라는 이야기가 각각 일본과 중국측의 역사서에 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백제를 건국하고 발전시키는 데 참여한 집단이 다양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서 가운데 수서(隋書)에는 백제인의 출신이 잡다하여 신라·고구려·왜(倭)로부터 온 사람들 뿐 아니라 중국인도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일단 당시 백제의 주민 구성이 매우 복잡다단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제의 국가 형성과 발전 과정을 그에 맞추어 이해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즉, 앞서서도 이미 밝혔듯이, 백제를 건국한 세력으로는 우선 부여·고구려 방면으로부터 남하하여온 사람들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들의 활동 무대가 기본적으로 마한(馬韓)의 그것과 별개일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백제인 중에는 마한 혹은 한(韓)계통의 토착민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 4세기 초 낙랑(樂浪)·대방군(帶方郡)이 멸망한 후의 주민이동이라든가 백제와 왜(倭) 사이의 긴밀한 교류 등에 주목할 때, 중국·왜 계통 주민들의 존재 역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 백제의 건국 시기

백제가 건국한 해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전한(前漢) 성제(成帝)의 홍가(鴻嘉) 3년, 곧 서기전 18년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중에는 나중에 지어낸 듯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측의 당시 자료와 남아있는 유적·유물을 검토해보면, 한강유역에서 백제가 건국한 시기는 아무래도 기록보다는 늦은 시기였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백제의 건국 및 성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적으로는 춘천시 중도(中島)의 적석총, 가평군 마장리(馬場里)의 주거지, 양평군 대심리(大心里)의 취락지, 양평군 문호리(汶湖里)의 적석총, 하남시 미사리(漑沙里)의 주거지와 밭 유적, 서울시 송파구의 석촌동·가락동 백제고분군, 풍납동토성, 몽촌토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백제의 주민으로는 왕실을 차지하고 귀족층의 주류를 이룬 부여·고구려계 남하민과 마한(馬韓)의 구성원이던 토착민, 그리고 낙랑·대방군이 멸망하면서 백제에 흡수된 중국계와 교류를 통해 이주해온 일본계 백제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여·고구려계 남하민이 백제의 왕실과 귀족층의 주류를 차지하였다는 해석은, 앞에서 이미 간단히 소개한 바와 같이, 건국설화를 비롯한 몇몇 문헌자료와 한강유역 소재 각종 유적에 대한 지금까지의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면, 부여·고구려 방면으로부터 주민들이 언제 이동하여 왔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백제의 건국 시기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백제의 유적 가운데 부여·고구려 방면으로부터의 문화적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으로는 한강유역의 고분군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석촌동·가락동일대의 토광묘와 적석총들은 백제의 건국자 집단과 깊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부분 서기 2-3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일단 온조 집단으로 대표되는 고구려계통 백제 왕실의 개창은 석촌동일대에 조성된 적석총 등에 근거하여 3세기 이후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한전(韓傳)>의 백제국(伯濟國)이 정말로 백제(百濟)의 전신(前身)이라면, 이른바 연맹왕국단계의 백제에 앞선 성읍국가(城邑國家)단계의 백제는 늦어도 3세기에는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석촌동·가락동일대의 고분군과 연계지어 볼 때, 2세기 무렵에는 이미 백제국의 기반이 된 정치체가 한강유역에서 출현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백제의 왕위계승

백제의 왕실과 왕위계승에 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은 역시 삼국사기 [백제본기]입니다. 그에 따르면, 백제는 시조 온조왕을 포함하여 모두 31명의 왕이 즉위하였으며, 그들의 성(姓)은 예외없이 부여(扶餘)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5대 초고왕(肖古王)부터 제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일부 형제상속의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상속이 유지되었다는 것이 백제 왕실에 대한 기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록을 그대로 믿는 학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백제사 연구자들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초기 기사의 정확도를 의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왕위의 부자상속에 대한 부분을 믿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실린 왕실계보를 그대로 믿지 못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른바 왕실교대론(王室交代論)이라 하여 제8대 고이왕(古爾王) 때라든가 제11대 비류왕(比流王) 또는 제12대 근초고왕 때 왕실이 교체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즉, 삼국사기의 기록에서와 같이 부여씨가 대대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비교적 후대의 일이며, 그 전에는 다른 성씨(姓氏)의 왕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왕실교대론의 입장에서 해석 가능한 기사가 있어 주목됩니다. 즉, [남부여 전백제(南扶餘 前百濟)]조에 의하면, 백제의 왕실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성을 해씨(解氏)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앞서의 삼국사기 기록과 맞추어 보면, 삼국유사쪽의 잘못된 기술 탓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백제의 왕실 성이 해씨에서 부여씨로 바뀐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운 듯합니다. 중국측의 백제 관련 기록을 참고할 때, 백제의 왕 중에서 부여씨임이 비교적 분명하게 입증되는 최초의 왕은 근초고왕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근초고왕 이후는 부여씨의 왕실 독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선 비류왕 때까지의 왕실에 대해서는 기록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신빙성마저 그리 높지 않기에 왕실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5대 초고왕의 이름이 제13대 근초고왕과 같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고왕 이하는 모두 부여씨로 간주하고, 그에 앞선 제4대 개루왕까지는 부여계통의 해씨로 해석하는 견해라든가, 제8대 고이왕과 그의 자손인 제9대 책계왕(責稽王), 제10대 분서왕(汾西王), 제12대 계왕(契王) 등을 우씨(優氏)로 해석한 다음 일정기간만 부여씨 대신 우씨가 왕실을 차지하였다고 보는 견해 등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삼국사기 등의 각종

기록을 참조하여 백제의 왕위계승도와 재위기간 등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왕위계승도

▣ 재위기간

순번	왕명	재위연대	이름[諱]	전왕과의 관계	비 고
1	온조왕	B.C.18~A.D.28	온조(溫祚), 은조(殷祚)	건국자	
2	다루왕	A.D.28~77	다루(多婁)	만아들	
3	기루왕	77 ~ 128	기루(己婁)	만아들	
4	개루왕	128 ~ 166	개루(蓋婁)	아들	
5	초고왕	166 ~ 214	초고(肖古), 소고(素古)	아들	소고왕(素古王)
6	구수왕	214 ~ 234	구수(仇首), 귀수(貴須)	만아들	귀수왕(貴須王)
7	사반왕	234	사반(沙伴), 사비(沙沸)	만아들	사이왕(沙伊王)
8	고이왕	234 ~ 286	고이(古爾), 구이(久爾)	개루왕의 둘째아들(?)	구이군(久爾君)
9	책계왕	286 ~ 298	책계(責稽), 청계(靑稽)	아들	청계왕(靑稽王)
10	분서왕	298 ~ 304	분서(汾西)	만아들	
11	비류왕	304 ~ 344	비류(比流)	구수왕의 둘째아들, 사반의 아우	
12	계왕	344 ~ 346	계(契)	분서왕의 만아들	
13	근초고왕	346 ~ 375	근초고(近肖古), 초고(肖古), 속고(速古), 조고(照古), 구(句)	비류왕의 둘째아들	일본측 사료에는 초고왕, 속고왕, 조고왕으로 전함.
14	근구수왕	375 ~ 384	근구수(近仇首), 구수(仇首), 귀수(貴須), 수(須)	아들, 태자	귀수왕(貴首王)
15	침류왕	384 ~ 385	침류(枕流)	만아들	
16	진사왕	385 ~ 392	진사(辰斯)	아우	부여휘(扶餘暉)
17	아신왕	392 ~ 405	아신(阿莘), 아화(阿華), 아방(阿芳), 아화(阿花)	조카, 침류왕의 만아들	아화왕(阿華王)
18	전지왕	405 ~ 420	전지(전支), 직지(直支), 영(映), 전(전)	만아들	직지왕(直支王) 진지왕(眞支王)
19	구이신왕	420 ~ 427	구이신(久爾辛)	만아들	
20	비유왕	427 ~ 455	비유(毗有), 비(毗)	만아들, 전지왕의 서자	여비(餘毗)
21	개로왕	455 ~ 475	경사(慶司), 경(慶)	만아들	여경(餘慶)
22	문주왕	475 ~ 477	모도(牟都), 도(都)	아들(삼국사기)아우(일본서기)	문주(文周 · 文洲 · 汶洲)
23	삼근왕	477 ~ 479	삼근(三斤), 임걸(壬乞), 삼걸(三乞)	만아들	문근왕(文斤王)

- 24 동성왕 479 ~ 501 모대(牟大), 마모(摩牟). 사촌 아우.
 - 25 무령왕 501 ~ 523 사마(斯麻), 사마(斯摩), 융(隆) 둘째아들(삼국사기)
배다른 형(일본서기) 사마왕(斯麻王), 도왕(嶋王), 호령왕(虎寧王)
 - 26 성왕 523 ~ 554 명농(明), 명(明) 아들 명왕(明王) 성명왕(聖明王)
 - 27 위덕왕 554 ~ 598 창(昌) 맏아들 창왕(昌王)
 - 28 해왕 598 ~ 599 계(季) 아우 헌왕(獻王)
 - 29 법왕 599 ~ 600 선(宣), 효순(孝順) 맏아들
 - 30 무왕 600 ~ 641 장(璋), 서동(薯童) 아들 무강왕(武康王) 무광왕(武廣王)
 - 31 의자왕 641 ~ 660 의자(義慈) 맏아들
- * 전왕과의 관계는 대부분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한 것임.

◆ 도성(都城)과 시대구분

백제의 초기 수도가 한강유역에 있었음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서울시 송파구에 남아있는 풍납토성(風納土城)과 몽촌토성(夢村土城), 그리고 석촌동·가락동·방이동에 분포한 고분을 통해 충분히 입증됩니다. 백제가 지금의 천안 직산지역에서 건국하였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설득력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교통이 불편하던 고대에 수도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의 수도는 정치의 중심지인 동시에 경제·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수도에는 지배층이 생전에 거주했던 도시와 성곽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묻힌 호사스런 무덤이 있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곽에는 한사람만 살았던 것이 아니므로, 무덤도 무리를 이루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서울과 공주, 부여지역에서 대규모 성곽과 무덤들이 시대적 연관성을 지니며 공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참조하면, 백제의 도성으로는 위례성(慰禮城), 한성(漢城), 웅진성(熊津城), 사비성(泗比城) 등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앞에서 이미 간단히 살펴 보았듯이 백제는 위례성 혹은 하남위례성에서 건국한 다음, 국력 증강에 따라 그것을 한성으로 확충하였으며, 서기 475년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한성이 함락된 뒤에는 도성을 급히 웅진으로 옮겼고, 서기 538년에는 국가 부흥을 꿈꾸며 수도를 다시 사비로 옮겼는데, 이에 따라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기까지를 흔히 한성시대(漢城時代)라 부르고, 그 뒤의 시기는 지명에 따라 각각 웅진시대(熊津時代), 사비시대(泗比時代)라고 부릅니다.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위례성과 한성은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일대, 웅진성은 충남 공주, 사비성은 충남 부여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제의 건국설화에 나오는 초기 도성, 곧 하남위례성이 정확히 지금의 어디에 있었는지

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의 검토 결과와 현재 남아있는 유적 등을 종합할 때,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의 한강변에 위치한 이른바 풍납토성이 하남위례성의 유지일 개연성이 가장 높은 듯합니다. 풍납토성은 원래 전체 둘레 3.5km의 방형 내지 타원형 평지성으로서, 홍수와 도로·주택 건축공사로 인해 대부분이 파괴되어 지금은 동벽과 북벽의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지만, 성벽의 높이는 대체로 10여m를 훨씬 넘으며, 성벽 가장 아랫부분의 현재 폭은 30~40m에 달할 정도여서 백제 최대급의 토성이라고 할 만 합니다. 성의 내부에서는 과거 일제시기에 청동제 초두와 금반지, 유리구슬 등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백제가 하남위례성에서 건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백제의 도성으로서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자주 나타나는 이름은 한성(漢城)입니다. 백제가 도읍을 옮긴 것인지, 아니면 도성의 이름만 중국식으로 바꾼 것인지는 관련 기록이 매우 부족하므로 분명하게 가릴 수 없지만, 풍납토성과 무관한 곳이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그런데, 한성은 남성(南城)과 북성(北城)을 합친 이름이었다는 것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설명입니다. 또한, 적어도 5세기 후반의 개로왕 때, 왕이 거주하던 성은 남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견해를 달리 하는 연구자가 없지는 않지만, 한성의 일부였던 북성을 지금의 풍납토성, 그리고 남성을 지금의 몽촌토성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근래 학계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의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몽촌토성은 원래 남한산(南漢山)과 연결된 저산성 구룡을 이용한, 산성에 가까운 토성입니다. 자연구룡의 능선을 이용하여 쌓은 성벽의 길이는 2,285m이며, 내부의 면적은 67,000평이라고 합니다. 몇 차례의 발굴을 통해 성 안에서 건물지 등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그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백제의 한성이 지금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합한 것임에 틀림없다면, 그곳 일대의 지형 조건을 감안할 때, 중심 시가지는 풍납토성의 내부 또는 그 동쪽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백제의 수도 한성이 도시계획에 따라 정연하게 구획된 도성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개로왕 21년, 곧 서기 475년에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왕이 고구려군에게 잡혀 죽는 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단행한 것이 웅진(熊津)으로의 천도였습니다. 줄지에 옮기게 된 수도였으나, 선택의 기준이 전혀 달랐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선, 비록 지형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굽이쳐 돌아가는 큰 강의 남쪽 한 곳에 터를 잡았다는 점에서, 한성과 웅진 사이의 공통 분모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로서의 웅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산성(公山城)에 대한 수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우리는

공산성이 웅진시대 도성의 매우 중요한 일부였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산성 안에서 확인된 백제 때의 유구는 왕이 항상 이곳에 거주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공산성이 당시의 왕성(王城)이었을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지조건과 명칭에서 보듯이 공산성이 산성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에 주목하면, 웅진으로 천도하던 무렵의 백제가 지향하였던 도성의 한가지 형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주지역에 도시를 감싼 나성(羅城)이 건설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지만, 그 분명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곽이 분명하지 않은 만큼, 웅진시대의 도시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여전히 추정치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산성의 바깥쪽 기슭, 특히 진남루(鎭南樓)의 인근지역과 그 남쪽으로 펼쳐진 평지를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도시를 상상해보는 것도 그리 무의미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상상의 결과 중 하나로서, 일단 당시의 웅진 도성이 치밀한 사전 설계에 따라 이루어진 바둑판 형태의 정연한 도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은 백제의 웅진 천도가 졸지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전시체제 하에서 새로이 선택한 수도였던 만큼, 일반적 형태의 왕도와는 그 조건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정치·경제·사회가 빠르게 안정됨에 따라, 백제는 협소한 공주지역의 한계를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다 짜임새 있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서기 538년에 이루어진 사비(泗水)지역으로의 천도는 백제가 이미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음을 나타내는 뚜렷한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성왕(聖王) 16년, 곧 서기 538년에 백제의 새로운 수도가 된 사비는 지금의 충남 부여(扶餘)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곳에는 전체 길이 8km로서 도시 전체를 둘러싼 성곽, 곧 나성(羅城)이 축조되었는데, 이처럼 거대한 도시성곽을 건설한 것은 백제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고대 도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선 형태의 성곽과는 많이 달라서, 지형을 따라 이리저리 굴곡이 있을 뿐 아니라 남쪽의 백마강(白馬江)과 접한 저습지대에서는 아예 성벽을 전혀 쌓지 않는 등, 그다지 정연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의 왕궁은 산성이 축조되어 있는 부소산(扶蘇山)의 남쪽 기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각종 도로와 건물들이 배치되었을 터인데, 중국측 역사서에 전하는 각종 기록과 근래 발견된 목간(木簡)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부(部)와 향(巷)으로 불리어진 행정구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성의 내부 한가운데에 금성산(錦城山)처럼 산성을 쌓은 산이 위치한 점이라

든지 대규모의 나성에서 성문은 동쪽과 서쪽에서만 각각 1개소씩 확인된 점 등을 감안 하면, 중국과 일본에서 보듯이 방사선 형태의 정연하게 짜여진 도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한편, 한성·웅진·사비 이외에 백제의 도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도시로서는 금마(金馬), 곧 지금의 익산(益山)을 들 수 있습니다. 백제 최대의 사찰인 미륵사(彌勒寺)가 있는 이곳에는 왕궁리(王宮里) 등의 전혀 평범하지 않은 지명도 아직 남아 전하는데, 이에 대해 백제의 무왕(武王) 때에 이곳 익산지역을 별도(別都), 곧 또 하나의 도성으로서 경영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출되어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 인구와 사회·경제구조

3세기 전반기의 한반도 정세를 전하는 삼국지 동이전에 의하면, 마한의 세력 가운데 큰 나라는 1만여 가(家), 작은 나라는 수천 가(家)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백제는 대체로 큰 나라에 속하였을 것이므로, 1호(戶)당 5명 안팎으로 보는 계산법에 따라 당시의 백제 인구를 추산하여 보면, 대략 5~6만명 정도가 됩니다.

한편, 백제 멸망시의 인구는 자료에 따라 달리 기재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편인데, 그중 비교적 주목되는 자료로서는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비명(碑銘)에는 당나라가 백제 땅에 5개의 도독부를 설치할 당시 37주(州), 250현(縣)에 모두 24만호(戶), 620만명이 살았다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의 사실을 적은 금석문(金石文)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비명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약간의 수정은 불가피한 듯합니다. 즉, 앞서 사용한 계산법에 따르면, 24만호는 120만명에 해당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5배가 넘는 620만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 육(六)자와 일(一)자는 글자 모양도 유사하기에 620만명은 120만명의 잘못일 개연성이 높은 듯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백제의 전성기에 인구가 152,300호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의 전성기가 과연 언제를 지칭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에 위의 자료를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만, 4세기 중·후반의 근초고왕대에 인구가 70~80만명에 달하였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영역 확장에 매진하였던 4~5세기의 인구로 이해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4~5세기에 70~80만명, 7세기에 약 120만명에 달하였을 백제의 주민은 모두 당시의 신분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왕과 왕족, 귀족과 관료, 그리고 일반민과 노예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관련된 문헌 자료가 많지 않아 자세히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왕과 왕족에 대해서는, 그들이 부여·고구려 방면으로부터 남하하여 온 사람들일 것이라고, 앞에서 이미 추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중국측 역사서인 주서(周書) 백제전의 “왕을 어라하(於羅瑕)라고 부르는데, 백성들은 건길지(健吉支)라고 부른다”고 한 대목이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언어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앞서의 추정이 옳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백제 초기부터 큰 세력을 형성한 대표적 귀족으로는 여러 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하며 서로 경쟁하였던 해씨(解氏)와 진씨(眞氏)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씨는 부여씨(扶餘氏)가 왕실을 차지하기 전의 옛 왕족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하는데, 이들 역시 부여·고구려계통이었던 듯합니다. 사비시대의 귀족 세력으로는 사(沙)·연(燕)·협(협)·해(解)·진(眞)·국(國)·목(木)·백(백)씨 등 8개의 성씨가 통전(通典)을 비롯한 중국측 기록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백제에서 16개의 관등(官等)으로 관리를 서열화하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제1위 좌평(佐平)부터 제6위 내술(奈率)까지의 이른바 술(率)계통 관료들은 정치·행정·군사분야의 지휘관으로 생각되며, 제7위 장덕(將德)부터 제11위 대덕(對德)까지의 덕(德)계통 관료들은 각 분야의 실무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제12위부터 제16위까지의 문독(文督)·무독(武督)·좌군(左軍)·진무(振武)·극우(克虞) 등은 대부분 군사 행정과 관련된 하위 관리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들 각 계층의 사이에는 구분이 명확하여, 술계통 관료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으며, 덕계통 관료들은 붉은색 옷을 입었고, 문독 이하의 관리는 파란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구당서(舊唐書) 등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일반 백성은 붉은색이나 자주색 계통의 옷을 입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앞서 소개한 술·덕계통 관료들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서인 듯한데, 파란색만 제외한 것을 보면 문독 이하의 하위관리는 일반 백성과 신분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백성의 15세 이상은 성인으로 분류되어 매년 각종 세금을 내어야 했으며, 또한 병역과 부역에도 종사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세금은 그 집의 생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었던 듯하며,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역시 내용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5~6가구당 1명 정도가 군대에 징발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물론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부담이 되었을 터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쟁 등에서의 공훈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삼국사기 [열전(列傳)]에 소개된 도미(都彌)전설에서 보듯이, 평범한 백성인 도미의 가정이 노비까지 둘 수 있었던 데에는 이같은 사정이 작용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백제는 기본적으로 삼국시대의 한 축을 형성하였던 국가이기에 한시도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백성을 전쟁터에서 잃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승리한 전쟁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의 포로를 얻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포로를 노예로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뒤 포로를 장병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기사가 몇 차례에 걸쳐 실려 있습니다. 또, 북사(北史)·구당서 등의 중국측 기록에 따르면, 백제에서는 혼인한 여자가 간통을 하면 남편 집의 노예로 삼았고, 국가에 반역한 사람의 가족 역시 노예로 삼았다고 하니,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살인한 사람은 노비 3명을 내면 죄를 용서해주었다는 기록도 전하여, 노예의 양도 내지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여 줍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고구려와 신라의 예를 참고하면, 백제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백제에 기근이 들었을 때 자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기사는 그런 점에서 주목됩니다.

백제의 산업기반은 농업이었습니다. 무엇을 주로 경작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록을 검토해 보면 쌀·보리·조·콩·기장 등 이른바 오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4~6세기에 이르러 철제 농기구의 수와 종류가 모두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 보습의 출토를 통해 우경(牛耕)의 실시를 확인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입니다. 우경의 실시는 농업생산력을 2배 이상 향상시켰고, 그에 따라 경작지가 자연스레 확대되었으나 적어도 한성시대까지는 철제 농기구 제작 및 소유의 한계로 인해 공동경작 내지 집단경작의 형태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철을 생산하고 각종 철기를 제작하는 일은 대체로 국가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4~5세기까지는 무기 및 사치품은 물론 농기·공구까지도 제작과 보급을 대부분 중앙에서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그 이후로는 제약이 조금씩 완화되었겠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웅진·사비시대에 백제의 수공업과 관련된 중앙의 관청으로는 궁실 업무를 맡은 마부(馬部)·도부(刀部)·목부(木部), 그리고 일반 행정을 맡은 사군부(司軍部)·사공부(司空部)·주부(綱部) 등을 꼽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명칭으로 보아 마부는 말과 수레의 부속품 제작 및 관리, 도부는 각종 칼의 제작과 관리, 목부는 토목·건축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사군부는 각종 무기의 제작 및 관리, 사공부는 일반 토목·건축, 주부는 직물수공업과 깊이 관련된 부서인 듯합니다.

◆ 영역과 전쟁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는 온조왕 13년(B.C.6)에 영역을 확정하였는데, 북

쪽으로는 패하(溟河), 남쪽으로는 웅천(熊川), 서쪽으로는 바다, 동쪽으로는 주양(走壤)에 이르는 범위였다고 합니다. 이때의 패하를 지금의 예성강 또는 대동강에 비정하는 견해가 많으며, 웅천은 금강 또는 안성천, 주양은 지금의 춘천지방에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백제가 기원 전후한 무렵에 이처럼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으리라고 믿는 연구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백제에 대한 중국측의 기록과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범위의 영역은 아마도 4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백제가 위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기까지는 주변 세력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선, 백제가 마한지역에서 성장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삼국지 한전(韓傳)에 기재된 마한의 50여개 소국 중 인접한 국가들과의 경쟁, 곧 통합전쟁을 상정할 수 있겠는데 앞에서 소개한 비류설화도 그러한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 듯합니다. 세력을 넓혀가던 백제는 필연적으로 낙랑·대방군 세력과 충돌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낙랑·대방군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중국의 거대한 힘과 문화에 눌려 여러모로 열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군현(漢郡縣)에 대한 백제의 도전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3세기경의 백제에게는 한군현이 아직도 상대하기 벅찼던 모양입니다. 경쟁 과정에서 백제의 책계왕(責稽王)과 분서왕(汾西王)이 차례로 목숨을 잃은 것은 그 증거라 하겠습니다.

4세기에 들어선지 얼마 안되어 백제는 한군현을 멸망시킨 고구려와 경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영역 팽창을 추진하던 중 만난 것인 만큼 군사적 긴장관계는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지금의 황해도지역을 가운데 두고 벌어진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전쟁은 일진일퇴의 호각세였지만, 근초고왕(近肖古王)·근구수왕(近仇首王)의 재위 무렵 곧 4세기 중·후반에는,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의 전사 사실이 상징하듯, 백제쪽이 조금 우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에 대한 백제쪽의 우세는 아주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습니다. 4세기 말엽에 이르자, 백제는 광개토왕(廣開土王)이 이끄는 고구려의 군대에 대패를 거듭하며 북방의 상당부분을 잃었을 뿐 아니라 도성의 함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인질과 각종 재물을 고구려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세기 후반의 475년에는 마침내 고구려의 장수왕(長壽王)이 이끄는 3만명의 군대에게 왕성을 함락당하고 개로왕(蓋鹵王)이 잡혀죽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백제가 한성을 포기하고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백제 역사상 개로왕대는 가장 주목할만한 시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고구려군에게 도성까지 함락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으나, 그렇다고 그가 재위하던 무렵의 백제가 무기력했던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학자들 사이의 세부 의

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개로왕의 재위 무렵에 백제의 영역이 확대되고 지방제도가 진전되었으며 왕권을 크게 신장하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영역 및 행정권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남방 개척이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구려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이후, 백제는 한동안 왕권 안정과 남방 경영에 전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6세기말과 7세기초 곧 동성왕(東城王)과 무령왕(武寧王)의 재위 무렵에 어느 정도 효과를 얻자, 한강유역 탈환을 위해 고구려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재개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라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전제가 필요하였습니다.

백제의 한강유역 탈환 노력이 뚜렷한 결실을 거둔 것은 성왕(聖王)의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성왕 29년 곧 서기 551년에 백제는 신라와 동맹하여 때마침 내분에 휩싸인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드디어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인 서기 553년에는 태도를 바꾼 신라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그 땅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백제의 주된 전쟁 대상이 신라로 바뀌었음은 물론입니다. 격분한 성왕이 자기 나라의 군사는 물론 당시 백제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가야(加耶)의 군사까지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한 것은 서기 554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설욕을 다짐하고 벌인 관산성(管山城)전투에서 성왕은 도리어 자신의 목숨과 3만명에 가까운 장병만 잃었으니, 당시 백제가 받은 충격은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이후 백제가 예전의 국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수십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는 국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신라를 공격하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양 최대의 사찰 미륵사(彌勒寺)를 창건한 무왕(武王)대의 잦은 신라 공격, 그리고 즉위한 후 끊임없이 신라를 향해 군사를 움직인 의자왕(義慈王)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며 예봉을 피하는 신라를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서기 660년 백제는 당(唐)나라를 끌어들인 신라의 공격을 받고 힘없이 무너졌으며, 2년 여에 걸친 재건 노력도 끝내 허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 외교

우리 역사상 고대의 대(對)중국 외교는 모두 조공(朝貢)이라고 하는 불평등관계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물론 중국 역대 왕조의 거대한 군사력에 있었겠지만, 중국의 선진 문물이 지녔던 강한 흡인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초기 백제를 포함한 마한의 소국들이 낙랑·대방군을 통해 중국 중심의 질서체계에 자진해서 편입된 이유도 바로 선진문물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백제가 마한이 아닌 백제라는 이름으로 직접 중국 왕조와 교통하고, 또 그 사실이 역사서에 기재된 것은 4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입니다. 즉, 근초고왕 27년(372)에 양자강유역에 위치한 동진(東晉)에 조공하고 근초고왕이 [진동장군 영낙랑태수(鎮東將軍領樂浪太守)]에 임명된 것이 현재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후 백제의 동진에 대한 조공은 몇차례나 계속되었는데, 특히 침류왕(枕流王) 원년에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공식적으로 전해받기도 하였습니다.

서기 418년에 동진이 멸망하고 420년에 송(宋)이 건국되자 백제의 외교 대상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백제는 이후 빈번히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관작을 받았으며, 각종 서적과 기술의 전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사에서 4세기초부터 6세기 말까지의 기간은 세력이 양자강 남쪽과 북쪽지역으로 양분된 채 많은 왕조가 차례로 일어섰다 사라져간 이른바 남북조(南北朝)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백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동안 남조(南朝)의 국가들에게만 조공하였을 뿐, 북조(北朝)의 국가들과는 전혀 교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백제가 북조의 북위(北魏)에 처음으로 사신을 보낸 것은 개로왕 18년(472)의 일인데, 이때 개로왕은 고구려를 매우 비난하면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니, 당시 백제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요청은 당시 고구려의 군사력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북위의 완곡한 거절로 무위에 그쳤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의 보복 침입까지 불러와 끝내 도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잡혀죽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내내 백제가 북위와의 관계를 끊고 남조의 국가들과만 교류하게 된 것은 어쩌보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주왕은 남조의 송(宋)과 남제(南齊), 동성왕은 남제(南齊)와 양(梁), 무령왕과 성왕은 양(梁)나라에 각각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고 작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무렵 백제의 대중국 외교 목적은 아마도 중국적 세계질서속에서의 높은 지위 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선진 문물의 수입 등에 있었을 터인데, 그것은 백제측이 작위를 자주 요구한 사실과 무령왕릉의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사비로 천도한 이후, 성왕 대에는 외교 대상이 양(梁)·진(陳) 등 남조의 국가들에 한정되었으나, 위덕왕 대에 들어서면 남조보다는 오히려 북제(北齊)·주(周)·수(隋) 등 북조의 국가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듯합니다. 그리고 무왕·의자왕대에는 통일왕조인 수(隋)·당(唐)나라에 빈번히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위덕왕대의 북조에의 접근은 고구려에 대한 견제 목적이 강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열도 방면 국가와의 외교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의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4세기 중반의 근초고왕(近肖古王)대부터는 백제와 왜국(倭國)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일종의 전제로서 가야지역에의

세력 확장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백제와 왜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에 남아있는 칠지도(七支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4세기 혹은 늦어도 5세기에는 제작되었을 이 칼에는 백제의 왕세자가 왜국의 왕을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길이 전해주라는 내용의 명문이 있는바, 이야말로 백제 우위의 외교 실상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제는 자기들이 중국의 남조 국가들로부터 각종 문화 요소를 전해 받았던 것처럼, 자기 나라의 문화와 기술을 일본에 전해 주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백제와 왜국 사이의 관계는 형식적인 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국은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남하정책을 폈을 때 군사를 보내 가야 제국과 함께 백제 주도의 연맹군에 가담하였는가 하면, 백제의 전지왕(전支王)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왕위에 오르는 일을 돕기도 하였고, 백제의 멸망시에는 백제 편에 서서 신라와 당(唐)의 연합 세력에 군사적으로 대항하는 등, 시종 매우 긴밀한 정치·군사적 유대관계를 과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유대가 있었기에 백제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가게 되었다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백제의 제도

1. 정치·행정제도

1) 관등과 관직

관등(官等)이란 벼슬의 등급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흔히 관품(官品) 혹은 품계(品階)·위계(位階)라고도 표현한다. 따라서 벼슬아치의 직무·직분을 일컫는 관직(官職)과는 엄밀히 구분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대의 국가, 특히 삼국시대의 초기 단계에는 관등인지 관직인지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벼슬 이름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관등과 관직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백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온조왕 2년에 왕의 재당숙[族父]인 을음(乙音)을 우보(右輔)로 삼고 군사 업무를 맡겼으며, 다루왕 10년에는 우보였던 홀우(屹于)를 좌보(左輔)로 삼았다고 하는데, 백제의 벼슬 가운데 이들 우보와 좌보가 역사상 가장 먼저 출현한 이름인 듯하다. 다루왕 10년조 기사와 내용과 고구려의 좌·우보제를 감안할 때, 좌보는 우보보다 나중에 설치된 더 높은 벼슬인 듯하나,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고대의 권력과 행정은 군사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좌보 역시 군사업무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될 뿐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고이왕대 기록에는 백제의 관등·관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사가 거의 망라되어 있다.

먼저, 고이왕 7년조의 "진충(眞忠)을 좌장(左將)으로 삼고 모든 군사업무를 맡겼다"는 기사를 통해 좌장이라는 군사 관련 벼슬이 새로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년조의 "진충을 우보로 삼고, 진물(眞勿)을 좌장으로 삼아 군사업무를 맡겼다"라고 한 기사를 통해 좌장이 우보보다 낮은 지위의 벼슬이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고이왕 27년조에는

봄 정월에 내신좌평(內臣佐平)을 두어 왕명의 출납을 맡겼으며, 내두좌평(內頭佐平)은 창고와 재정에 관한 일, 내법좌평(內法佐平)은 예법과 의례에 관한 일, 위사좌평(衛士佐平)은 왕궁을 지키는 군사업무, 조정좌평(朝廷佐平)은 형벌과 감옥에 관한 일, 병관좌평(兵官佐平)은 일반 군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또, 달솔(達率)·은솔(恩率)·덕솔(德率)·한솔(汗率)·나솔(奈率)과 장덕(將德)·시덕(施德)·고덕(固德)·계덕(季德)·대덕(對德)·문독(文督)·무독(武督)·좌군(佐軍)·진무(振武)·극우(克虞)를 두었다. 6좌평은 모두 1품(品), 달솔은 2품, 은솔은 3품, 덕솔은 4품, 한솔은 5품, 나솔은 6품, 장덕은 7품, 시덕은 8품, 고덕은 9품, 계덕은 10품, 대덕은 11품, 문독은 12품, 무독은 13품, 좌군은 14품, 진무는 15품, 극우는 16품이다.

2월에 명령을 내려 6품 이상은 자주색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冠)을 장식하게 하였으며, 11품 이상은 붉은색 옷을 입고, 16품 이상은 파란색 옷을 입게 하였다.

라는 기사가 있어, 백제의 6좌평(관직)제와 16관등제, 그리고 공복제(公服制)의 실시를 전하여준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백제의 관등에서 6품까지는 모두 '솔(率)'자로 끝나고 있어, 11품까지의 '덕(德)'자로 끝나는 관등이라든지 그 이하의 관등과도 분명히 구별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옷 색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공복(公服)에 의거하여 구분할 때, 백제의 관등은 크게 보아 3개의 무리 내지 단계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솔(率)계통 관등은 정치·행정·군사부문의 책임자 내지 지휘관이며, 덕(德)계통 관등은 외교·행정·기술분야의 실무진이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런데 백제의 16관등제가 고이왕대에 설치되었다는 위의 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즉, 고대국가의 경우 관등은, 고구려의 예에서 보듯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형성·분화되어 가는 것이 보통인데, 백제는 너무도 이른 시기에 완성된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마침 중국측의 역사서를 참고하면 6세기 중·후반을 서술 대상으로 삼은 {주서(周書)} [이역전(異域傳)]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백제의 16관등제가 소개되어, {삼국사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주서}에서는 "좌평(左平) 5명은 1품, 달솔 30명은 2품, 은솔은 3품……. 은솔 이하는 관원의 수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삼국사기}의 기사와 유사하면서도 16관등제를 보다 현장감 있게 전하여주고 있다.

한편, 7세기 이후의 일을 대상으로 삼은 {구당서(舊唐書)} [동이전]에는 "내관(內官)을

두었는데, 내신좌평은 왕명의 출납을 맡았고……”라고 하여, {삼국사기}의 6좌평 관련 내용과 표현조차 똑같은 기사가 실려있어, {삼국사기} 고이왕 27년조 기사를 더욱 의심케 한다. {삼국사기}의 6좌평제와 16관등제는 {주서}와 {구당서}의 해당 기사를 합성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재 학계에서는, 백제의 6좌평제와 16관등제가 {삼국사기}의 내용대로 고이왕대에 성립하였다는 견해와 고이왕 무렵부터 6세기 중반의 성왕(聖王)무렵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분화·발전·정립되었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 5부제(部制)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는 온조왕 31년에 “나라 안의 민가를 나누어 남부(南部)와 북부(北部)로 삼았으며,” 그 2년 뒤에는 다시 “동부(東部)와 서부(西部)를 더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의 부(部)는 전국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기록에는 없지만 흔히 중앙을 지칭하는 이른바 중부(中部)를 가정하면, 5개의 부(部)라는 행정조직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초기 기사를 통해, 백제에서 처음 설치할 무렵의 부는 마치 부여(夫餘)의 사출도(四出道)를 연상케 하듯, 동부는 동쪽지역으로부터의 침입에 대응하고, 북부는 북쪽의 적대세력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부의 아래에는 여러 개의 성(城)이 편재되어 있었으며, 성은 다시 여러 개의 촌(村)을 거느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즉, 부-성-촌의 구조로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백제의 부는 지방통치체도의 일부분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서기 475년에 백제가 한성(漢城)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웅진(熊津)으로 급히 천도하고부터는 그 성격에 변화가 찾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통치조직으로서의 부와는 달리 왕도(王都) 내부의 정치집단 내지 행정구획과 관련된 명칭으로서의 부가 새로이 출현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부는 흔히 왕도 5부제라고도 불리며 사비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분명하게 정비된 듯한데, {주서}에는 “왕도에는 1만가(家)가 있어 5부로 나뉘는데, 상부(上部)·전부(前部)·중부(中部)·하부(下部)·후부(後部)로서 군사 500명을 거느린다”는 기록이 있으며, {수서(隋書)}에는 “수도지역을 5부로 나누었는데, 부에는 5향(巷)이 있어 선비[士人]들이 거주한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부-향으로 구획되었던 왕도의 구조를 짐작케 한다.

3) 22부와 22담로

백제 한성시대의 관부(官府) 곧 관청과 관련된 기록은 지금 전하지 않아, 그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비시대의 중앙 관부에 대해서는 {주서}에 간략한 자료가 전하여 참고가 된다. {주서} [이역전]에 따르면, 백제에는 내관(內官) 12부와 외관(外官) 10부, 도합 22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각 부서의 책임자는 대체로 달솔(達率)·은솔(恩率)

과 같은 술(率)계통 관등을 지닌 관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수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각 부서의 책임자는 3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한다.

한편, 중국에서 6세기 전반에 작성된 양(梁)나라의 {직공도(職貢圖)} [백제국사(百濟國使)]조에는 백제의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왕이 다스리는 성을 고마(固麻)라고 하며, 읍(邑)을 담로(담魯)라고 하는데, 중국에서의 군현(郡縣)과 같다. 22담로가 있어, 자제(子弟)와 종족(宗族)을 나누어 담당케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이 {양서(梁書)}에도 실린 것을 보면, 늦어도 양나라 때(502~557)인 웅진도읍기에 지방 통치 조직으로서 22개의 '담로'가 설치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군(郡)이나 현(縣)에 비견되었던 담로는 전국에 22개만 설치되었던 만큼, 일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의 행정단위였다고 하겠는데, 부-성-촌으로 이어졌던 앞선 시기의 지방조직을 대체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대체 언제쯤 대체되었을까? 담로제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크게 보아 3가지로 갈라져 있다. 근초고왕 재위 무렵에 성립하였다는 견해와 한성시대 말기인 5세기 중·후반 무렵 성립하였다는 견해, 그리고 6세기초인 무령왕 재위 무렵에 성립하였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담로의 책임자 중에는 '왕(王)'이나 '후(侯)'를 칭한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백제의 왕은 여러 명의 왕과 제후를 거느린 '대왕(大王)'이었음을 백제 스스로 뿐 아니라 송(宋)·남제(南齊) 등의 중국왕조로부터도 인정받았던 것이 되어, 백제왕의 높은 위상과 봉건적 행정체계의 일면을 상징할 수 있겠다.

4) 방군성제(方郡城制)

웅진(熊津)에서 사비(泗水)로 다시 한번 도읍을 옮긴 백제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지방통치체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담로제 대신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보다 강화한 방(方)-군(郡)-성(城) 체제를 성립시켰던 것이다.

방-군-성제에 대해서는 중국측 역사서인 {주서}와 {북사(北史)}, 그리고 {한원(翰苑)} 등에 관련 기사가 실려있어 참고된다. 그런데 기사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거나 상호보완적이지만, 지휘관의 명칭이라든지 관등에 관한 부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료비판을 통해 차이점을 조절한 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

먼저, 백제의 수도 이외에 동·서·남·북·중(中) 등 5곳에 방(方)이 설치되었는데, 중방은 고사성(古沙城), 동방은 득안성(得安城), 남방은 구지하성(久知下城), 서방은 도선성(刀先城), 북방은 웅진성(熊津城)에 있었다. 고사성은 수도인 사비성을 기준으로 남쪽 260리에 위치한 사방 150보(?) 규모의 성이며, 득안성은 동남쪽 100리 거리에 위치한 사방 1리 규모의 성이었다. 남쪽으로 360리 거리에 있는 구지하성은 크기가 사방 130보이고, 서쪽 350리에 위치한 도선성은 사방 200보였으며, 동북쪽 60리 거리의 웅진성은 사방 1리반의 규모였다고 한다. 고사성은 지금의 전북 정읍시 고부면에 있었던 듯하며,

득안성은 충남 논산군 은진면 부근, 구지하성은 전남 구례 방면, 그리고 웅진성은 지금의 공주시 공산성에 비정된다.

다음으로, 각 방에는 방령(方領)이라는 직함의 지휘관 1명을 두었는데 달솔이 맡았으며, 그 밑에 보좌역으로서 덕솔(德率) 관등을 지닌 방좌(方佐) 혹은 군장(郡將) 3명이 배속되었다. 각 방은 700~1,2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한편, 6~10개의 군(郡)을 관할하였다고 한다.

군에는 군장(郡將) 혹은 군령(郡領) 1명이 책임자로서 파견되었다. 관등은 대체로 은솔(恩率) 내지 덕솔(德率)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듯하다. 1개의 군에는 현(縣)으로도 표기되는 성(城)이 하부의 군사·행정조직으로 편제되었는데, 그곳의 책임자들을 성주(城主) 혹은 도사(道使)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마도 성주(혹은 도사)는 자신이 상주하는 성뿐 아니라 인근 여러 개의 촌(村)을 관할하였을 것이다.

2. 군사제도

1) 군사조직

백제의 병력이 얼마였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군인을 어떤 식으로 충원하였고, 군대를 어떤 모습으로 편제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다. 다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초기에 왕이 직접 병사 5천명을 이끌고 전투를 벌인 기사라든지 날쌔기병 200명을 보내 침입한 외적을 격퇴하였다는 기사가 있어, 병력의 대체적인 규모, 기병의 존재 등을 어설피게나마 짐작할 수 있다. 고구려의 예를 감안하면, 백제도 역시 수군(水軍)을 따로 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15세 이상인 자들을 징발하여 노역케 하였다는 몇몇 기사를 통해 군역의 대상자가 15세 이상의 남자였음을 알 수 있는데, 군역 복무 기간은 대략 3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국사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4세기 중·후반의 근초고왕 재위 무렵에는 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 3만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는 기사가 있으며, 의자왕 2년(642)에는 장군 윤충(允忠)으로 하여금 군사 1만명을 이끌고 신라의 대야성(大耶城)을 공격하게 했다는 기사도 있다. 이들 기록이 사실이라면, 늦어도 4세기에는 백제가 수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군사력을 갖추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7세기 중엽 역시 한 사람의 장군이 1만명을 거느릴 정도로 군대의 규모가 거대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의 5방은 각각 700~1,200명의 군사를 거느렸으며, 그 아래에 다시 30여개의 군과 200개에 달하는 성이 편제되었으니, 어림잡아도 대략 3~4만명의 군사를 상정할 수 있다. 서기 660년, 신라가 백제를 공격할 때 정예군 5만명을 보냈다고 한 기사를 참고하면, 7세기 무렵의 백제 역시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것이 평상시의 군사 규모였는지, 아니면 유사시에 특별히 군사를 모은 결과

인지는 분명치 않다.

한편, 군사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좌장이라는 관직이 설치된 이후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왕이 직접 군사를 통솔하기보다 대체로 위임하는 방식을 택했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관등이 정비되고 병관좌평이 설치된 뒤에는 군사관련 업무가 분화되어 왕은 더욱 초월적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다만, 의자왕이 재위 2년에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여 40여개의 성을 빼앗았다는 기사에서 보듯이, 왕이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상징성은 여전히 뚜렷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삼국의 정립이라는 상황과 관계 깊은 것이다. 그리고, 방-군-성 체제가 상징하듯 행정조직 자체가 군사조직과 일치하였던 만큼, 행정 책임자가 곧 군사지휘관을 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2) 방어체제와 무기

백제의 행정 및 군사 거점은 성곽이었던 만큼, 방어체제 역시 성곽을 중심으로 짜여졌을 것이다. 학계에서 흔히 백제의 왕성(王城)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하는 몽촌토성(夢村土城), 공산성(公山城), 부소산성(扶蘇山城) 등은 모두 방어 목적이 강조된 산성이다. 그리고 풍납토성(風納土城)과 부여의 나성(羅城)은 중심 도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성곽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앞에서 소개한 백제의 5방(方)이 모두 성에 근거를 둔 것은 그 한가지 예라 하겠다.

한성시대에 부(部)가 설치된 뒤로는 그것이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중심 단위체로서 기능하였음을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는 없지만, 웅진시대에는 이른바 담로가 행정뿐 아니라 군사적 거점으로서 활용되었을 것이다. 사비시대의 방-군-성 체제는 그 자체로 군사적 지휘체제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데, 특히 5방을 방위에 따라 구분한 것에서 방위별로 개별적 방어망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또, 서방(西方)처럼 바다와 많이 접한 방(方)에는 수군(水軍) 위주의 방위체제가 구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삼국시대에는 산성 위주의 전투방식을 취하였던 만큼 산성과 관련된 무기가 많이 사용되었을 터인데, 어떤 무기가 산성 전투에서 특히 유효하였는지는 아직 가리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각종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한 무기류 가운데 화살촉, 도끼, 칼, 창, 낫 등이 비교적 많이 발견된 사실을 감안하면, 백제 사람들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중시한다"고 기술한 {주서} 등의 기록이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무기 가운데 낫은 흔히 농·공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기병을 공격하는 보병의 무기로도 많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3. 법률·교육제도

1) 법률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29년조에는 “명령을 내려 관리로서 뇌물을 받은 자와 도둑질한 자는 3배를 배상하게 하고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명령을 내려’라든지 ‘금고형에 처한다’는 표현은 율령제의 실시를 연상시키므로, 고이왕대인 3세기 중반에 이미 백제가 율령을 공포하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 중국측 사서 중에는 {구당서}에 실려있어, {삼국사기}의 기사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한 듯하다.

백제가 율령제를 언제 실시하였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예를 참조하고 백제의 국력과 문화적 역량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4세기대에는 율령을 공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율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 부족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지만, 중국측 사서에 간단하게 소개된 일부의 율법을 통해 한 단면을 볼 수는 있다.

{주서} [이역전]에 의하면, 백제에서는 반역자와 도망한 군인, 그리고 살인한 자는 모두 죽였으며, 도둑질한 자는 유배를 보내는 한편, 훔친 물건의 2배를 물게 하였다. 또, 간통한 부인은 남편 집의 노예로 삼게 하였다고 한다. 간통의 경우, 상대방 남자에 대한 조항은 없었는데, 이는 백제가 심한 가부장제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구당서} [동이전]에서는, 반역자는 죽이고 그 가족의 호적을 없애 노예로 삼으며, 살인한 자는 노비 3명을 주어 변상케 하고, 관리로서 뇌물을 받은 자와 도둑질한 자는 3배를 배상하게 하고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하였다고 적고 있다. 앞서의 {주서}와 비교하면, {구당서}에서는 살인한 사람에 대한 조항이 크게 바뀌었으며, 도둑질한 사람의 경우에도 2배 배상에서 3배 배상으로, ‘유배’에서 ‘금고’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2) 교육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 30년조 말미에는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이 무렵 박사(博士)인 고흥(高興)을 통해 비로소 [서기(書記)]를 두었다고 한 기사가 실려 있다. 그리고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4세기 후반 내지 5세기 초두에 박사인 아치키시[阿知吉師] 곧 아직기(阿直岐)와 와니키시[和邇吉師] 곧 왕인(王仁)이 백제로부터 왜(倭)로 건너가서, 유교의 경전을 가르쳤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또, 백제 성왕의 재위 무렵에는 중국의 양나라에 모시박사(毛詩博士)를 요청하여 초치한 적이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일본으로는 여러 번에 걸쳐 오경박사를 파견하였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다.

고흥이 지냈던 박사 칭호가 만약 후대의 오경박사(五經博士)나 태학박사(太學博士)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면, 백제는 이미 4세기 후반에 태학(太學)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운

영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비슷한 시기에 동진(東晉)과 고구려에서 태학(太學)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참고할 경우 그 개연성은 더욱 커진다.

그런데 백제에는 유교와 관련된 박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역박사(曆博士)·의박사(醫博士)·와박사(瓦博士)·노반박사(露盤博士) 등 전문기술직으로서의 다양한 박사도 있었다. 이들의 존재는 백제에 기술교육을 담당한 기관이나 조직이 설치되었을 개연성을 높여주는 것이며, 더욱이 이들 기술직 박사가 백제 16관동 중 제8등위인 시덕(施德)과 제9등위인 고덕(固德)의 관등을 지녔던 사실을 통해 백제에서 기술직이 누린 지위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웅진·사비시대의 22부사(部司) 가운데 외관(外官)에 속한 사도부(司徒部)가 중국에서의 그것처럼 교육·의례 등을 담당한 기관이었다면, 교육기관의 존재를 상정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다만, 백제에서 설치·운영되었을 교육기관의 명칭이라든지 교육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으로 전혀 알 수 없다.

백제의 경제

1. 토지/조세제도

1) 토지제도

백제의 토지제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록은 거의 전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실린 몇몇 관련 기사를 통해 유추해볼 수는 있다. 다만, {삼국사기} 초기 기사들의 신빙성은 아직 장담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기사의 연대 등은 그대로 믿기보다 따로 생각하는 것이 보다 신중한 태도라고 본다.

먼저,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38년조에는 "사신을 보내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급하지 않은 일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모두 없애도록 하였다"고 한 기사가 있으며, 다루왕 11년조에는 "왕이 동부와 서부를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어루만져주었는데, 가난해서 제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곡식 2섬[石]씩 나누어주었다"고 한 기사가 있다. 또, 기루왕 40년조에는 장마로 한강이 범람하여 수재민이 생기자 "유사(有司)에게 명령을 내려 수해를 입은 농토를 보수하게 하였다"는 기사도 있다. 이밖에도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농사와 관련된 기사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농업이 백제의 기반산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기사를 참조하면, 마치 일반 농민의 대다수는 개인 소유의 농토를 지녔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백제는 물론 고구려·신라의 경우에도 왕을 중심으로 통치조직을 정비하고 철제 농기구의 광범위한 보급·사용을 통해 농업생산력이 증대되

는 4~6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토지의 사유화(私有化)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토지를 공유하였다는 뜻이 되는데, 권리의 평등화에 입각한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라기보다는 해당지역의 권력자에게 예속된 상태에서의 공동 경작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적당할 것이다.

백제에서의 공동 경작 내지 집단 경작은 근래 발굴 조사된 경기도 하남시의 미사리 발유구를 통해서도 시사받을 수 있다. 즉, 4~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백제문화층에서 여러 건물지와 함께 확인된 최소 1,700여평 크기의 밭 유구는, 전체가 하나의 단위를 이룰 뿐 아니라 고랑·이랑의 선과 폭이 매우 정연하다는 점에서, 감독자의 통제하에 실시된 노예노동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 경작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한편, 백제의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으로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17년(657)조의 “왕의 서자(庶子) 41명을 좌평으로 삼고 각각 식읍(食邑)을 주었다”는 기사를 들 수 있다. 식읍이란 어느 한 개인에게 일정지역의 토지 및 주민에 대한 각종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배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그 규모가 컸던 만큼 소수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포상의 한가지 형태였다. 그런데 식읍은 국가의 세금 수입원으로 책정된 토지 및 주민에 한하여 인정되었으며, 해당지역 지방관의 협력이 필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백제에서의 식읍제 실시는 그 자체로 왕권 내지 중앙행정력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2) 조세제도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백제에서도 후대의 조(租)·용(庸)·조(調)에 준하는 징세법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租)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농산물을 수취하는 제도이며, 용(庸)은 국가의 각종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으로서 삼국시대에는 흔히 역역(力役)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調)는 가내수공업의 생산물이나 그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15년조에는 가뭄의 여파로 겨울에 백성들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 먹을 것을 내어 주고, 또 1년간의 조(租)와 조(調)를 면제해주었다”는 기사가 있으며, 같은 책 진사왕 2년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15세 이상인 사람들을 징발하여 국경에 관문·방어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기사도 있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이밖에도 비슷한 내용의 세금 관련 기사가 적지않이 실려 있다.

한편, 중국측의 역사서인 {주서(周書)} [이역전(異域傳)]에는 “세금은 베·명주·삼베와 쌀 등으로 내되, 그 해의 풍흉을 따져 차등있게 납세한다”는 기사가 있어, 주된 품목이 크게 보아 곡물류와 직물류로 나누어지며, 수확량에 따라 해마다 세액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고구려에서는 조(租)를 3등급으로 나누어 집집마다 각각 다르게 받았다고 하는데, 백제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일단 성인으로 분류된

15세 이상의 사람들도 다시 남자와 여자로 분류되어 병역과 부역 등에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금의 수취체제와 관련된 관청으로서는 {주서} [이역전]에 소개된 22부사(部司) 중 일단 곡부(穀部)·내경부(內部)·외경부(外部)·점구부(點口部)·주부(綢部)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서}에 실린 백제관련 기사는 대체로 6세기 중·후반의 상황이라고 하므로, 늦어도 6세기경에는 나름대로 정연한 세금관리체제가 수립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런데, {일본서기(日本書紀)} 인덕기(仁德紀) 41년조에는 백제가 “처음으로 국군(國郡)의 경계를 나누고 향토의 산물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은 조(調) 수취를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기사 역시 백제의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사의 연대문제인데, 현재 학계에서는 4세기 중반 근초고왕 때의 일이라는 견해와 5세기 후반 개로왕 때의 일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전지왕 2년(406)조의 “해충(解忠)을 탈출로 삼고 한성의 조(租) 1천석(石)을 주었다”는 기사는 조(租)를 수취·관리하는 관청이 있었으며, 수취한 조를 관료들의 녹봉으로도 사용하였음을 암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오늘날 전국 각지에 남아있는 성곽을 비롯한 삼국시대의 각종 유적은 당시의 역역(力役)이 남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여도 좋을 듯한데, 실제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기재된 70건에 가까운 역역관련 기사 가운데 40여건이 성곽 건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역역과 관련된 웅진·사비시대의 관청으로는 호적 관리와 노동력 징발을 담당하였을 점구부와 토목·건축사업을 주도한 사공부(司空部)가 주목된다.

2. 산업구조

1) 농업

백제의 주된 산업기반이 농업이었음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다. 다만, 무엇을 주로 경작하였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 {삼국사기}와 백제 당시에 중국에서 쓰여진 역사자료 등을 검토해보면 쌀·보리·조·콩·팥·기장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 기사에서는 보리·콩 등의 발작물이 자주 거론되고 있어 처음에는 밭농사 중심의 농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공간을 이용하면서도 농업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또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논농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처음부터 꾸준히 전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다루왕 6년조의 “나라 남쪽의 주(州)·군(郡)에 명령을 내려 처음으로 논[稻田]을 만들게 하였다”는 기사

와 같은 책 고이왕 9년조의 "나라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남쪽의 필[澤]에 논을 만들게 하였다"는 기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일부분 반영한 결과인 듯하다. 다만, 논농사는 기본적으로 수리(水利)시설을 갖추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관개시설을 축조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노동력 동원이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래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4세기 이후 철기 제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이에 따라 철제 농기구의 수와 종류도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우경(牛耕)에 이용되었을 대형 보습이 출토되는 시기도 대체로 4세기 이후이다. 우경의 실시로 농업생산력은 2배 이상 향상되고, 이로써 경작지는 자연스레 확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성시대까지는 각 지역의 소수 지배층이 철제 농기구를 독점적으로 제작·소유하였으므로 일반 농민들은 그들로부터 농기구를 빌려쓰는 형태의 공동경작 내지 집단경작을 여전히 유지하였을 것으로 추론하기도 한다.

또, 백제에서는 6세기경까지 아직 시비법(施肥法)이 도입되지 않아 토지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매년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연작(連作)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한번 농사를 짓고 나면 일정한 기간동안 밭을 묵혀서 지력(地力)을 회복한 다음 다시 농사를 짓는 이른바 휴경법(休耕法) 혹은 휴한법(休閑法)이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2) 수공업

고대 사회에서 철은 무기 및 사치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구와 농·공구를 만들 수 있는 중심 원료였으며, 이로 인해 그 교환가치가 매우 높아 화폐로서의 기능도 겸하였다. 따라서 당시 철을 생산하고 각종 철기를 제작·관리하는 일은 대체로 국가나 지방 권력자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대의 철제 무기로서는 각종 칼·창·도끼·낫·화살촉 등이 일반적이며, 농·공구로는 보습·파비·쇠스랑·낫·살포·자귀·도끼·삽날·톱·끌 등을 들 수 있다.

사치품은 철보다 금·은·동과 같은 귀금속을 주로 이용하였다. 금이나 금동으로 만든 관(冠)과 관식(冠飾), 귀걸이·팔찌·반지·허리띠·신발 등의 장신구는 물론, 각종 동물상을 비롯하여 베개·잔·항로 등의 공예·장식품은 백제의 세련된 금속 가공기술을 보여주는데, 제품의 성격상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제작되었을 것이다.

토목·건축 등 대규모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수공업 기술도 역시 중앙에서 관리하였을 것이다. 웅진·사비시대의 중앙 관청으로 알려진 22부사(部司) 가운데 내관(內官)인 마부(馬部)·도부(刀部)·목부(木部)와 외관(外官)인 사군부(司軍部)·사공부(司空部)·주부(綢部) 등은 모두 수공업과 깊이 관련된 부서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아마도 마부는 말과 수레의 부속품 제작 및 관리, 도부는 각종 칼의 제작과 관리, 목부는 토목·건축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을 것이며, 사군부는 각종 무기의 제작 및 관리, 사공부는 일반 토목·건축, 주부는 직물수공업과 관련된 부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서기}에 나오는 와박사(瓦博士)·노반박사(露盤博士) 등의 전문기술직 박사들을 통해, 백제에서 각종 작업의 분업화는 물론 기술교육을 담당한 기관이나 조직이 설치되었을 개연성도 인정되는데, 이들 기술직 박사는 대체로 백제 16관등 중 제8등위인 시덕(施德)과 제9등위인 고덕(固德)의 관등을 지녀, 당시 전문기술자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직물류는 관영은 물론 가내수공업의 형태로도 생산되었을 것이다. 가내수공업의 경우, 주된 생산자는 대부분 여자였을 개연성이 높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대규모 건축사업과 같은 부역에 동원되는 반면 여자들은 직조(織造)에 종사하는 것이 고·중세의 일반적 노동형태였는데, 백제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주서} [이역전]의 “세금은 베·명주·삼베와 쌀 등으로 낸다”는 기록과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27년조의 “명령을 내려 6품 이상은 자주색 옷을 입고 은빛 꽃으로 관(冠)을 장식하게 하며, 11품 이상은 붉은색 옷을 입고, 16품 이상은 파란색 옷을 입게 하였다”는 공복제(公服制) 실시 기사 등을 참고하면, 길쌈이 매우 보편적인 노동이었으며, 백제의 직조·염색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내수공업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상당량이 조(調)의 형태로 국가에 귀속되었을 터인데, 그것이 직물류에만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각종 목조품(木造品)과 석조품(石造品), 그리고 금속기까지도 서서히 가내수공업이 가능해지거나 그 폭이 확대되어 갔던 듯하다. 물론, 조세(調稅) 납부라는 부담으로 인해 제작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익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뒤따랐겠지만, 수공업과 관련된 관청의 탄생과 기술의 발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민간수공업의 확대를 부채질하였을 것이다.

2) 민속학분야

민속학분야는 크게 백제의 종교/사상, 백제의 예술, 백제의 민속, 백제의 생활, 백제의 설화/전설, 백제의 인물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각 분야별 항목을 보면, 백제의 종교/사상은 전통신앙의 생활/백제의 유교/백제의 도교/백제의 불교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불교는 다시 6개의 세부항목을 두어 설명하였다. 백제의 예술은 백제미술의 특징/조각/그림과 글씨 등 3개 분야이며, 이 가운데 조각은 백제 불교미술/백제의 불상조각 등 2개, 그림과 글씨는 그림/글씨 등 2개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백제의 민속은 종설/백제의 관혼상제/백제의 세시풍속 등 3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백제의 관혼상제는 다시 관례/혼례/상례/제례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백제의 생활은 백제의 개관과 10개의 세부항목을 두었는데, 의생활/식생활/주생활/농경생활/어로생활/수렵생활/성명/예절/백제인의 악기와 무용/백제의 의술 등이다. 백제의 설화/전설은 그대로 한 분야로 하였으며, 백제의 인물은 왕족/승려/학자/귀족/외교가/장군/예술가/기타 인물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목차 가운데 백제의 설화/전설과 백제의 인물 부분은 주로 사료의 소개이므로 본 장에서는 내용을 생략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개설내용만 소개하기로 하겠다.

백제의 종교/사상

1) 전통신앙

개요

무교를 비롯한 전통신앙은 한국 종교사상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것이라기 보다는 그 저변이나 외곽을 이루어 왔다. 비록 신념체계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신비적·주술적이며 현세이익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만, 유교나 불교 등 외래 고등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한국인의 생활습속 의식구조의 많은 부분을 지배해왔다.

백제인의 정신세계를 오랫동안 지배한 전통신앙 중의 하나는 샤머니즘이다. 샤머니즘은 동아시아 세계일대에 널리 퍼진 원시종교현상이었는데 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제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형성 초기에 지배이념을 제공해주었다. 샤머니즘의 기원은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백제초기에는 그것이 정치 사회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 의하면, 마한(馬韓)은 귀신을 믿어 국읍(國邑)에는 각기 한 사람을 뽑아 천신(天神)을 주제(主祭)하게 했는데 이를 천군(天

君)이라 했다. 이 천군은 샤먼의 계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의 성격을 띠는 인물로 초기 국가사회에 들어와 그 비중이 커진 사회(社會)의 공동의식을 주재했다. 또한 동이전에는 삼한(三韓)의 별읍(別邑)에 소도(蘇塗)신앙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읍락공동체(邑落共同體)를 중심으로 하여 행해지던 부락제(部落祭)에서 기원한 것으로 국가권력의 커지면서 제천의례(祭天儀禮)로 승화되었다. 또한 삼한사회에 5월과 10월에 각기 계절제(季節祭)가 행해졌는데 이는 농경의례(農耕儀禮)의 성격이 강한 제천의례(祭天儀禮)였다.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달리 부여계의 유이민 집단이 건국하였다. 따라서 주몽이나 혁거세와 같은 천강난생(天降卵生)설화가 없고 고구려 5부족 신라의 6부족과 같은 토착민이 없다. 시조 온조왕(溫祚王)은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들인양 설명되어 왔고 실제 온조왕은 한성(漢城)에서 즉위하자마자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세웠다.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국왕이 즉위한 이듬해 정월이면 동명왕묘에 참배하였고 큰 가뭄이 들때면 이것을 찾아 기우제(祈雨祭)를 행하였다. 그런데 정작 건국자인 온조왕묘나 비류왕묘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 백제왕실에서 주몽이 온조나 비류보다 숭배된 사실을 말해준다.

백제의 전통신앙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천(井泉)신앙 혹은 용신(龍神)신앙이다. 샘물 혹은 하천(河川)에 대한 신앙은 고대 중근동(中近東)지방이나 중국에서 유행하였는데 이는 수신(水神)을 곡물(穀物)이나 천지(大地)의 창조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사회와 자연을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백제의 설화 중에는 시조 혹은 한인(偉人)의 탄생 및 수태(受胎)가 정천(井泉) 혹은 하천(河川)과 결부됨을 보여준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무왕의 어머니는 도성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못 속의 용(龍)과 관계한 뒤 무왕을 낳았다고 한다. 용은 물과 가장 관련이 깊은 동물이다. 용은 한민족이 만들어낸 상상의 동물인데 일찍부터 용신(龍神) 용왕(龍王)에 대한 신앙이 고려에 전해졌다. 한성시대(漢城時代) 도성의 방어시설로 짐작되는 풍납성(豊納城) 토성의 본래 이름이 사성(蛇城)이고 부여 능산리(陵山里)에서 나온 6세기 후반의 용봉향노(龍鳳香爐)를 볼 때 용신신앙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무왕설화는 백제왕실이 중국의 용사(龍蛇)설화를 수용하여 고구려 시조신화에 의존해 온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왕실을 정통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국가 신화를 만들어낸 것의 반영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음양이나 무속과 관련된 기록이 후주서(後周書)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보인다. 일자(日者)나 일관(日官)은 천체현상의 관찰과 해석 그리고 점후복무(占候卜筮)를 담당하는데 그러한 예가 백제에도 보이는 것이다. 후주서에 의하면 “백제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술(術)을 풀이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참(讖)을 해석한 무당 역시 일관이다. 온조왕 25년(A.D.7) 봄 2월에 왕궁의 우물물이 갑자기 넘치고 한성인(漢城人) 집에 있는 말이 머리 하나에 몸이 둘 달린 소를 낳았다. 일관(日官)이 말하기를 “우물물이 갑자기 넘친 것은 대왕께서 발흥할 징조이며 소가 머리하나에 몸이 둘 달린 것은 대왕께서 이웃나라를 합친 징조입니다”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마침내 진

한 마한을 합칠 생각을 하였다. 또한 백제(百濟)의 망도(亡兆) 예언에서 무속(巫俗)과 관련 된 예언이 나온다. 삼국사기의 의자왕 20년(660) 봄 2월에 한 귀신이 궁중으로 들어와 크게 부르짖기를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 하고 땅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괴이히 여겨 사람을 시켜 땅을 파보았더니 깊이 석자쯤 들어가서 한 거북이가 나왔는데, 그 등에 "백제는 둥근 달(月輪)과 같고 신라는 초생달(月新)과 같다"하였다. 왕은 이를 무(巫)에게 물었더니 그의 말이 "달이 둥글면 찬 것이니 달이 차면 이지러지고 달이 새로우면 차지 않은 것이니 차지 않은 것은 점점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니 왕이 노하여 그를 죽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월륜(月輪)과 같다는 것은 번성할 것이며, 월신과 같다는 것은 미약함이니 우리나라는 성하고 신라는 침미(寢微)할 것입니다"하니 왕이 기뻐하였다. 이처럼 무(巫)는 왕의 자문에 응하여 신의(神意)를 전하였다. 말하자면 백제시기의 무(巫)는 괴이한 현상을 설명하거나 보이지 않는 사실을 점치는 일을 행하였다.

2) 유교

개요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중국문화를 수용하였고 유학을 받아들였다. 대략 한사군(漢四郡) 설치 이래 한문화가 들어오고 유교의 예속이 널리 보급되었다. 교육기관이 있었고 역사서가 편찬되었으며 논어와 같은 주요 경전을 일본에 전하기도 하였다.

원래 漢字는 이미 백제 건국 이전에 전래되었다. B.C.2세기 말경에 진국(辰國)이 漢에 대해 직접 통교(通交)를 희망한 국서(國書)를 보낸 사실로 미루어 당시 외교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만큼 漢字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낙랑부(樂浪部)이 설치된 뒤에도 낙랑군과 인접해 있던 백제는 漢人들과 접촉하고 漢文을 흡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문이 사용됨에 따라 漢文學이 발달하게 되었다. 개로왕이 458년 남조의 송, 472년 북조의 북위(北魏)에 보낸 국서(國書)라든지 혹은 7세기 중엽 대좌평(大佐平) 사택지적(砂宅智積)의 발원으로 제작된 당탑(堂塔) 건립 비문(碑文) 등은 한문화의 수준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문화의 수용은 유교문화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우선 백제는 유교식 예제나 윤리도덕을 수용하였다. 유교식 예제(禮制)인 혼례는 중국과 비슷하였고 상례(喪禮)는 고구려와 같았다.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3년복을 입고 나머지 친족은 장사를 치르고 바로 복을 벗었다고 한다. 또한 백제에는 효와 충이라는 윤리에 충실한 많은 충신 효자를 배출하였다. 의자왕대 좌평 成忠은 죽음을 무릎쓰고 간언하였다가 옥사하였고, 階伯은 5천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백제의 사직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이지만 부왕모후(父王母后)를 성심껏 섬기고 형제끼리 우애가 있어 그를 해동증자(海東曾子)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교이념은 정치운영에도 반영되었다. 마한을 통합한 백제는 주례(周禮)에 입각

한 통치체제의 정비를 기하였다. 주례(周禮)는 이상적인 유교국가인 주(周)의 정치체제를 정리한 유교 경전의 하나이다. 사비시대 제사를 선출할 때 후보자 3,4명의 이름을 적어 밀봉하여 뒤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금강 대안(對岸)의 바위를 천정대(天政臺)정사암(政事巖)이라고 하는데, 이 천정(天政)이란 주례(周禮)에서 연유한다. 주례 천관총제(天官 宰)조에 의하면 천관(天官)은 360관을 총섭(總攝)하는 최고의 관직이다. 그러므로 천정대(天政臺)란 그같은 천관(天官)의 정사(政事)를 수행하는 관부(官府) 혹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사비시대에 5,6명의 좌평이 제상으로 내관(內官)과 외관(外官)을 합친 22개의 관청을 지휘 감독했는데 외관(外官) 10部 중에는 사도부(司徒部) 사공부(司空部) 사관부(司寇部) 사군부(司君部) 등 주례(周禮)에서 따온 것이 많다. 실은 좌평이란 명칭 자체가 주례의 하관(夏官) 사마(司馬)의 직장(職掌)을 설명하여 "이좌평(以佐平) 평방국(平邦國)"라 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문무백관의 관등은 좌평이하 16등급으로 정연한 체계를 이루었는데 그 명칭 또한 솔자(率字), 덕자(德字) 계열의 한식(漢式)으로 되어 있다. 이는 토착적 성격의 고구려 신라의 관등 이름과 다른 유교이념의 반영이 아닌가 한다.

주례(周禮)에 의한 백제의 정치사상은 천지에 대한 제사의례에서도 볼 수 있다. 백제에서는 동명왕묘와 더불어 천지에 제사하였다. 온조왕 38년 10월에 왕은 도성 남쪽에 대단(大壇)(일명 남단(南壇))을 쌓고 천지산천에 제사지냈다고 하는데, 역대국왕은 즉위한 정월에 동명왕묘를 참배한 다음 2월에는 천지에 대한 제사를 행하였다. 이때 왕은 친히 희생물(주로 돼지)을 칼로 베었으며 의식때에는 북과 피리를 사용했다. 이 제사를 거행할 때 이상한 새 다섯 마리가 날아들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또한 주서(周書) 백제전(百濟傳)에는 백제왕이 매년 사중(四仲)의 月에 천신(天神)과 오제(五帝)의 神을 제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천신(天神)은 마한시대 천군(天君)이 제사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사령(祠令)에 보이는 호천상제(昊天上帝)를 가리킨다. 오제(五帝)의 신은 오방신(五方神)을 가리키는데 이는 오방오행(五方五行)사상에 기원한 것이다. 그런데 천신(天神) 및 오제(五帝)의 신이란 본디 주례(周禮)의 제사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유교경전에 말하는 국가의례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제에서는 유교이념의 구체적인 실현인 인정(仁政)이 행해지고 있었다. 비류왕대 왕이 사람을 보내 백성의 괴로움을 물어보게 하고 홀아비 · 과부 · 고아 · 자식없는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에게 곡식 3석씩을 주도록 하였는데, 이는 {맹자}에서 말하는 천하에 의지할 곳없는 궁민(窮民)을 우선적으로 보살피라는 인정(仁政)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백제에서는 풍년과 흉년에 따라 세금을 차등있게 징수하였다고 하는데, 형벌을 덜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유교사상의 핵심이 된다. 백제에서는 정치이념으로서 유교를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제의 교육제도에 관한 기사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사서에는 문물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유교에 입각한 학교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서(周書) · 북사(北

史)·수서(隋書)의 백제전에는 "속중기사(俗重騎射)" 또는 "속상기사(俗尙騎射)"라고 쓰고 있다. 이는 고구려 국당(堂)에서 미혼자제들이 습사(習射)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기에서 15세이상 성동(成童)이 되면 "학사어(學射御)"한다는 것과 부합한다고 하겠다. 중국의 역대사서들이 "겸애분사(兼愛憤史)"라거나 "독서사(讀書史)"라고 백제의 문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백제에서도 교육제도가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세기 중엽인 근초고왕(345-375)대 박사 고흥이 {서기(書記)}를 편찬하였다.{구당서(舊唐書)} 백제전(百濟傳)에 의하면 오경(五經)과 제자(諸子)·역사(歷史)가 널리 읽혔다고 하고 표소(表疏)는 모두 중화의 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기서적유오경자사 우표소병의 중화지법(其書籍有五經子史 又表疏并依中華之法))고 한다. 또한 일본서기에 백제기·백제본기·백제신찬 등 백제 사서의 이름이 나오는 보아 사서편찬이 활발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왕때에는 양(梁)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시경(詩經) 연구의 전문가인 모시박사(毛詩博士)를 보내주도록 요청하였고, 다시 양(梁)에 구례박사(講禮博士)를 청하여 예학에 이름 높은 육호(陸)가 양(梁) 무제(武帝)의 명에 의하여 백제에 파견되기까지 하였다. 당시 양(梁) 나라에서는 예학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육후는 최령은(崔靈恩)이 지은 {삼례의종(三禮義宗)}을 배운 예학의 권위자였다. 한편 근초고왕때 아직기와 박사인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 한문과 유학을 전하였는데 특히 왕인은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다. 아직기와 왕인의 후에 씨족들은 대화(大和) 조정에서 문필을 업으로 하는 사직(史職)에 오랫동안 종사했다. 그 뒤 6세기초 무녕왕 때에는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와 고안무(高安茂)가 도일한 바 있으며, 성왕때에는 대화조정의 요청에 따라 오경박사인 마정안(馬丁安)과 왕유귀(王柳貴)를 보낸일이 있다.

백제는 중국의 문물을 신라나 일본에 전달하는 매개역할을 하였을것으로 보인다. 고흥이나 왕인이 맡았던 박사는 고대국가의 직능상의 관직으로 오경박사 가운데 하나로서 고구려 백제의 태학박사나 제업박사(諸業博士)와 유사한 것이다. 삼국의 박사제도는 한대 이래 발전되어온 중국의 박사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백제에서는 고구려와 같이 율령 국가 정비기에 시행한 것이다.

말하자면 백제는 한문학 뿐만 아니라 유교의 경전인 오경(五經)과 제자(諸子)·역사(歷史)가 수용되어 현실절치에 이용하였고 일본에까지 전래하는 유교문화의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3. 도교

개요

백제문화 또는 백제사상의 연원은 지리적 및 역사적 배경 때문에 독자성보다는 잡다성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여타의 종교사상처럼 도가사상에서도 그 독자성의 추출

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백제는 전신인 마한시대부터 이미 해상을 통해 중국과의 많은 왕래가 있었으며 마한문화의 기반위에 출발하여, 중국 남조(南朝)와의 직접적인 교섭을 가졌고 남조문물사상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백제는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도교를 수용하였다.

삼국유사에는 사비시대에 일산(日山)·오산(吳山)·부산(浮山)의 3산(山)이 있어 산 위에 사는 신인(神人)이 조석(朝夕)으로 서로 날아다녔다는 설화가 있다. 또한 삼국사기 백제전에는 근초고왕 24(369) 백제를 침입해온 고구려군을 공격하던 장군 막고해는 승전의 여세를 몰아 북진을 계속하여 수곡성(水谷城)에 이르렀을 때 태자(근구수왕(近仇首王))에게 더 이상 추격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막고해는 도가의 말을 인용하여 "일찍이 도가의 말을 들으니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얻은 것이 많은데 어찌 다시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상문도가지언 지족불욕 지지불퇴 금소득다의 하필구다(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고 하였다. 전쟁 도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가의 말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도가사상이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준다.

무녕왕릉의 지석에서도 백제의 도교사상을 보여준다. 지석 끝에 음각된 매지문(買地文)에는 "부종율령(不從律令)"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도사들이 주문을 외울 때 마지막 대목에 으레 따라붙는 "극급여율령(急急如律令)"이란 구절을 백제식으로 고친 것이다. 이는 지석과 함께 출토된 두 개의 구리거울에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과 방격규구신수경(方格規矩神獸鏡)의 명문에 "상유선인부지노(上有仙人不知老)"라는 문구와 함께 도교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밖에 부여의 궁남지(宮南池)는 무왕 35년(634)에 물을 20여리나 끌어들여 만든 것이다. 못 언덕에는 사방에 버드나무를 심고 못속에 인공섬을 만들어 이를 신선이 살고 있다는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선산(方丈仙山)에 비겼다고 한다. 뒤에 못가에 망해루(望海樓)를 지어 궁중 연회장소로 이용했다. 당시는 삼국항쟁기로서 도교는 불교와 같이 백성들에게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위안을 주는 효과가 컸다. 더욱 불노장생(不老長生)과 현세(現世)에서의 부귀와 향락을 추구하는 도교는 삼국 중 가장 느긋한 마음으로 생의 여유를 즐긴 백제인의 기질에 잘 맞는 점이 있었다.

한편 1993년 부여 능산리 사지(寺址)에서 발견된 금동용봉래산향로(金銅龍鳳蓬萊山香爐)는 사비시대 도교신앙을 잘 보여준다. 향로의 몸체를 덮고 있는 몸체를 덮고 있는 뚜껑부분은 삼산형(三山形)의 문양장식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다시 다섯 개의 산을 둘러고 산꼭대기에 앉아 있거나 날아가는 새 모양을 조각해 놓았다. 바로 도교의 삼신산을 재현해 놓은 것이다. 이 향로는 사비시대 도교의 풍부한 상상력과 환상적 표현주의가 한껏 발휘된 최고의 명품이다.

더욱 근초고왕때에는 아직기 왕인을 시켜 역경 효경 논어 등을 일본에 보낼 때 산해경

과 같은 도가류의 경전이 있었고, 무왕 초에 승려 관륵이 일본에 전해준 것 가운데 둔갑과 방술 같은 도교적인 잡술이 포함되었다. 일본에 전해줄 만큼 백제에는 도가사상이 널리 보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단 중국사서인 주서의 백제전에는 도사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독립된 종교로서의 도교를 주관하는 도사 즉 도교가 없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더불어 유교·불교·도교 등이 삼교가 들어왔지만 도교의 종교화는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백제의 도교는 고구려와 같이 뚜렷한 종교의 독립의 자취는 볼 수 없으나 도가의 오천언(五千言)이 널리 읽혀졌을 정도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백제문화는 강한 전통의 계승이나 토착인 문화의 강고성보다는 외래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기존문화와 신문화의 조화를 꾀하려는데 그 특성을 드러낸다. 이는 백제가 지정학적 위치 즉 북으로 고구려와 대결하고 동으로 신라와 대치해있으며 남으로는 일본과 통하고 서로는 중국과 교류하는 천하의 중앙에 위치했다. 따라서 백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선진문화를 중국과 고구려에서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며 신라와 일본에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불교

1) 불교의 전래와 국가불교(國家佛敎)로의 발전

백제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침류왕(枕流王) 원년(384)이다.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동진(東晉)에서 오자 왕이 그를 맞이하여 궁중에 모시고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서울에 절을 짓고 승려 열명을 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불교가 전해진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절을 짓고 백제인을 출가(出家)시키고 또 성직자까지 배출했다는 것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류왕 이전에 백제에 이미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백제때에 불교가 성행(盛行)한 사실에 대해서는 {주서(周書)}에 “승려와 절과 탑(塔)이 매우 많다”고 한 것과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아신왕(阿莘王)이 백성들에게 “불법(佛法)을 믿어 복(福)을 구하라”라고 하교(下敎)하였다고 한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백제에는 왕실의 보호하에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되었음을 짐작하겠다.

백제에 전해진 초창기의 불교사상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초창기인만큼 인과응보(因果應報)와 권선징악적(勸善懲惡的)인 내용과 종교적(宗教的) 신성(神性)을 강조한 신이적(神異的)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백제불교의 한 특성으로 국가불교(國家佛敎)로서의 발전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대단위 규모의 사찰을 조영(造營)한다는 것이다.

왕흥사(王興寺)의 경우 법왕(法王) 2년(600)에 일단 준공되었다가 그 뒤 35년간이라는 세월을 걸친 증축공사 끝에 무왕(武王) 35년(634)에 완성었다. 이 절은 무왕의 대외적인 웅략(雄略)의 웅지(雄志)가 어린 호국의 도량(道場)이었던 것이다. 왕이 이를 예불(禮佛)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인근의 바위에서 부처를 경배할 정도로 신성시하였으며, 국왕의 입석하에 자주 행향의식(行香儀式)이 베풀어졌다.

2) 계율의 성행과 승직제도(僧職制度)

계율(戒律)이란 몸(身)과 입(口)과 뜻(意)에 의해 생겨나게 되는 일체의 악(惡)을 방지하기 위해 불교에 귀의(歸依)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또한 계율은 성불(成佛)의 길에 들어가는 기본바탕이 되는 것으로 대승불교(大乘佛敎)에 있어서는 자신의 도덕적 자비의 방향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戒)는 넓은 의미에서 불 때 불교도덕이며, 율(律)은 출가자(出家者)만을 위한 통제규칙으로 정의된다.

백제에서 계율이 성행(盛行)하게 된 것에는 불교가 전래되던 초창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본격적인 전파는 승려 겸익(謙益)의 활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인도에 유학하여 율부(律部)를 깊이 연구한 다음 성왕(聖王) 4년(526)에 귀국한 뒤, 왕명에 따라 국내의 승려 18인과 함께 역경사업(譯經事業)에 종사하였다. 이때 번역된 것이 율부 72권으로서 승려 담욱(曇旭)과 혜인(惠仁)은 율소(律疏) 36권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불 때 백제에서는 계율학이 일찍부터 발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성왕 스스로도 {비담신율서(毘曇新律序)}를 지어 계율의 실천을 강조했다.

이같이 전래된 백제의 계율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에 가서 경전(經典)을 직접 구해와 번역 보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백제의 계율이 중국과 고구려 신라에 전래된 것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다. 백제가 중국에 전래된 율전(律典)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후 백제불교는 율종(律宗)을 중심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계율의 학문적 발전과 더불어 실천도 강조되었다. 법왕(法王)이 전국에 교지(敎旨)를 내려 살생을 금지하고 고기잡이와 사냥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없애게 하고 나아가서는 민가에서 기르는 닭집승까지도 놓아주도록 하였던 것이다. 비록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실천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계율의 실천을 생활화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같은 불교계율의 강조는 백제에서 승직제도(僧職制度)가 일찍부터 발달하게 되었음을 생각해 해준다. 백성들이 계율을 생활화하고 있었으므로, 성직자인 승려들은 더할나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려들을 감독하는 승직제도가 만들어져 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백제의 승직제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일본의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추고천황(推古天皇)이 백제 승려 관록(觀勒)을 승정(僧正)으로 삼아 비구(比丘)와 비구니(比丘尼)들을 검교

(檢校)토록 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3) 미륵신앙(彌勒信仰)

경전(經典)에 따르면, 미래의 말법시대(末法時代)에 미륵불(彌勒佛)이 도솔천(兜率天)으로부터 하생(下生)하여 인간세계에 태어난뒤 출가하고 수행하여 성불(成佛)한 뒤에 세 차례의 설법을 통하여 중생들을 교화(敎化)하여 이상사회(理想社會)로 이끌게 된다고 한다. 미륵신앙이란 미륵불이 이끄는 그러한 이상사회에 살 것을 기원하는 신앙이다. 경전에 설명된 미륵이상세계는

온 세상이 오직 평화로워 도둑의 근심이 없고, 도로나 시골이나 문을 잠글 필요가 없다. 또 늙고 병드는 데 대한 걱정이나 물, 불로 인한 재앙이 없으며 전쟁과 가난이 없고, 짐승이나 식물로 인한 독(毒)과 해(害)가 없느니라. 또 서로 자비스런 마음으로 공경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어미가 아들을 사랑하듯, 언어와 행동이 지극히 겸손하니, 이는 다 미륵 부처님이 자비하신 마음으로 깨우치고 이끌어주시는 까닭이니라. 살생하지 않는 계행(戒行)을 지켜, 고기를 먹지 않으니 저 세상 사람들의 감관은 조용하고 평온하다({미륵대성불경(彌勒大成佛經)}).

라고 한 바와 같이, 중생들에게 있어 모든 걱정이 없는 사회다. 그러므로 이같은 미륵 이상사회의 출현은 중생들에게 있어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공경효애(恭敬孝愛)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불교의 계율(戒律)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같은 미륵이상사회의 출현은 중생들이 계율을 잘 지켜서 평화로운 세상이 전개될 때에 비로서 가능하게 되는데, 그것은 또한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는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사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륵이상사회는 중생들의 계율수지(戒律受持)와 국왕의 통치 모두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백제의 불교에서 계율이 성행하게 된 것이 미륵신앙의 발전과도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다.

백제때에 미륵신앙이 유행한 것은 일찍부터였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자세한 실상은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무왕(武王)의 미륵사(彌勒寺) 창건 설화는 그것이 번성하였던 사실을 잘 알려준다.

무왕이 부인 선화공주(善花公主)와 함께 용화산(龍華山) 사자사(獅子寺)의 연못가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연못 속에서 미륵삼존불(彌勒三尊佛)이 출현하였다. 이에 왕과 왕비는 수레를 멈추고 경배하였고, 이때 왕비가 그 곳에 큰 절을 지을 것을 소원한다. 왕이 이를 들어주기로 하였으나, 연못을 매워야 하는 큰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을 사자사에 있던 지명법사(知命法師)에게 의논한 바, 법사는神通력으로 하룻 밤사이에 산 한쪽을 허물어 연못을 매워 주었다. 그래서 그곳에 절을 조영하고는 미륵사라고 이름하였

던 것이다.

이상은 미륵사의 창건에 얽힌 설화의 대략이다. 당시에 건립된 미륵사는 지금은 많이 훼손되어 옛날의 모습을 잘 알 수 없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으며, 설화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용화산 중턱에는 지금도 사자암이 남아 있어서 미륵사 창건 설화에 얽힌 연기(緣起)를 실감할 수 있다.

이같은 미륵사 창건 설화에서 용화산은 미륵이 하생하여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한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으며, 세 개의 건물을 세웠다는 것 또한 미륵불이 3회에 걸친 설법(說法)을 통하여 중생을 교화한다는 사례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사자사는 미륵이 하생하기 전 도솔천에 있을 때 앉았다는 사자상좌(獅子床座)를 상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왕이 용화산 아래를 지나다가 미륵불의 출현을 목도하게 된 것은 전륜성왕이 미륵불의 처소에 나아가 설법을 듣는다고 한 경전의 기록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륵사를 창건한 무왕은 바로 경전에 나오는 전륜성왕에 비길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미륵사창건 설화를 통해 볼 때에 백제인들은 신앙공덕(信仰功德)으로 미륵불이 하생하고, 그래서 머지 않아 미륵이상사회가 도래(到來)할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아 백제인들은 매우 현실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4) 관음신앙(觀音信仰)과 [법화경(法華經)] 신봉(信奉)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일심(一心)으로 염불(念佛)하여 그 원력(願力)으로 현세(現世)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험(靈驗)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보살로서 대승불교(大乘佛教)의 경전(經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법화경}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고 염불하면 화재나 홍수의 위험에서도 이를 벗어나며, 칼과 몽둥이는 부서져 없어지고, 또한 중생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 사례들을 살펴 볼 때 백제의 관음신앙은 대부분이 {법화경}의 내용에서 비롯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승려 현광(玄光)은 지금의 공주(公州)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건너가 불법(佛法)을 구하였다. 혜사(慧思)에게서 {법화경}의 내용을 수업 받고 법화삼매(法華三昧)를 증득(證得)하였으며, 스승으로부터 귀국해서 불법을 베풀으라는 가르침을 받들어 귀국하였다. 귀국도중 용궁(龍宮)에 들어가 설법하였으며, 고향 공주에 들어와 절을 짓고 교화(敎化)를 펼쳤는데, 제자들은 삼매(三昧)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한다.

승려 혜현(惠現)은 어려서 출가한 뒤 {법화경} 독송을 한결같이 하였는데, 그가 기도함에 영험이 많았다고 한다. 만년에 그가 산 속에서 수도하다가 입적(入寂)하였는데, 그의 시신을 호랑이가 먹어버렸으나, 오직 혀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승려 발정(發正)은 중국에 유학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관음도량(觀音道場)을

참배하였다고 전한다. 무왕(武王)이 세운 제석사(帝釋寺)에 화재가 나서 법당과 부속 건물들을 불태웠을 때에 그 탑 속에 넣어 두었던 사리(舍利)와 {금강경(金剛經)}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전하는데, 이것은 {법화경} 보문품(普門品)에 있는 관세음보살의神通력으로 불에도 능히 타지 않는다고 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성덕산(聖德山) 관음사(觀音寺)의 연기설화(緣起說話)에 따르면, 효녀 홍장(洪莊)이 중국의 황후가 되어 많은 불사(佛事)의 공덕(功德)을 지었는데 이로 인해 장님인 아버지의 눈이 뜨이게 되었다. 또 관음상(觀音像)을 조성하여 고국 땅으로 보낸 것이 옥과(玉果) 지방의 처녀 성덕(聖德)을 통하여 성덕산 관음사를 이루게 했다는 것이다. 이 때의 효녀 홍장과 옥과 처녀 성덕을 관세음보살의 화신(化身)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화의 내용은 {법화경} 보문품에 설명된 내용 즉, 관세음보살이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들을 구제하고 해탈케 할 때에는 많은 방편력(方便力)으로 몸을 변화시켜 나타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백제에서 믿어진 관음신앙은 {법화경} 보문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을 위주로 하는 현세이익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5) 미타신앙(彌陀信仰)

불교에서 정토(淨土)란 부처나 보살(菩薩)이 머무는 곳을 말한다. 수많은 정토 가운데 아미타불(阿彌陀佛)이 계신 곳을 미타정토(彌陀淨土)라고 부르는데, 서방정토(西方淨土) 혹은 극락(極樂)이라고도 한다. 미타신앙은 아미타불이 계시는 정토에 가서 살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백제시대에 미타신앙이 행해진 사례로, 먼저 27대 위덕왕(威德王)이 "부왕(父王)을 받들기 위해 출가(出家)하여 수도(修道)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이를 신하들이 말리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위덕왕은 신하들의 간곡한 만류에 따라 백명의 백성들을 출가(出家)시키고 갖가지의 불사공덕(佛事功德)을 지어 그것을 대신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억울하게 전사하여 원혼(冤魂)이 된 부왕을 위해 출가 수도하고자 함은 부왕의 명복(冥福)을 빌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부왕의 명복을 빌고자 하는 왕생기원(往生祈願)의 신앙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선광사연기(善光寺緣起)}에 따르면, 선광사의 생신아미타여래(生身阿彌陀如來; 일광삼존(一光三尊) 형식의 아미타불상을 가리킴)는 옛날 인도의 월개(月蓋)라는 장자(長者)의 청(請)으로 이 세상에 와서 출현한 본존불(本尊佛)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대림정사(大林精舍)에 계실 때에 인식하고 탐욕스러운 월개장자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마침 그 지역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의 딸 또한 죽음을 눈 앞에 두게 되었다. 이때를 당하여 월개장자가 부처님을 찾아가 참회하며 자비(慈悲)를 구하였고, 부처님은 그에게 서방(西方)의 극락세계(極樂世界)에 있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의 명호(名號)를 부르면서 간청하라는 가르침을 주게

된다. 이에 월개장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방을 향해 온갖 정성을 갖추고는 '나 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염불하였다. 그의 정성이 감응(感應)되어 월개의 딸은 물론 모든 환자들의 병이 낫게 되었다. 그후 1300년(혹은 500년)이 지난 뒤 월개장자는 환생(還生)하여 백제의 왕이 되었으나 다시 악업(惡業)을 짓고 있었다. 이에 생신미타 여래가 다시금 그를 구제하고자 백제에 날아와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백제왕은 지난 날을 생각해내고 참회(懺悔)하여 나라 안에 불법을 크게 일으켰다.

이 설화를 통해 생각해 볼 때 백제인들은 미타정토에 왕생(往生)하고자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가 바로 정토임을 믿으려 했다고 하겠다. 이것은 백제인들의 미타신앙이 매우 현세위주로 현실이익적인 신앙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백제 불교의 일본 전수(傳授)

백제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어 그들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은 여러가지 문헌에 전하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백제가 일본에 불교를 전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록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성왕(聖王) 때에 전래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후 백제는 일본에 율사(律師) 선사(禪師) 비구니(比丘尼) 등을 파견하면서 여러 경전(經典)과 론소(論疏)들을 보내었고 또한 공장(工匠)들을 보내어 사원건축을 전수(傳授)해 주었던 사실이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전수에 힘입어 추고천황(推古天皇)때에는 사원 46개소 승려 860인 비구니 569인에 이르게 될 정도로 크게 발전하였던 것이다. 백제 승려 혜충(慧聰)도 일본으로 건너가 대신 소아마자(蘇我馬子)에게 계법(戒法)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위덕왕(威德王)때에는 선신니(善神尼) 등 3인의 비구니가 백제에 와서 계학(戒學)을 공부하고 3년만에 돌아갔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백제와 일본 사이에서 불교의 전수는 양국이 서로 오가며 이루어졌음도 알겠다.

그리고 추고천황때에는 한 승려가 조부(祖父)를 때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를 계기로 승정(僧正)과 승도(僧都)를 두어 사찰과 승려들을 감찰(監察)토록 하고 있다. 이 때의 초대 승정에 임명된 승려가 바로 백제 승려 관록(觀勒)이었다.

이상에서 살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본에 있어서 불교는 초기의 전파과정뿐만 아니라 교학(敎學)의 발전 승직제도(僧職制度)의 수립 등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겠다. 이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바 그것은 현존하는 유물들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유물을 통해 설명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백제의 예술

1. 백제미술의 특징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는 각기 독특한 성격과 양상을 가지면서 발전하였다. 이중에서도 백제의 문화는 고구려 신라와 다르게 섬세함과 온아함을 가진 미술문화로 평가되어 왔다.

백제의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겠으나, '바다와 강을 이용할 줄 안 사람들의 문화'로 불려져도 좋을 듯하다.

이 열린 창구를 통하여 백제는 중국 남조의 선진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백제는 문화면에서 주변의 여러 나라와 서로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발전하였다. 같은 부족계통인 고구려는 물론이려니와 중국의 한족으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받고, 다시 이를 동쪽의 신라나 바다 건너 후진의 일본에 전해주었던 것이다. 대체로 백제 초기의 문화는 고구려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웅진 시대부터는 고구려와의 정치 관계가 끊어짐과 함께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그리하여 특히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은 백제의 문화와 예술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백제의 문화는 백제가 처한 지리적인 조건, 즉 한강유역의 평탄하고도 비옥한 자연환경과 금강, 영산강 등등 충청 호남 지역의 넓은 농경지와 바다라는 풍요로운 자연조건을 기반으로 하면서, 점차 고구려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백제특유의 온유하고도 세련된 성격으로 변모되어 갔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백제문화가 전반적으로 다양하면서도 온화함과 섬세함이 결들여진 것임은 이러한 고대 농경사회의 풍요가 밑바탕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백제는 스스로 발전시킨 문화를 이웃 일본이나 신라에 전파하는 교량 역할도 충실히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는 백제의 문화적인 왕성한 활동성과 자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백제가 신라에 비하여 문화적 선진국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 문화전파의 흔적들은 많은 곳에서 발견된다. 신라가 국력을 기울여 세운 황룡사도 동양최대의 가람인 미륵사를 창건할 수 있었던 백제의 기술 원조를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었다. 백제 문화는 중국과 고구려의 서북 문화와 관계를 가지면서 신라와 일본의 남동 문화와 연결되는 이룰테면 동아시아 문화 전파의 중요한 거점이자, 교량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삼국의 미술문화는 모두가 불교사상과 불교미술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불교미술의 특징은 장엄미와 신앙심의 구체적인 표현이고, 따라서 각 시기 최고 수준의 조형미술을 대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 전하는 백제의 미술문화는 고분 출토품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이 불교문화 유적과 관련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백제문화가 그 이전시기에 발달했던 마한의 여러 지역문화를 아우르면서 다양한

모습을 가미하였다는 사실이다.

2. 조각

1) 백제 불교미술

백제는 고구려가 불교를 받아들인 12년 후인 침류왕 원년(384년)에 東晉으로부터 건너온 胡僧 마라난타에 의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385년엔 漢山에 사찰을 건립하고 그곳에 僧 10인을 두었다.

그 후 백제의 불교는 아신왕을 거쳐 성왕대에 이르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아울러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는 등 고대 한-일 문화관계에 있어서도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왕 이후 그 뒤를 이은 위덕왕 및 무왕대에 이르기까지 백제의 佛敎는 사상 뿐만 아니라 불교미술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백제의 불상은 현재 대부분이 사비기의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한산 및 웅진기의 백제 사지가 아직까지 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물론 고기록을 통해서 전술한 한산의 사찰, 그리고 웅진의 수원사에 위덕왕 때 신라의 僧 眞慈가 미륵선화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살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기록과 합당한 사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사비도읍기의 사지의 경우는 고고학적인 성과에 의해서 다수가 확인되었고 아울러 불상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백제의 불상은 현재 금동불이 대부분이며 그 이외 석불 및 마애불도 소수가 전하고 있다. 특히 금동불의 경우는 그 크기가 대부분 한자 이내이기 때문에 그 이동성이 원활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도 많은 수가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따르는 석불 및 마애불의 경우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훼손이 심해 현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이 많은 편이다.

2) 백제의 불상조각

금동불이란 불상의 표면에 금색의 칠을 하여 엄숙함 및 장엄미를 갖추도록 한 것으로 불상의 조성 규범 중 하나인 32古相의 金色相 및 丈光相에 기인한 것이다.

백제의 금동불상은 다시 그 격에 따라 여래상 및 보살상, 그리고 나한상 등으로 나눌 수 있겠고, 부처의 자세면으로는 입상 및 좌상, 그리고 반가사유상으로 구분된다.

백제의 금동여래상으로는 서산 보원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을 비롯하여 부여 규암면 新里 출토 금동여래좌상, 南宮 鍊 소장 금동여래좌상 및 부여 가탑리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등을 들 수 있다.

백제의 금동보살상은 크게 관음보살 및 미륵보살반가사유상 그리고 捧寶珠菩薩像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음보살상의 경우 아미타여래의 좌협시 보살로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백제의 상에서는 오로지 獨尊으로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미륵보살상은 금동 뿐만 아니라 석조상의 경우도 6세기 후반에서부터 7세기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조성되는데 자세는 반가사유형이 대부분이며 이는 백제 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석불의 형식으로는 군수리사지 출토 납석제 석조여래좌상 및 예산군 화전리 사면석불, 부소산성 출토 납석제 반가사유상, 정립사지 출토 납석제 삼존불상, 정읍 보화리 석불입상 그리고 익산연동리석불좌상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예산 화전리의 사면석불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방불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자못 크다고 하겠다.

마애불이란 절벽의 바위면이나 거대한 바위면에 선각 혹은 돌을새김 기법 등으로 불상의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백제기의 것으로는 서산마애삼존불 및 태안마애삼존불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마애불은 그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적 및 조각의 유파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6세기말 7세기초는 백제불상에 있어서 양식적으로 혹은 새로운 불상의 조성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였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백제불상은 전반적으로 삼국의 공통성을 주로 보이면서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백제인은 단순한 모방만이 아닌 백제화를 이루는데도 노력을 보였는데 이는 군수리사지 출토 납석제 여래좌상에서 볼 수 있다. 이상은 원래 중국 5호16국 시대에 만들어진 「石趙建武四年銘」 금동여래좌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인데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7세기대에 이르면 이상과 같은 X자형의 옷주름, 가름하면서도 세장한 얼굴 및 신체 등은 이제 北齊末, 隋, 唐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양식적인 변천을 보이게 된다. 즉 불, 보살의 복부 부위에서 교차되던 X자형의 옷주름은 이제 사라지고 그 대신 보살상의 경우 X자형의 영락이 유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上衣는 벗은 채 裙衣만을 걸친 나신의 보살상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상호 및 신체도 가름한 형태가 아닌 둥글고도 굽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예산 대흥면 교촌리 출토 금동보살입상 그리고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입상 등에서는 통일신라시기에 유행했던 三曲姿勢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도 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새로운 양식임이 분명하겠다.

또한 7세기대를 전후하여 백제에서는 새로운 像인 捧寶珠菩薩像이 중국 梁과 의 교류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존하는 상은 대부분 금동불인데 그 양식적인 특징을 보면 보관의 관대 양쪽으로 관식이 늘어서 어깨에까지 내려오게 하며, 천의는 허리 아래에서 X자형으로 교차되게 하여 몸 양쪽으로는 몇 갈래의 지느러미 모양으로 뻗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목걸이의 경우 밀의 뽕족한 심엽형을 공통적으로 걸치고 있는데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양식은 군수리사지 출토의 금동보살입상이나 平原郡, 德山面, 元五里寺址의 이조여래입상들과도 유사하여 대체적으로 삼국시대 초기에 유행한 보살상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겠다.

3. 그림과 글씨

1) 그림

백제인들의 그림 솜씨는 이미 463년(개로왕 9)에 왜의 요청으로 왜에 건너간 因期羅我が 일본 회화의 시조로서 알려진 것이라든가, 성왕의 후손인 진귀가 왜에 건너가 화가로 활약하였던 것, 그의 후손인 해존과 음도 등이 畫師로서 일본에서 활약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밖에도 588년(위덕왕 35) 왜에 건너간 白加가 그림 뿐 아니라 서예로도 이름을 날렸고, 597년에는 위덕왕의 아들인 아좌태자가 유명한 쇼토쿠태자의 모습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쇼토쿠 태자의 모습은 섬세한 필치와 담백한 색채, 동작 묘사에 있어서 백제 회화의 수준을 잘 나타내는 걸작이다. 백제의 그림으로는 능산리나 송산리 6호분에서 보는 고분벽화가 중심이 되는데 그 예로 공주 송산리 전축분과 부여 능산리 석실분의 네 벽에 그려진 사신도와 연화문 구름문, 그리고 星宿圖가 있다.

6세기 전반기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송산리 6호분의 벽화는 벽면에 사신도의 윤곽을 따라서 진흙을 바르고, 그 위에 채색된 사신도를 그렸다. 현재는 보존 상태가 나빠서 겨우 윤곽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만, 발견당시의 모습에는 사신도의 생동감과 유려한 필치가 엿보인다.

비슷한 시기의 사례로는 본격적 회화작품은 아니지만,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두침과 족좌도 백제인의 회화 수준을 보여주는 편린이 남아 있다.

두침과 족좌에는 연꽃과 주작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이 역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부여의 능산리 고분벽화는 사벽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고, 천장에는 연화문과 비운문이 그려져 있다. 능산리 6호분과는 달리 이 고분은 석실분이어서 잘 다듬어진 석벽에 직접 그림을 그렸으며, 백호도는 고구려의 역동적인 표현기법과 대비되는 백제적인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2) 글씨

삼국 중에서도 특히 백제는 한문학이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중국 梁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講禮 박사를 초청하는 등 유교적인 학문 소양을 넓혀 나갔고, 특히 무령왕대에는 513년(무령왕 13) 오경인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에 통달한 전문박사였던 段楊爾를 왜에 파견하였다. 516년에는 오경박사 高安茂를 보내어 단양이와 교대시켰다. 그리고 554년(성왕 32)에는 오경박사 王柳貴를 왜에 파견되어 전임자인 馬丁安과 교대하여 파견하는 등 백제 출신의 학자들이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기여케할 정도로 유교적인 소양과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왕인은 전임자로서 왜에 파견되었던 阿直岐의 천거로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가지고 왜에 건너가 왜왕의 신하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가와찌 아스카 일대에 거주하면서 문서 등을 맡아 보면서 고대 일본의 문화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한편 박사 고흥이 백제의 역사책인 《서기》를 편찬한 사실도 백제의 한문학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같은 백제 한문학의 수준은 오늘에 전하고 있는 몇몇 금석문들이 실제로 증명해 준다.

백제의 발달된 조형 문화와 예술은 한편으로 백제인들의 의식이나 사상과 밀접한 상관을 가지면서 발전하였다. 그리고 그 표현과 기록의 수단으로서 문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령왕 무덤에서 나온 돌로 된 매지권은 왕과 왕비의 간략한 사적과 함께 1만문의 돈으로 무덤을 쓸 땅을 사들였다는 관념적인 토지 구입 사실을 적어 놓은 것인데, 그 글씨가 그 무렵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육조체의 예스러우면서도 매우 우아한 붓놀림으로 적혀 있어 그 시대의 한문학의 수준을 간접으로 나타낸다. 최근 금동용봉향로가 출토된 능산리 절터에서 위덕왕과 관련된 석함의 기록이 보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같이 세련된 글씨를 우리는 부여에서 발견된 사택지적의 비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택지적비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행했던 이른바 사륙병려체의 문장 양식을 지니고 있다. 사륙병려체의 글은 병문 또는 사륙문이라고도 하는데 녁자 구와 여섯자 구를 쓰는 것과 대우법을 쓰는 특징을 지닌 매우 수준 높은 것이다

사택지적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제의 한 귀족이 인간 세상의 무상함을 타식하며 종교의 신앙심으로 이를 이겨내려고 하는 내용이 담김 이 비문은 백제의 한학 수준을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백제의 민속

I. 총설

백제의 문화는 대체로 금강을 경계로 하여 남과 북의 두 지역으로 갈라지는데, 이는 자연환경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측면도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부여족(夫餘族) 출신의 백제건국 집단이 처음 자리잡은 한강유역과 옛 마한(馬韓) 문화권 지역과의 지리적 차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백제는 가장 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있었으며 또한 남북으로 길게 뻗은 해안선은 중국대륙을 향해 개방되어 있었다. 삼국 가운데 백제가 농업생산력이나 대외교역면에서 선두를 차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것이 백제문화를 꽃피우는 데 매우 큰 자산이 되었다.

그 동안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를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백제시대의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리하여 현재 비록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백제인이 남긴 문화유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헌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백제사의 경우 정치적 연대기를 중심으로 한 흥망사(興亡史) 연구는 이제 그 한계에 부딪친 느낌이 든다. 따라서 백제사의 공백은 문화사를 주축으로 하여 재구성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백제의 관혼상제(冠婚喪祭)나 세시풍속(歲時風俗)에 대한 이해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살펴볼 백제의 관혼상제(冠婚喪祭)나 세시풍속(歲時風俗)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백제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자료, 고구려(高句麗)의 풍속(백제가 기존의 토착민과 고구려의 유민의 결합으로 형성된 국가라는 점을 고려), 최근까지 전승되어 온 민속적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토한다면, 백제의 관혼상제와 세시풍속은 일정한 정도는 복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II. 백제(百濟)의 관혼상제(冠婚喪祭)

관혼상제는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 등의 사례(四禮)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곧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루는 일종의 통과의례이다.

1. 관례(冠禮)

관례의 일반적 개념은, 남자가 스무살이 되면 어른이 된다 하여 갓을 쓰게 하던 예식이다. 곧 15~20세에 관례를 하는 것이 보통의 의례이었다. 유교(儒敎)에서는 원래 스무살에 관례를 하고, 그 후에 혼례를 하는 것이나 조혼의 풍습이 성행하자, 관례와 혼례를 겸하여 하였다. 곧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 아이가 어른이 되는 예식이다. 물론 백제의 관례는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겠다고 하겠다.

백제의 관례에 대한 기록은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 않지만, 백제에서도 관모가 발달했다는 점에서 성인임을 상징하는 의례(儀禮)와 여기에 사용된 관(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모정문화(茅亭文化)인데, 이는 호남과 충청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민층의 남자성년식이다. 이 모정문화는 남성들의 성년식을 치루는 의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의례의 구체적인 방식은 전남지방의 '들돌들기'를 통하여 복원할 수 있다.

들돌들기는 현재 전라도지역의 논농사권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들돌은 평소에는 대개 마을의 입구나 정자 또는 당나무의 아래에 놓여 있는데, 풍요와 제액(除厄) 기능을 하면서 두레와 농사행사에 관련한 대동품앗이 돌이다. 들돌의 모양은 타원이나 원형이며,

무게는 보통 세 단계로 나뉘어진다. 곧 소돌, 중돌, 대돌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대돌은 삼인력(三人力)이라고 해서 이를 들면 '머리나이(首總角)'이라고 하며 일반 인부들의 두배 품삯을 받았다고 한다.

들돌들기 행사는 주로 정월에 거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아이들이 들돌을 드는 연습을 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여천과 벌교 등의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는 18세가 되면 진쇠라는 성인 품앗이꾼으로 인정하는데, 정월이 아니라 7월 칠석날 들돌 놀이를 통해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 의례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진쇠가 된 사람은 진쇠 술을 내고 온 마을사람들은 흥겨운 놀이를 진행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들돌들기는 백제의 관례를 복원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만 이 들돌들기가 고대의 주술(呪術)적인 신앙과도 일정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혼례(婚禮)

백제의 혼례에 대해서는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周書} 百濟條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곧 "아내를 취하는 의례는 중국의 풍속과 거의 흡사하다(婦娶之禮略同華俗)"이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중국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백제의 혼례제도가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겠다.

한편, 백제의 혼례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사례를 통하여서도 일정 부분은 추정할 수 있겠다. 곧 유교적인 혼례 원리와 상치되는 자유혼의 허용이나 고구려의 서옥제(婿屋制)와 같은 토착적 관행 습속은 기층민들 사이에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또한 {隋書}에는 고구려에서는 혼인이 이루어지면 남자 집에서 돼지고기와 술만을 보내며, 재물을 보내는 것은 수치로 여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옥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인다.

서옥제는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어왔던 한국의 전통 혼례의 관행으로서, 이를 백제의 혼례에 한정하여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백제적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전남지역의 경우는 다른 곳과는 달리 시가(媿家)로 돌아가는 시기가 1~3년까지의 기간이 걸렸는데, 이는 마한(馬韓)의 유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백제에서는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의 풍속이 있었는데, 이는 물론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사회에서나 가능한 제도였다. 일반 민간에서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일반적인 풍속이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도미조(都彌條)의 내용이다. 이제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도미는 백제 사람이다. 그의 신분이 비록 보잘 것 없는 백성에 속하였으나 의리에 대단히 밝았으며 그의 아내도 어여쁘고 고을 뿐만아니라 절조가 있어 당시 사람들의 칭찬

을 받았다. 개루왕이 이 말을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기를 "대체 부인의 덕은 정조로써 으뜸을 삼지만 만일 으스스하고 컴컴한 사람 없는 곳에서 달콤한 말로써 꺾이면 마음이 쏠리지 않는 여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도미는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의 아내와 같은 여자는 죽어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3. 상례(喪禮)

백제의 상례(喪禮)에 대한 기록도 {周書}의 百濟條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곧 "부모나 남편이 죽으면 삼년상을 치루게 하고 나머지 친척의 경우에는 장례가 끝나면 상복을 벗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여기서 백제의 상례는 부모나 남편의 상(喪)을 중시하여 삼년상(三年喪)을 치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었고 곡을 하였는데, 이는 유교식 상례를 따르고 있는 현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장례시에 관(棺)은 사용하였지만, 곽(槨)은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토광묘(土壙墓)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산강 유역에서는 옹관묘(甕棺墓)가 성행하였다.

백제의 묘제(墓制)는 도읍기에 따라 한성(漢城), 웅진(熊津), 사비 등 세 시기와 이전의 마한지역의 토착인 묘제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마한지역의 묘제로 주목되는 것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옹관묘(甕棺墓)이다. 현재 옹관묘가 출토되는 지역은 한강, 금강, 동진강, 영산강 등이다. 초기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사용되었지만, 후기로 오면서 성인의 신전장(伸展葬)과 이차장(二次葬)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부장유물로 볼 때 대개 백성층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성시대의 묘제는 토광묘(土壙墓) 계열과 적석총(積石塚) 계열로 구분되면, 부분적으로는 복합적인 묘제들이 발굴되고 있다. 토광묘는 석천동 3호분 동쪽에 위치한 집단 토광묘가 대표적인데, 1미터 내외의 깊이를 갖고 있다. 토광 안에는 목관을 넣은 것과 목관을 깬 것, 아무런 시설이 없이 시신만을 안치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적석총은 대개 고구려 계열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촌동에서 2기가 조사되었는데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것은 토착세력과 고구려 유민 간의 세력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공주 시대에 와서는 돌무덤은 사라지고 석실묘(石室墓)와 전축분(塼築墳)이 유행하였다. 특히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武寧王陵)은 대표적인 전축분인데, 후자는 백제의 장제(葬制)와 묘제(墓制)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유물이다. 부여지방의 묘제는 대체적으로 상자형(箱子型) 석실이 유행하였다. 능산리 고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고구려의 계통을 이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제례(祭禮)

백제의 제례에 대한 기록은 개인적이고 민간의 조상을 위한 제의보다는 국가의 시조(始祖)이거나 천지신(天地神)에 대한 제의 등에 대한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에서의 제례로서 주목되는 것은 5월의 파종제(播種祭)와 10월의 수확제(收穫祭)인데, 이에 대한 기록은 서기 3세기 중엽까지의 한족(韓族) 사회에 대한 민족지로 널리 알려진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제의는 농사를 담당하는 귀신과 관련된 것으로서 농경의례의 성격이 강한 지신제(地神制)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백제에서는 국가적인 제사의례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체제의 안정뿐 아니라 국민정신을 통합하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한족(韓族) 사회의 제의와 그리고 동명왕묘(東明王廟)와 더불어 행한 천지에 대한 제례 등이다.

먼저 마한(馬韓)은 귀신을 믿어 국읍(國邑)에는 각기 한 사람을 뽑아 천신(天神)을 주재하게 하였는데, 이를 천군(天君)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천군은 샤먼의 계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의 성격을 띠는 인물로, 초기 국가사회에 들어와 그 비중이 커진 사회의 공동의식을 주재하였던 것이다. 역시 동이전에는 삼한 여러 나라의 별읍(別邑)에 소도(蘇塗) 신앙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읍락공동체(邑落共同體)를 중심으로 하여 행해지던 부락제(部落祭)에서 기원한 것으로 짐작되며 국가권력이 성장함에 따라 제천의례(祭天儀禮)로 승화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제사의례는 동명왕묘와 더불어 천지에 대한 제사이다. 온조왕 38년 10월에 왕은 도성 남쪽에 대단(大壇)을 쌓고 천지산천에 제사지냈다고 하는데, 역대 국왕은 즉위한 이듬해 정월에 동명왕묘를 참배한 다음 2월에는 천지에 대한 제사를 행하였다. 이때 왕은 친히 희생물(주로 돼지)을 칼로 베었으며 의식 때에는 북과 피리를 사용했다. 한편 이 제사를 거행할 때 이상한 새 다섯 마리가 날아들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 천지에 대한 제사의례는 동성왕(東城王) 11년 10월 이후에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데, 한편 {周書} 백제전에 백제왕이 매년 4중(四仲)의 달에 천신과 오제(五帝)의 신을 제사했다는 기록이 보여 주목된다. 여기서 오제의 신이란 오방신(五方神)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오행사상(五行思想)에서 기원한 것이다. 이는 백제가 중국의 예속을 수용해나가는 증거로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III. 백제(百濟)의 세시풍속(歲時風俗)

세시풍속의 사전적 의미는, 주기적인 자연력에 맞추어 생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

성된 의례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세시풍속이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 되는 주기 전승의 의례적 관습적 생활 행위를 말한다고 하겠다.

천체운행에 따른 자연환경의 질서에 적응하면서 살아온 전통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자연력이 생업력이자 농사력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사력은 1년 12달을 24절기로 나누어 종사 짓는 과정과 방법을 알려주는 월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의 원리에 세시를 맞추어 농사를 짓고 그 세시를 기념하는 의례와 관행을 되풀이 해왔던 것이 세시풍속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생활사인 동시에 생활을 규제하는 전통관습으로 기층민들은 이 속에서 그들의 지혜를 습득하고 행위를 합법화하면서 전통을 창출해 나간다. 곧 세시풍속은 생활, 의식, 사상, 지혜가 반영되는 중요한 문화양식의 하나이다. 세시풍속에 관한 이러한 개념은 백제(百濟)의 세시풍속에도 일정하게는 적용된다고 하겠다.

마한 시대의 세시풍속은 농경의례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곧 5월에 씨를 뿌리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동이전(東夷傳)의 기록이 그것이다. 이것은 결국 신을 즐겁게 해줌으로써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인 속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현재의 단오(端午)와 유사한 면이 있다. 10월에 농사가 끝나고 행하는 제천의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마한시대에 5월과 10월의 제의일시가 백제라는 국가로 정비되면서 정월의 제의일로 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토착민들과 온조 등의 이주민들이 갖고 있던 제의가 일정하게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한 모습에서도 백제의 세시풍속의 특징적인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실 관련자료의 부족과 함께 앞에서 살펴본 관혼상제(冠婚喪祭)의 내용과의 명확한 경계의 불분명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백제의 세시풍속을 복원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백제에 해당되는 지역에 현재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을 통하여 백제의 세시풍속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백제의 세시풍속은 어느 정도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이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삼룡, [마한·백제문화연구의 어제와 오늘-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원광문화}, 원광대, 1975).

권태원, [백제의 사회풍속사(-)] ({백제연구} 8, 충남대, 1977)

권태원, [백제의 사회풍속사(二)] ({백제연구} 9, 충남대, 1978)

홍사준, [백제인의 문화활동一考] ({백제문화}, 공주사대, 1979)

윤무병, [백제문화의 특성] ({백제연구} 13, 충남대, 1983)

김철준, [백제사회와 그 문화] ({무녕왕릉}, 문화재관리국, 1984).

권덕원, [들돌신앙고] ({민간신앙}, 교문사, 1994)

차용걸, [백제의 제천제사와 정치체제의 변화] ({백제사의 이해}, 학연문화사, 1991)
 신형식, {백제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전봉희, [전남의 모정문화] ([건축역사연구] 6, 한국건축역사학회, 1994)
 이기동, {백제사연구} (일조각, 1996)
 김선평, [백제민속연구]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조사연구 보고서}, 충청남도, 1996).

백제의 생활

백제인들의 사회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백제 사회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지금 「삼국사기」나 「北史(북사)」, 「魏志(위지)」, 「後漢書(후한서)」 따위의 역사서에 단편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백제는 일찍부터 활발한 무역활동을 했다. 백제인의 무역은 세가지 형태로 이루어 졌는데 하나는 개인의 단위로 또 하나는 지방행정단위, 즉 군현단위로 마지막 하나는 중앙의 국가사절 단위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교류가 다양하고 빈번했던 백제인들의 성명은 두자, 석자, 녁자 등 다양하게 되었다. 그 밖에 예절을 중시한 백제인들은 관·혼·상·제례 등의 의식을 비롯하여 사회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절을 중시하였다. 그 중 인사법과 길거리 예절이 엄격했으며 관례에 해당되는 성년식은 매우 혹독한 과정을 치루게 하였다. 또 일찍이 干支(간지)를 사용했던 백제시대에는 오늘날 세시풍속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즉, 백제인들은 설날, 중추절 이외에는 伏日(복일), 臘日(납일)을 지켰다.

또 소와 말, 닭은 물론 매를 길러서 농사와 사냥에 이용했는가 하면 명절등 농한기 때에는 여러 가지 놀이와 게임등을 즐기었다.

1. 의생활

1) 백제의 복식

백제시대의 의생활은 고구려나 신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馬韓시기의 사정을 《後漢書》를 통해서 살펴보면 귀금속을 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화려한 구슬 장식을 하였다.

또한 상투를 틀고 베로 만든 도포와 짚신을 착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당시에 벌써 직조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특히 가죽옷을 그대로 입는 원시적 복식단계는 이미 끝나고 본격적인 길쌈활동과 함께 복식문화가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마한의 토착사회에서 직조와 양잠을 통한 복식문화가 어느 정도 발달한 단계에서 온조 집단이 내려옴으로써, 새로운 복식형태도 유입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夫餘條를 볼

경우 흰베로 만든 큰 소매가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고,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과 수놓은 옷, 그리고 화려한 모직옷을 입는다는 기록으로 볼 때 옷감에 다양한 치장과 繡를 놓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백제의 복식은 그 흔적을 확실시 켜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梁 職貢圖를 참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먼저 왕족의 복식을 보면 《三國史記》의 古爾王條에 나오는 기사가 참고 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자색의 옷은 왕이하 6품이상만이 입을 수 있으며, 또한 금꽃으로 장식한 오라관과 흰 가죽띠, 그리고 검정 가죽신을 신고 정사를 담당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백제의 정식복장을 엿볼 수 있다.

官人階級の 복식으로는 古爾王 27년에 령을 내려 정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옷의 색만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면을 알기는 어렵다. 그 기록을 보면 6품 이상은 자색옷을 입고 은관을 장식하며, 11품이상은 붉은 옷을, 16품이상은 푸른옷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백제가 국가적인 체제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신라에 비해 약 2세기 정도나 앞서 이러한 公服制度를 정비하였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백제문화의 선진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평민에게는 帶의 착용을 금지하고, 緋紫色을 평민의 복색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급계로 보아 官人과 平民의 차이를 두 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上衣

상의로는 두루마기(袍)와 저고리로 나누어진다. 이 두루마기는 기록상으로 소매가 넓었다고 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를 참고로 할 경우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백제는 고구려의 복식과 같다는 기록을 참고로 할 때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고리는 남녀가 공동으로 착용했다고 보는데, 삼국시대에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길며 소매는 筒袖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고리에는 선이 깃과 여밈, 袖口, 端 등에 돌려져 있었다.

3) 下衣

하의는 바지와 치마로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고구려의 복식과 같았다고 하는 《隋書》의 기록으로 볼 때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오는 복장을 참고로 할 수 밖에 없다.

먼저 梁職貢圖를 보면 大口袴를 착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唐書》에는 靑錦袴의 표현이 있다. 대구고는 바지단에 이 돌려져 있는 것으로 통은 넓지만 길이가 짧은 형태이다. 치마는 裳과 裙이 있었다고 하는데, 《北史》의 高句麗條를 보면 ‘夫人裙 加 ’ 이라고

하고 있어, 여자들만이 裾을 입고 남자는 裳을 입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온 것을 보면 여자들은 치마 뿐만 아니라, 바지도 병행해서 착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쌍영총에 나오는 세여인의 경우 주름이 치마 밑까지 길게 내려오는 긴치마를 입고 있다. 고신라 출토 여자 토우의 경우에도 주름모양의 긴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 삼국시대 여성들이 입었던 일상복으로 생각된다.

4) 裝身具

먼저 문헌에 나타나고 있는 백제의 관련기사는 『周書』, 『新唐書』, 『三國史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北史》·《梁書》·《魏書》·《南史》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사는 귀족이나 六品에 해당되는 奈率 이상의 관리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관식의 쓰임새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隋書》의 高句麗條를 보면 백제의 일반인들의 관식은 가죽으로 만든 관을 사용했다는 점과 귀족층들만이 금은으로 만든관을 사용했다고 해석된다. 특히 붉은 비단으로 관을 만들어 금은으로 장식했다는 견해는 현재 출토된 武寧王陵의 왕과 왕비의 관식으로 볼 때 그 쓰임새를 어느 정도 짐작할수 있다. 이러한 관식과 달리 羅州 潘南面 新村里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보면 透刻草花形立飾이 있어 고구려의 기록처럼 붉은 비단으로 관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과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금제뒤꽂이이나 銀簪, 耳飾, 頸飾, 釧, 指環, 帶金具, 腰佩, 飾履 등이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중에서도 귀걸이는 宋山里 8號墳과 牛禁里 1號墳, 公州 熊津洞 8號墳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팔찌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記銘팔찌가 주목되는데, 내면에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分二百州主主耳’라고 음각되어 多利라는 장인이 팔찌를 제작하여 왕비에게 받쳤다는 기록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죽관 등과 같은 방한용 관모도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고구려 관원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백제사신도에서 사신의 머리에 쓴 것도 책의 형태로 추정되고 있어 백제에서도 유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食생활

백제인의 식생활에 대한 기록도 역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溫祚王 38년에 농사짓기와 양잠을 권장했다는 기록과 또한 다루왕 6년에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기록은 쌀문화, 즉 떡문화의 정착이 가능했을 것이다. 시루 등이 忠南 禮山地方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찌서 먹는 시루떡이 식문화를 선도했을 것이다. 泗 時代의 王宮터에서 출토된 다양한 토기, 특히 사발토기 등은 현재의 식문화에서 식기의 차이만을 보여줄 뿐 음식을 해서 먹는 양상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논산 신흥리에

서 출토된 잔이나, 서천 장포리에서 출토된 손잡이바리, 청양의 분향리에서 출토된 손잡이바리 등은 백제의 차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夫餘 東南里遺蹟에서는 土器로 만든 瓶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병의 사용은 酒文化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점은 쌀문화가 이른 시기부터 정착하고, 조상과 신들에 대한 제사 등이 성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한편 백제의 음식문화는 『周書』, 『北史』, 『隋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오곡의 생산을 알 수 있으며, 채소와 잡과가 나오고 있어 기본적으로 현재의 식생활과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隋書》에 火食, 즉 불을 이용해서 먹지 않는다는 기록으로 미개한 생식문화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와 같은 불을 사용하지 않는 반찬류 등을 생각할 때 쉽게 수긍될 문제들이다. 백제인들이 火食을 했다는 증거는 전주시 전동에 출토된 토제 가마솥, 서울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청동제 냄비나, 시루 등의 형태를 고려할 때 화식을 하지 않았다고 한 기록은 부분적으로 왜곡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수저 등을 볼 때 현재의 음식을 먹는 법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외에도 다양한 토기의 형태 등을 참고로 하면 밥과 국을 구별해서 먹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3. 주생활

1) 서민주택

서민의 가옥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인 주거지에 대한 발굴성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주거기록이 『後漢書』, 『晉書』, 『隋書』, 『北史』 등의 중국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기록에 의하면 마한시대에 서민들의 주거양상은 움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거지 발굴에서 보듯이 가운데의 화덕자리를 중심으로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 주위에 배열되어 있는 형태이다. 또한 출입문이 위쪽으로 나있다는 것은 움집의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집의 주거형태는 백제시대에 들어와서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隋書》나 《北史》 등의 기사내용으로 볼 때 주거지의 선정에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산에 거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높은 산의 개념이 아니라, 구릉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 백제와 관련한 기사는 이런 내용으로 한정되지만, 고구려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三國志》의 기록은 고구려에는 큰 창고보다는 작은 창고가 집집마다 있다고 하며, 혼인을 할 때 사위를 위한 壻屋을 본채의 뒤에 세워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京이라고 불리는 창고는 각 집마다 곡식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또한 서옥이라고 하는 같은 일종의 별채를 말하는 듯한데, 본채와 따로 사위가 기거할 작은 주거공간을 새로이 짓는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고구려의 주택은 독채이기보다는 여러채가 모여 하나의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舊唐書》에 의하면 주거지의 선정은 산골짜기를 고르며, 일반 서민주택은 초가로 지붕을 잇고, 사찰과 조상묘, 그리고 왕궁과 관부 등만 기와를 얹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붕의 차이는 관직에 따른 복식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계급간의 주거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구덩이를 길게 파고 밑에 숯불로 방을 덥게 한다는 기록은 현재의 온돌의 구조와 사용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백제의 서민주택은 움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구조의 발전을 보여 온돌을 같은 주택으로까지 변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신라에 부뚜막의 존재를 알려주는 기사가 《新唐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백제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로 고구려에서 출토된 집모양토기나 화덕(운산 용호동 1호분) 등은 그 당시의 주거문화를 추정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2) 궁궐

백제의 궁궐은 기록상으로 漢城과 熊津, 그리고 泗 에 각각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백제시대의 왕들 중에서도 동성왕과 무왕, 그리고 의자왕이 궁궐의 증개축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조왕 이외에 이들의 궁궐 축조는 화려함이 극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일종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蓋鹵王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꾸민 계략에 속아 道琳이라는 중의 말을 따라 궁궐과 성을 증축하여 국고를 탕진하게 된다.

궁의 남쪽에 연못을 만들고 물길을 이십여리나 끌어와 섬을 만들고 方丈仙山에 비기었다고 한 무왕의 대목에 이르러선 연못의 치장을 통해 神仙의 世界를 재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백제의 궁궐건축은 매우 화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건축술도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귀족계급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벼루(陶硯)와 虎子, 便器 등도 궁궐건축과 관련한 가구의 일종으로 주목된다. 현재까지 호자와 변기는 부여 군수리에서 출토된 예가 유일한다.

4. 농경생활

백제지역은 광활한 평야지대를 끼고 있어 벼농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기를 바탕으로 한 농기구의 보급은 농업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가축의 이용을 통해서 보다 확대된 농토의 경작도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백제지역은 하천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관개수리 시설을 개발하는데 보다 효율적 이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김제의 벽골제를 들 수 있다.

백제의 농경생활에 대한 기록은 중국문헌과 『三國史記』에 나오고 있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삼한시대부터 농사를 시작하였으며, 오곡과 채소 등이 나온다는 것을 보아 이 당시에는 주로 밭농사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축으로 소와 돼지 닭을 길렀다는 것도 《隋書》에 나온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마한시대에 벌써 농경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시대에 들어와 다루왕 때 도전을 시작하였다는 기록과 구수왕 때 제방을 고치고 농사를 권장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에 논농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백제시기에 灌溉와 治水를 위한 공사가 자주 기록되고 있다는 점은 제방을 축조할 수 있는 토목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백제의 농사형태를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철제 농기구를 들 수 있다. 연산 지방의 유적에서는 철제공구가 출토되었고, 扶餘 扶蘇山城에서는 쇠낫(鐵鎌) 등이 출토된 바 있다.

이러한 철기시대의 철제 농구는 삼국시대에 들어와 보다 개량되고 농사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형태적인 변이도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를 이용한 보습의 사용은 팽이를 이용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농업 생산력의 확대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철제농구가 고대국가의 초기에 국가통제권 하에서 생산되고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몽촌토성이나 구의동유적에서 출토된 예에서 처럼 무기와 함께 농구가 함께 나온다는 점은 個人私物적인 의미보다는 官이나 공동관리 하에서 사용되었음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5. 어로생활

백제시대에 어로를 어떤 방식으로 하였으며,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東沃沮에서 魚·鹽·海中植物 등을 관리하여 고구려까지 나르게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일찍부터 물고기류의 포획과 해초류의 채집작업을 실시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외에도 濊에서는 바다에서 바다표범을 잡아 가죽을 사용한다는 기록도있어 근해에서의 어로작업이 활성화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어업의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魏書 東夷傳의 〈倭人傳〉에 잠수하여 어패류를 채취하는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 문신을 하여 大魚와 水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문신의 형태는 결국 주술적인 행위로써 바닷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잠수과정

에서 海獸 등으로 부터 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다.

이외에도 濟州島에서 배를 타고 왕래하며 육지와 물건을 사고 판다는 기록이 〈韓條〉에 나타나고 있어 이미 항해술이나 원시적인 선박에서 발달한 어선을 갖고 해안을 다니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백제시대에 들어와서는 《北史》에 중국의 晉·宋·齊·梁에 조공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고, 《隋書》에도 여러번 조공을 올린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北魏의 獻文帝는 백제의 조공을 흠족하게 여겨 사신을 백제사신과 함께 백제로 보냈다. 특히 그 기록은 백제에서 해산물을 보냈다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어 백제의 해안지방에서도 다양한 해산물이 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백제가 바로 서해를 건너 直路를 개척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해안을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발굴된 부안 죽막동의 제사유적은 그런 점에서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유적으로서 주목되는 것이다.

또한 東城王 11년에 '國南海村人獻合 禾'이라는 기록으로 볼 때 백제시대에도 漁村이 형성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이라고 하여 고기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농사도 병행하였다는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업보다는 농업에 치중한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6. 수렵생활

《三國史記》 《百濟本記》의 기록에 나타난 수렵행위들은 모두 왕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수렵을 금한 것은 법왕 때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불교예의 귀의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수렵에 대한 왕들의 관심은 특히 辰斯王과 東城王 대에 뚜렷한데, 진사왕은 수렵을 나가서 행궁에서 죽었을 정도이다. 이것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수렵에만 빠져 있다는 점에서 역시 왕위찬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초창기에 왕의 수렵은 주로 국가제사에 바칠 제물인 神鹿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 수렵에 빠져들어 毗流王과 阿莘王은 궁 주변에 射臺까지 만들어 사격연습을 할 지경에 이른다.

이외에도 鷹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는 점에서 매사냥이 성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특히 법왕은 매사냥에 필요한 매를 놓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귀족층들이 매사냥에 탐닉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7. 姓名(성명)

백제는 국제적인 나라라 할 만큼 성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백제인의 성명은 두자, 석자, 녁자 등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성씨가 백제에 많이 사용되었다. 흔히 중국성씨는 두자가 많고 일본성씨는 녁자가 많은 반면 한국인에게는 석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백제시대에 성씨는 놀랍게도 한·중·일 특징이 혼합된 두자·석자·녀자의 성명이 골고루 쓰여졌다.

백제 씨의 신분은 크게 왕족, 귀족과 士(사), 庶人(서인) 그리고 노비로 구분되는데 신분계급을 주로 권력 세습과 함께 형성되었다. 물론 권력 중심이 신분의 바뀔에 따라 상하가 뒤바뀌는 일도 있었다.

「北史(북사)」 백제전 기록에 보면 실제로 여염집부인이 외간남자와 통정하면 남편집 노비가 된다는 기록이 나와있다. 지배층을 대표하는 왕족과 귀족의 성명으로는 이른바 8대성족이 있었는데 「唐書(당서)」 「北史(북사)」 「通典(통전)」 백제전에 나오는 백제 8성을 보면 沙(사)·燕(연)·木(목)· (협)·解(해)·眞(진)· (백)·國(국)씨로 되어있고 오직 「翰苑(한원)」 백제전만 國氏(국씨) 대신 부여씨를 넣어 8성을 만들었다.

그것은 백제의 왕족은 주로 扶餘氏(부여씨)였기 때문이다.

「北史(북사)」 백제전과 「隨書(수서)」 백제전에 따르면 백제의 수로 사비성에는 5部(부) 25巷(향)이 있었는데 각 巷(향)마다 士(사)와 庶人(서인)이 살았다고 한다.

이 기록으로 보아 백제인은 크게 왕족, 귀족 사료 이루어진 지배층과 서인, 노비로 이루어진 피지배층으로 이분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 禮節(예절)

백제사회는 법률과 관습이 매우 엄격했으며 예절이 강조되었다. 「梁書(양서)」 백제전에 의하면 백제인들은 길을 다닐 때 팔짱을 끼지 않았으며 또 길을 가다 사람들끼리 마주치면 서로 먼저 지나가는 길을 양보하였다.

인사법도 엄격하여 웃사람을 뵈 때에는 반드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절을 하며 절을 하고 나서 발을 펴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인사법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절과 같이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치르지 않으면 안될 의례인 관·혼·상·제례에 대한 기록도 백제 시대에는 매우 단편적으로나마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北史(북사)」 백제전에 보면 백제 婚禮(혼례)에 대해 당시 중국의 혼례의식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대략 「禮記(예기)」에 소개되어있는 六禮(육례)에 의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진다. 다음으로 백제 喪禮(상례)에 대해서는 「부모와 남편이 죽으면 3년간 상복을 입는데 그 밖의 다른 친척이 죽으면 장사를 지낸뒤에 상복을 바로 벗는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보면 부모나 남편이 아닌 자식이나 부인 또는 형제들이 죽었을 때엔 상복을 벗어도 된다고 해석되는데 과연 그랬을지 의문이지만 일부 가족생활사를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제례와 관례를 통해 백제시대의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백제의 제례의식은 오히려 하늘과 땅에 대한 제사에 관한 것이다. 즉, 임금에 올리는 제례는 하늘과 땅 그리고 五帝(오제)를 대상으로 거행되었고 그 밖에 동명왕에 대해서도 거행되었다. 경기도 광주군 춘궁리에 있는 二聖山城(이선산성)에서 발견된 백제의 제사 유적이야말로 거국적으로 거행되었던 백제의 제례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관례의 기록을 살펴보면 「위지」 「후한서」 「통전」 마한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성곽을 쌓거나 궁궐을 지을 때에 등가죽을 뚫고 긴 끈을 꿰어서 3m남짓한 나무를 매달고 다니며 온종일 소리를 지르고 일하면서 고통스러운 빛을 보이지 않는 소년을 健兒(건아)라고 했다.」 이를 보면 일정한 나이가 된 소년이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는 통과의례치고는 몹시 지독했다는 생각이든다.

9. 백제인의 악기와 무용

1) 樂器(악기)

「北史(북사)」 백제전에 따르면 백제에는 鼓(고), 角(각), 空後(공후) 箏(쟁) <아쟁과 비슷한 현악기>, 箏(간) <생황 비슷한 관악기>, (호) <가로로 부는 피리>, 笛(적) <세로로 부는 피리> 등의 악기가 있었다. 이 밖에 복숭아나무 껍질로 만든 (차후)등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 공후는 「구다라고도」하여 百濟琴(백제금)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백제 의자왕이 일본에 보낸 관악기 목록을 보면 橫笛(횡적), 長笛(장적), 高麗笛(고려적) 笙(생)(생황), 簫(필울), 簫(소)(통소), 莫目(막목), 尺入(척입), 中管(중관) 등이 있는데, 불행히도 이들 악기가 관악기라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생김새나 소리를 알 수가 없다. 기록에 나타난 백제의 악기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타악기로 鼓(고)가 있고 현악기로는 (공후), (차후), 箏(쟁)등이 있으며 관악기로는 角(각), 箏(간), (호), 笛(적) 笙(필울), 莫目(막목), 長笛(장적), 高麗笛(고려적), 笙簫(생소), 尺入(척입), 中管(중관)등이 있는데 유난히 관악기 종류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것이다. 백제 악기들 가운데 고구려 피리인 高麗笛(고려적)이 있었고 당시 중국 대륙에서도 연주된 (공후), 笙(필울) 등의 악기가 있었으며 이들 관악기가 의자왕때 일본에 전해졌음을 볼 때 당시 백제 악기 구성은 매우 다양하고 이채로웠음을 알 수 있다.

2) 伎樂舞(기악무)

기록을 살펴보면 백제시대 악사와 무용수는 꽤 높은 벼슬로 우대되었다.

악사들은 8품의 벼슬시덕에서 11품인 대덕등의 벼슬을 내렸고 무용수는 자주빛의 통넙

은 소매의 도포에다 章甫冠(장보관) <儒者(유자)가 쓰는 관> 을 쓰고 가죽신을 신었다. 더욱이 백제사회가 계급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사가 8품에서 11품을 차지하고 무용수가 임금이 입었다는 자주빛 도포를 입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백제에는 기악무라고 하는 특별한 예술이 있었는데 이것은 음악과 무용 그리고 재담과 놀이를 결합한 종합 예술이었다. 기악면이라고 부르는 가면을 쓰고 연출하는 기악무는 일본의 推古天皇(추고천황) <20년에> 백제의 악사 味麻之(미마지) 등 세사람이 중국 대륙의 오나라에 배워와 일본에 전파시켰다 한다. 또한 불교의 공양극이면서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이라 해서 가면극으로 불리는 기악무는 미마지 말고도 백제의자왕때 일본에 건너간 은고에 의해 일본인들에게 전수되었다.

현존 일본에는 2백종의 기악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奈良(나랑)의 도오다이지(東大寺)와 일본 국립박물관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기악면과 그리고 다케사키의 관음사에 소장되어 있는 기악면에서 바로 백제 기악면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다케사키의 관음사에 수장되어 있는 「肥前古跡緣起(비전고적연기)」란 책에는 「천축백제국으로부터 귀면 2개를 보내왔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절의 보물고 비장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악면은 나무로 만든 가로 20cm 세로 28cm의 검정색 가면으로 두눈은 왕방울 같이 튀어나오고 코는 둥글면서도 높으며 입둘레와 이마위에는 주름살이 깊게 패어 있는 모습이 꼭 우리나라의 떡중 백정 말뚝이탈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사악한 귀신을 쫓는 의식인 기악의 사자무는 바로 봉산탈춤의 사자춤과 기악의 가루나 金剛(금강)은 산대놀이의 팔목중 침노리(완보) 및 봉산탈춤의 팔먹중과 일치하고 우리의 양주산대놀이, 봉산탈춤을 비교해보면 그 내용이 아주 유리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0. 백제의 의술

백제시대에는 일찍이 의학에 관한 학문이 발달하였고 의학제도도 정비된 상태였다. 사비시대에는 22개의 내관 소속의 樂部(악부) 관청이 설치되었고 의학과 약학이 분리되어 치료를 담당하는 의박사와 약물을 취급하는 채약사로 나뉘어졌다. 이러한 백제의술은 일본에 약사비조로 알려진 덕래에 의해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고 백제는 의학박사와 학자나 승려를 비롯해 전문기술자들은 일본에 파견하였다. 또한 백제의 의료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구다다십집방이라는 의학서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에는 약의 분량과 달이는 방법, 복용처방 등이 소개되어 있고 책이름이 <백제에서 새로 수집된 처방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발전된 의학기술이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에 보급되었기에 일본대표적 의학서인 의심방 <心方>에 소개될 정도로 일본 의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백제의 설화/전설

백제의 설화와 전설은 모두 7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백제의 인물

백제의 인물은 왕족 · 승려 · 학자 · 귀족 · 외교가 · 장군 · 예술가 · 기타 인물로 분류하여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백제시대 왕을 포함하여 역사상에 이름과 행적을 남기고 있는 210명의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2. 고고미술분야 · 문헌정보통계분야

1) 고고미술분야

고고미술분야에서는 주로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 또는 유물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자료는 유적·유물의 유형에 따라 백제의 도성, 백제의 성곽, 백제의 고분, 백제의 불교문화, 백제의 건축, 백제의 산업, 백제의 공예, 백제의 문자, 백제의 문양, 백제의 복식 등 10개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다시 이들 분야는 성격에 따라 세분되고 있는데, 백제의 도성은 한성/웅진성/사비성, 백제의 성곽은 산성/평산성/장성/평지성, 백제의 고분은 적석총/토광묘/옹관묘/석실분/전축분/화장묘/기타고분 등으로 나뉘고 있다. 그리고 백제의 불교문화는 사찰건축유적/불교공예로 구분되는데, 불교공예는 다시 석조물/불상/금속제품 등으로 세분되고 있다. 백제의 건축은 궁궐건축유적/사원건축유적/일반건축유적/원지, 백제의 산업은 농기구/어로구/상업 및 무역용구/요지/제철로/전장구, 백제의 공예는 토기공예/와전공예/금속공예/기타공예, 백제의 문자는 와전/금문/비문/목서/불상, 백제의 문양은 인물문/동·식물문/산수문/기하문/복합문, 백제의 복식은 왕족의 복식/귀족의 복식/일반인 복식/복식관련유물/복식문헌자료/기타유물 등으로 세분되고 있다.

그런데 고고미술분야는 주로 고고·미술자료에 대한 사례제시라는 측면이 강하므로 일반적인 개설은 각 유형별로 앞에서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 개설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백제의 도성

백제의 도성의 개념

기본적으로 마한에 속한 백제사에서 왕성 또는 도성의 변천에 따라 시대 구분을 할 경우, 크게 한성시대(B.C. 18~A.D457), 웅진시대(A.D475~538), 사비시대(A.D538~660)의 3시기로 나누어 진다. 그러나 그 위치에 대해선 웅진과 사비시대가 현재의 공주와 부여에 위치비정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한성시대의 경우 현 연구단계에서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확실하지 않은 실정이다.

‘都城’은 흔히 한나라의 수도 또는 그 주위를 에워싼 성곽을 의미한다. 3세기 중엽경의

한반도지역 정치사회상을 민족지적 입장에서 기술해놓은 『三國志』魏書 東夷傳에는 고구려·마한·진한·변진등 각지역의 종족집단이 성곽을 축조하였는지에 대해 서술한 대목이 있는데 그러한 그들의 관심은 아마도 국과 성곽의 깊은 관련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3세기 중엽까지는 아직 마한에 본격적인 도성은 없었고, 단지 성책 즉, 주위에 나무 울타리 등을 둘러친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2) 백제 도성의 변천

① 한성 시대 - I

백제는 시조 溫祚가 河南 慰禮城에 도읍한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 건국조:都河南慰禮城)이래 개로왕 21년(A.D. 475년) 고구려에 의한 한성의 함락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줄곧 현재의 서울 강동구 일원에 도를 두고 있었으며, 당시 도성은 "慰禮城" "河南慰禮城" "漢城"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례'에 대해서는 우리, 또는 담장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견해와, '위례'를 한강과 관련하여 郁里, 阿利, 慰禮등이 모두 한강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 그리고 백제왕의 호칭이 '於羅瑕'였던 점과 한강의 古名이 "阿利水", "郁利河"등으로 불리우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어라' '아리' '욱리' 등과 같이 "大", "王"의 뜻을 가진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한성백제 도성인 하남위례성의 구조에 관한 기사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삼국사기』「백제본기」개로왕 21년조이다. 同條에 의하면 "고구려는 장수왕이 직접 군사 3만을 이끌고 와서 백제의 왕도인 한성을 포위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때에 이르러 고구려의 對廬인 제우·채증결루·고이만년등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성을 공격하여 7일만에 함락시킨 다음 남성으로 옮겨 공격하니 성 안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왕이 도망나가매...(중략)...결박하여 아단성 아래로 끌고가 살해하였다."는 부연 설명이다. 이 기사에서 보면 백제왕은 남성에 있었음이 분명하며, 북성은 남성의 공격상 도저히 빠뜨릴 수 없는 요충이거나 남성과 인접한 곳임이 틀림없다. 한편 이와 관련된 『일본서기』의 기사에는 "백제기에 이르기를 개로왕 을묘년 겨울에 고구려의 대군이 와서 대성을 공격한지 7일 낮밤에 왕성이 함락되니 드디어 위례를 잃었으며 국왕과 태후·왕자등은 모두 적의 손에 몰살당했다고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漢城은 남·북두성의 합칭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백제본기의 남성은 왕을 비롯한 일단의 지배층이 거주하는 왕성이며, 북성은 일종의 거민성으로서 대규모의 성곽이었을 것이다.

한성백제의 도성인 하남위례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다양하며 아직 확실한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이다.

정약용에 의해 위례성과 하남위례성이 각각 서울 삼각산 동록과 광주고읍으로 비정된 이래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주장하였다.

한성 시대 - II

이후 위례성은 하북위례성으로 생각하였으며 위치는 세검정 계곡일대, 북한산성, 중량천 유역 등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하남위례성과 한성은 학자에 따라 두 지명을 한 곳으로 보는 견해와 서로 다른 곳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로 보는 입장의 위치는 춘궁리일대, 남한산 북록 등이다. 후자의 경우 하남위례성은 이성산성, 풍납리토성, 몽촌토성과 이성산성사이 등으로 보며, 한성은 춘궁리와 남한산성, 몽촌토성과 풍납리토성의 합칭 등의 견해가 있다. 또한 삼국사기 백제본기 근초고왕대의 기사 중 “移都漢山”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산의 위치를 남한산성으로 보는 입장과 이성산성으로 보는 입장, 북한산성으로 보는 입장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蛇城의 위치로는 풍납리토성과 삼성동토성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양쪽모두 확실하지 않다. 이와 같이 도성의 위치가 제각각으로 비정되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초기기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앞으로의 고고학적 연구성과에 따라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기록에 부합되며, 도성의 위치거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두 성이 바로 풍납리토성과 몽촌토성이다. 이 두성의 성격이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한성백제도성의 성격도 자연 드러나게 된다.

풍납리토성은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하며 한강에 인접한 평지성으로 서북쪽으로 한강너머 아차산성이 바로 보이며, 동쪽으로는 이성산성이 조망된다. 또한 남쪽으로 약 750m 아래로 몽촌토성이 인접해 있으며, 그 아래로 약 3km이내에 방이동과 가락동, 석촌동고분군이 있다. 기능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의 성, 半民半軍的 邑城, 蛇城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몽촌토성은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하며 남한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저산성 자연구릉의 말단부를 이용하여 만든 관축토성이다. 평면형태는 북서-남동선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이며 성의 길이는 2,285m이다. 토성의 바깥으로는 성내천이 동벽을 따라 북류하고 다시 북벽을 따라 서류하여 한강본류에 합류하고 있어 自然濠가 형성되었다. 성내부의 구조로 보아 남북·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어느정도 질서정연하게 직교식 형태를 이루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성벽 네귀퉁이 정상부의 토단에서 보면 풍납리토성과 남한산성쪽의 평야지대, 그리고 방이동·가락동·석촌동의 고분군이 한눈에 들어온다. 유물로 본 사용시기는 3세기후반에서 5세기말까지로 보이며 4세기가 최성기로 추정되고 있다.

한성 시대 - III

이와 같이 한성시대 도성은 單位城으로만 되어 있었다. 당시의 도성중 하나로 추정되는 몽촌토성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기존지형상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만을

성벽을 쌓거나 또는 삭토하는 등 가능하면 인력을 적게 들이려는 흔적이 뚜렷하다. 단 위성이 갖는 방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벽 외곽의 삼면에 해자를 開芽하고 성벽 외면에는 목책 등을 설치하였다. 이 경우에도 해자는 한강 지천인 城內川의 자연 流路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부분적으로 물길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채택하므로써 축조노력을 최소화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성내에는 王등 지배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民戶들도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에 따른 도성공간의 협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인접한 곳에 또 다른 평지성을 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풍납동 토성이 그것인데 이는 그 입지적 여건으로 보아 도성인 몽촌토성을 防戍하는 목적으로만 축조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성은 그간 '蛇城'으로 비정하는 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왕성인 몽촌토성과 더불어 한성시대의 도를 구성하는 한성의 별궁 또는 왕성의 지위를 가진 남성 즉, 몽촌토성과 더불어 한성의 북성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평지에서 위치한 성들만으로 도가 구성됨으로써 당연히 그 방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배후의 高山에 도피성을 축조하였음직 하나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조사결과만으로 보아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아마도 한강이라는 천연장애물을 방어선으로 이용한 듯 하다. 그것은 한성백제의 가상적인 樂浪, 靺鞨 즉, 濊貊, 그리고 고구려 등이 모두 한강 이북에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강 방어선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그 이남보다는 이북에 鎭城을 축조하는 것이 효율적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아차산성으로 비정되는 廣津城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강 남쪽의 도성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는 최후의 堡壘였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백제가 현재의 서울 강동구 일원에 도를 두고 있었을 때의 도성명이 '한성', 즉 대성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시기를 '漢城時代'라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② 웅진시대 - I

한성이 고구려의 장수왕에 의해 함락되고 개로왕 또한 피살되자 백제는 부득이 웅진으로 남천하여 국가를 재건하기에 이른다. 이 무렵의 도 또는 도성에 대한 명칭은 『梁書』, 『周書』, 『隋書』, 『北史』 등의 중국문헌에 "固麻城", "居拔城"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마'는 곶, 즉 웅의 漢字讀으로 보아 웅진 즉 현재의 공주를 지칭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고마'는 거발과 같이 모두 '크다'(大)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고마성' 또는 '기발성'은 '大城'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일본서기』 웅락기 21년 춘삼월초에는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천왕이 백제가 고려에게 파괴되었다는 말을 듣고 구마나리를 문주왕에게 주어 그나라를 부흥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백제가 문주왕대에 구마나리로 천도하였다는 내용의 가사가 있어, 당시 웅진을 '久摩那利'(구마나리)로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구마나리'(곰나루)등으로 불리고 있던 이 곳에 대한 『삼국사기』의 표기

는 '熊津'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 뜻이 '大城' 즉 왕성을 지칭하는 보통명사였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의 도를 '곰나루'(구마나리)로 발음하였으며 그 표기를 '웅진'으로 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웅진이 오늘날의 공주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때, 당시의 왕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적으로는 공산성을 들 수 있다.

웅진시대 - II

공산성은 조선시대에 이괄의 난 때 인조가 난을 피해 이 성에서 10일정도 머물렀던 사실에서 보듯이 이 일대의 요충지로서, 한성을 잃은 백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이 곳을 도성으로 택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최근 공산성내에서 실시된 일련의 고고학적 조사결과에서도 이 성이 백제시대 초축인 사실과 아울러 왕궁으로 비정 가능한 백제의 지상건물지 등도 드러나고 있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삼국사기』東城王22年條 - 春起臨流閣於宮東高五丈池養寄禽 諫臣抗訴不報恐有後諫者閉宮門의 내용을 보면 임류각이 궁실의 동쪽에 있었다고 하므로 임류각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다면 왕궁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 임류각의 위치추정과 관련하여 여러 선학들의 견해가 제시된 바 있는데, 그 근거는 모두 임류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流"명이 있는 瓦의 출토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流" 또는 임류각지 위치비정 역시 간단치 않으므로 그 서쪽에 있었다는 왕궁지 위치비정은 더욱 쉽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熊川水"가 불어나 왕도의 二百餘家を 漂沒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공산성 아래의 현 공주시가에는 '왕도'의 기능에 필요한 職能集團이 모여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웅진시대의 도는 긴급피난 중에 定都된 것인 만큼 천혜의 요충지인 공산성을 거점으로 한 현재의 공주시 일대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아마도 한성이 안고 있던 취약점을 염두에 둔 택지 결과일지도 모른다. 즉, 한강이라는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배후의 산성이 없기 때문에 도성은 순식간에 함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도피성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산성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웅진시대 - III

웅진시대의 왕궁지는 아직 그 위치가 분명하지 않는데, 평상시의 왕의 거소로서의 왕궁은 공산성 밖, 구체적으로는 그 바로 남쪽인 鎭南樓 아래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왕궁을 둘러싼 왕성 역시 그 위치는 물론 존재자체마저 확신을 할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고고학적 조사결과가 나온후에 좀더 명확해 질 것이다. 한편 웅진시대 都內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大通寺址는 삼국유사에 梁의 대통원년 丁未년에 양제를 위해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초축년대가 성왕4년(526년)임을 알 수 있다. 공주

사대부속중학교 동쪽 반죽동 일원의 사지에서 '대통'명이 있는 다수의 와편과 당간지수, 수조 등의 유물이 발견되어 이곳이 대통사지로 추정된다. 또한 강당지와 금당지의 기반부 일부도 확인되며 강당지 동편의 제민천 하상에는 대통교에 쓰였던 방형초석이 4개가 남아 있어 이것이 동성왕대의 웅진교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성왕대의 창건은 동성왕대 이후의 도내 정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산성은 웅진시대의 도의 요충지로서 기능은 분명하나 평상시의 왕궁도 이 성내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추정 임류각지와 왕궁지와의 관계는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평상시의 왕의 거소로서의 왕궁은 공산성 밖에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평상시 왕궁이 공산성 밖에 있었다면 웅진시대의 도는 한성시대와 그 구조를 달리하는 것이 되며, 이는 오히려 사비시대 구조와 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사비시대 - I

웅진에 도읍한지 63년만인 성왕16년(538년)에는 다시 사비로 移都하였다. 이 천도는 한성에서 웅진으로의 천도와는 달리 국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면밀한 기획하에 이루어졌다. 사비천도와 더불어 국호도 '南夫餘'로 개칭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당시의 의증이 잘 드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사비의 도는 어떻게 불리워 졌는가에 대한 문헌기록은 많지 않으나 앞서 이미 본 『周書』, 『隋書』 등의 百濟傳 내용이 참고될 수 있다. 이 兩 중국 정사서는 그 기사의 포함년대가 각각 557~581년, 589~618년으로서 모두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 해당되어 이 시기 백제의 제상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 『주서』에는 "治固麻城"으로 되어 있으나, 『隋書』에는 "其都曰居拔城"으로 되어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梁書』 백제전의 "號治城曰固麻"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固麻", 즉 웅진에서 이미 사비로 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에서 빚어진 잘못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럴 경우, "고마"는 당시의 사비도의 호명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서』의 "居拔城"은 앞의 『양서』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어서 이 역시 『양서』와 같은 이전 사서의 답습의 결과만으로 보는데에는 마땅치 않은 점도 있다. '거발성'은 '大城'의 漢子讀으로 보았으며, 『수서』의 "거발성"이 당시의 시호를 기록한 경우로 보는 것이 틀리지 않다면 사비도 역시 '大城'으로도 불렸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제시 부여여고 부근의 부소산성 南麓에서 출토된 瓦銘에 '阿尼城'이 있음을 주목하고 여기의 "아니성"은 大城 즉, 왕성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아니성'을 내성의 뜻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검토의 여지가 남아있다. 아무튼, 당시의 사비의 都는 나름대로 호명되었겠지만, 이 곳의 지명을 '泗'로 표기하였던 것은 분명한데, 이는 삼국사기에 "移都於泗 名所扶里", "重修泗 之宮", "遊燕於泗 河北浦"등의 기사들로 알 수 있다. "사비"가 천도전의 현 부여의 고유 지명인 '所

扶里'와 音似한데서 이를 천도와 더불어 雅字 표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비시대 - II

사비도성은,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한성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도시 기능상으로는 공간이 협소하여 한계가 있는 熊津都를 본격적으로 개선한 경우로서, 도피성으로서의 공간성이 가진 기능을 부소산성에 그대로 옮기고 그 南麓에 왕궁을 둠으로써 웅진도와 같은 기본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내의 공간이 확대되어 도의 도시적 기능은 웅진시대보다 훨씬 향상되었다. 한편, 확대된 도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방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상의 침입로에 해당하는 동쪽과 북쪽을 차단하기 위해 외곽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백제도성사상 처음으로 도의 외연을 郭, 즉 羅城으로 에워싼 새로운 형태의 泗 都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나성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605년(무왕4년), 사비천도 이전으로 보는 견해와 동나성은 사비천도시, 서나성은 천도후, 남나성은 백제말기 당의 침입을 대비했다고 보는 설, 동성왕 기사와 관련 501년(동성왕 23년)초축 완료 등의 설이 있다.

사비성의 공간구조에 대해서는 『주서』와 『환원』에 의하면 5부5항이 편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공남지 주변 조사시 백제수전지에서 출토된 목 『西部後巷』 명문으로 증명되었다. 이는 당시 공간을 구획하고 각부에 이름을 새긴 표석을 세워 소속을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前部』, 『上部前部自此以』 등의 명문 유물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추정왕궁지 주변에서 도로유적이 발굴되었는데 남북방향 대로는 폭이 8.9m, 동서방향의 소로가 3.9m로 되어 있으며 각각 좌우에 배수구를 만들되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은 판석을 조립하여 암거로 처리하였다. 이 남북로의 동편으로 85m 떨어진 곳에 동일 형태의 도로가 확인되었고, 북단 역시 부소산록 경계석축과 만나게 되며 이러한 도로를 도상에 옮겨 보면 동서 215m, 남북 85m의 장방형 구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비시대 - III

이러한 사비도성의 공간구조는 5부5항이라는 도시계획 구획 범위는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왕궁과 관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만 계획된 도시건설을 한 것으로 여겨지며 나머지 지역은 자연지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도성변천을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비도성의 출현은 다분히 백제의 독창적인 도성제 모방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사비도성의 도성사적 위치와 관련하여 사비도성의 앞선 시기의 도의 구조와 달리 내성과 외곽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외래 특히 중국의 도성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견해와 고구려의 평양 장안성에서 나타나는 도성제를 본받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비도성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大

通』명 인각와를 고려하여 초축연대를 대통연간(527~528)으로부터 사비천도 실현연대까지 주로 530년대로 보는 견해와 대통연간 축조 견해, 동성왕의 축성기사중 우두성가사와 수렵기사를 들어 486년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사비도성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서산성의 발굴조사 진행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한 성

서울시 송파구/강동구 일원에 있었던 한성백제(BC.18~475)때의 성으로 한성백제시기의 도읍자체의 명칭이 되기도 하며 대성 또는 왕성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풍납리 토성

몽촌토성

웅진성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었던 웅진백제(475~538)때의 성으로 웅진백제 시기의 도읍자체 명칭이 되기도 한다.

공산성

사비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지역에 있었던 사비백제(538~660) 때의 성으로 사비백제시기의 도읍자체 명칭이 되기도 한다.

부소산성

2. 백제의 성곽

백제는 도성 및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각처에 많은 수의 성곽의 축조가 이루어졌다. 초기 백제 시대의 것으로는 한강변의 풍납리토성, 몽촌토성, 그리고 광주 이성산성이 대표적이며 이후 공주는 공산성, 부여는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도성 방어체계와 연결된 여러 산성이 분포되어 있다.

풍납리토성은 한강변에 위치한 둘레 4km 규모의 초기 백제시대 주요 방어시설이다. 타원형의 평지 토성이며 토축의 높이는 약 8m, 밑면의 폭은 약 30m이다. 1966년의 발굴조사에 의하여 백제시대 사람들의 집주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둘레 2.3km의 몽촌토성은 조사 결과 토성에 설치된 목책의 유구, 그리고 토성의 외곽에 물을 끌어댄 해자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성안에서는 초기의 웅관, 토기, 어망추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철제 마구류가 출토 되었다.

5세기 후반 백제의 도읍이 금강유역으로 옮겨지고 신라, 혹은 고구려와의 복잡한 대외 관계의 전개 과정에서 백제는 많은 방어성을 축조 하였다.

금강변에 위치한 공주 공산성은 웅진도읍기의 중심성이다. 둘레 2.6km이며 원래 토축이었던 것을 후대에 석축으로 개축한 것으로 성안에서 왕궁 관련시설로 추측되는 건물터와 연못 등이 확인된 바 있다. 부여에서의 대표적 성곽으로는 부소산성과 나성을 들 수 있다. 부소산성은 그 입지가 공주 공산성과 유사한 성으로서 총 길이는 약 2,200m이고 주로 토축으로 되어 있다. 부여 나성은 사비 도성을 넓게 두른 성으로서 부소산성으로 부터 청산성을 거쳐 능산리를 거치고 다시 중정리로 이어진다, 능산리 고분 부근의 나성 조사에서는 동문의 터가 확인된 바 있다.

공주,부여 등 소성이 있었던 충남지역은 그 방비상의 필요 때문에 백제시대의 산성이 집중되어 있다. 백제의 산성은 축조방식에 있어서 주로 성의 외벽만을 구축하는 편축식 일반적이고 안쪽은 경사면을 삭토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같은 편축식의 일반화는 경제성과 입지를 고려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전투방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성곽 배치는 이웃한 산성끼리 서로 연결되는 선(線)의 배치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거점성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 산성의 점적(點的) 배치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당시 전투 상황에서의 공수 전략과 관련이 있다.

산 성

산성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리적 요충지인 산위에 축조하는 시설물로 축조방법에 따라 목책성, 토축성, 석축성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산성이 입지한 지형에 따라 테미식, 포곡식, 복합식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평산성

평산성이란 배후에 있는 산에서부터 시작된 성벽이 평지로 내려와 평지에 형성된 촌락을 넓게 포용하고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축조된 성곽을 말한다.

즉 평산성은 평지성과 산성이 합쳐져 있는 형태이다.

장 성

장성은 산줄기와 평지를 연결하여 길게 성벽을 축조한 형태를 말한다.

이는 지리적 요충지 즉 대체로 국경지역등에 하나의 선으로 길게 성벽을 축조하여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평지성

평지성이란 말그대로 평지에 축조되어 있는 성의 형태를 말한다. 평지성은 산성에

비하여 성벽축조시에 공역이 많이 드는 반면에 방어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성 내부의 공간활용이 유리하고 또한 지형적인 면에서 주변의 통치행위와 관련된 행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도시성으로 활용되고 있다.

3. 백제의 고분

백제의 고분은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분의 수량도 적지 않지만 토광묘, 옹관묘, 석실분, 전축분, 화장묘 등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한 편이다. 전체의 고분은 대체로 석축묘 계통인 적석총과 석실분 그리고 석곽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옹관묘와 토광묘 자료도 많은 것으로 미루어 백제고분은 단일 유형이 아니고 다양한 유형형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개별무덤양식을 간략히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石築墳(석실분)

적석총과 석실분은 다같이 石築墳으로 돌을 이용하여 만든묘제이다. 석실분은 묘실만을 석축으로 만들고 있으며, 매장주체부가 대부분 지하 혹은 반지하에 위치한다.

적석총은 봉토가 아닌 적석으로 그 외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적석총은 다시 기단의 유무에 따라 무기단식과 유기단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석실분은 입구의 유무와 입구의 설치형태에 따라 횡구식과 횡혈식 그리고 수혈식 석실분으로 나눌 수 있다. 횡구식은 한쪽벽면 입구전체를 개구하여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고, 출입시설이 전혀없는 것은 수혈식 석실분이다. 또한 횡혈식은 묘실출입시설이 연도와 입구로 분명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2) 甕棺墓(옹관묘)

甕을 棺으로 이용한 것을 일괄적으로 옹관묘라고 부르고 있다. 특징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이 옹관묘가 성행하고 있는 데 이들의 특징은 봉분을 거대하게 조성하고 그안에 옹관을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지역에서는 지하에 墓壙(土壙)을 파고 甕을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土壙墓(토광묘)

토광묘는 말 그대로 지하에 땅을 파고 매장주체를 안치한 무덤으로 棺또는 槨을 구성하기 위하여 목재를 사용하였는 지에 따라 木棺土壙墓, 木槨土壙墓등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땅의 성분상 목관이 잘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목관과 목곽을 구별하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4) 特殊形(특수형)

특수한 형태로 火葬墓와 塋築墳을 들수가 있다. 화장묘는 큰 범주로 볼 때 옹관묘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옹관묘 보다는 그 크기에서 작은 것을 말한다. 불교식 장법에 의해 화장한 뒤 유체를 그릇에 담아 묻은 것을 말하며,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삼국시대 묘장문화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塋築墳은 외형이나 埋葬部의 구성방식, 屍身安置 등은 횡혈식석실분과 동일한 성격을 갖추고 있다.

한강유역의 백제고분은 적석총과 석실분 그리고 봉토고분등의 유형이 있다. 이들 적석총은 고구려의 무덤과 연결되는 것으로 짐작되어 관심을 끌고 있으며 석실분은 횡혈식 석실분과 적석총 주변의 석곽묘, 그리고 수혈식 석실분도 나타나고 있다.

금강유역의 고분은 횡혈식 석실분을 그 주체로 하고 있다. 이들의 분포범위는 공주와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지역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물론 토광묘나 옹관묘등도 나타나고 있으나 금강을 경계로 북쪽에 치우쳐서 나오고 있으며 횡혈식 석실분이 넓게 산포하고 있다.

영산강유역에서는 다른지역과는 달리 성토로 대규모의 봉분을 조성하고 그안에 매장주체부로 전용옹관을 사용한 예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이들 옹관은 대부분 군집되어 특색을 이루고 있다. 또한 석실분이 같이 병행하기도 하는데 앞의 옹관묘와 지역적으로 경계를 이루면서 남아있는 특징이 있다.

백제의 고분은 이렇게 다양한 유형을 이루면서 그 유형들이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적석총과 같은 유형은 한강유역에서만 볼 수 있는 백제의 고분이며, 옹관묘는 영산강유역에서, 석실분은 전국적으로 산포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적석총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의 고구려,백제 초기에 나타나는 묘제의 하나로 구덩이를 파거나 구덩이 없이 시체를 놓고 그 위에 흙 대신 돌을 덮는 가장 원시적인 묘제이다. 돌무지무덤이라고도 한다.

토광묘

선사시대부터 쓰이던 분묘의 일종으로 지하에 구덩이(土坑)를 파고 직접 유해를 장치하는 장법(葬法)으로 널 무덤이라고 한다.

옹관묘

큰 돌을 널로 사용한 선사 및 고대의 무덤으로 돌이나 항아리등 토기를 널로 사용하는 무덤이다. 돌무덤이라고도 한다.

석실분

판상석(判狀石)이나 할석(割石)을 사용하여 널을 안치하는 방을 만든 무덤으로 돌방무덤이라고도 한다.

전축분

벽돌로 묘실(墓室)을 축조하여 만든 무덤으로 벽돌무덤이라고도 한다.

화장묘

시신을 불에 태워 장골용기(葬骨容器)에 담아 장치하는 장법(葬法)이다.

기타고분

그 외에 봉토분, 와관묘, 석축묘 등이 있다.

4. 백제의 불교문화

百濟佛教文化 I

백제는 북부여(北扶餘)에서 온 고구려의 건국자 주몽(朱蒙)의 둘째 아들 온조(溫祚)가 지금의 서울 일원에 세운 나라로 그 주체세력은 부여족 계통의 고구려 이민족으로 한성을 도읍으로 하던 침류왕(沈流王) 원년(384년), 동진(東晉)에서 온 마라난타(摩羅難陀)로부터 불교를 전해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듬해인 한성에 절을 짓고 여기에 10여 명의 승려를 머물게 하였다는 다고 하나 그 유구나 불교미술품 남아 있지 않아 당시 불교 문화의 성격을 가늠할 길이 없다. 다만 불상의 경우 똑섬 출토 금동불좌상과 같은 북위(北魏) 초기의 형식을 직접 모방한 선정인여래상(禪定印如來像)이 선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백제에서의 본격적인 대가람은 웅진시대(熊津時代) 부터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공주지역의 사찰로는 대통사지(大通寺址-서기527년)를 비롯하여 서혈사지(西穴寺址), 남혈사지(南穴寺址), 주미사지(舟尾寺址) 수원사지(水原寺址)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백제의 와당이나 서혈사명기와편이 발견된 서혈사지를 제외하고는 확정적인 근거가 없어 판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단지 무녕왕릉의 금속공예품으로 미루어 불교관계의 금속공예품 또한 웅진시기의 후반기쯤에는 활발할 제작이 이

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할 뿐인데, 이들 작품에서 보이는 참신한 조형감과 완숙한 주조기술은 중국 남조와 부단한 접촉을 통해 이루어낸 당시 백제의 수준 높은 역량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편 성왕은 국내외의 불안을 극복하고 왕권 강화를 통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 538년 다시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541년에는 양(梁)에 사신을 보내어 모시박사(毛詩博士), 열반경(涅槃經)등의 경전(經典), 공장(工匠), 서사(書師)등을 청함으로써 백제 문화를 꽃피우게 된다.

百濟佛教文化 II

이 시기에는 백제 무왕(武王)때 창건되었다고 추정되는 미륵사지(彌勒寺址)를 비롯하여 사리감의 명문에 의해 축조 연대가 567년으로 밝혀진 능산리사지(陵山里寺址), 다량의 소조불(塑造佛)과 도용(陶俑)이 발견된 정림사지(定林寺址), 금동보살상(金銅菩薩像)과 남석제선정인여래좌상(蠟石製禪定印如來坐像)이 발견된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등의 사찰들이 건립되며, 이들의 배치구조는 미륵사지(3탑3금당식)를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1탑1금당식(一塔一金堂式)의 구조를 가진다.

더불어 불교문화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석탑으로 엔타시스의 석주(石柱)와 사방에 뚫린 문의 구조, 창방(唱榜)과 평방(平枋)의 표현 등에서 목조건축의미를 계승하고 있는 미륵사지탑(彌勒寺址塔)과 정림사지 오층석탑(定林寺址 五層石塔)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석등(石燈), 석조(石槽), 석상(石像)등의 불교관계 유물들이 제작되었다.

우리 나라의 석등은 불교의 유입과 더불어 석탑과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 제작되었을 것이지만 삼국시대의 작품으로는 백제시대의 단편적인 자료만이 알려져 있다. 미륵사지 출토품으로 전하는 세점의 석등편은 현재 8각으로 된 화사석(火舍石)과 옥개(屋蓋) 뿐이지만, 원래의 장소에 하대(下臺)가 남아 있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8조의 합각(合角)만이 간략히 묘사되어 단출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화사석에도 방형의 화창(火窓)을 네면에 뚫었다. 미륵사지에 남아 있는 하대부분은 8엽의 복연판(伏蓮瓣)과 그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어 원래 원형의 간주석(間柱石)이 끼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百濟佛教文化 III

이러한 석등양식은 통일신라 석등으로 계승되어 팔각의 옥개와 화사석, 원통형의 간주, 복판의 하대석으로 구성되는 우리 나라 석등의 전형적인 양식을 이루게 되었다. 석조로는 부여읍 동남리(東南里)의 석조, 관북리(官北里) 출토의 방형 및 발우형(鉢盂形) 석조, 가탑리(佳塔里) 출토의 연화형 석조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 가운데 동남리의 것은 자연석의 굴곡을 그대로 살린 가장 고식의 석조이며, 가탑리의 것은 그 외형을 연꽃이 피어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조각한 수작이다. 또한 관북리의 것은 외면을 매끄럽

게 다듬어 몇줄의 종선(縱線)을 부조(浮彫)하였고, 구연(口緣)의 한쪽을 과 물이 빠져나가는 출수구(出水口)로 만들었다.

금속공예의 경우 여러 사지에서 청동탑(靑銅塔), 금동풍탁(金銅風鐸), 향로개(香爐蓋)등이 제작되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능산리에서 출토된 금동용봉래산향로(金銅龍鳳萊山香爐)이다. 이 향로는 당시 백제인이 지녔던 수준 높은 종교사상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백제의 불교조각의 경우는 이시기가 되면 선정인여래좌상과 함께 6세기 동아시아의 금동불 형식을 주도하였던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의 활발한 조성이 이루어 지게 된다. 6세기 후반에는 독립된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과 봉보주관음보살상(捧寶珠觀音菩薩像)이 크게 유행하여 삼국말 통일신라 초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봉보주보살상은 관음상이 확립되기 전에 백제인들이 독창적으로 창안했던 도상이다.

백제 조각은 상의 재료면에서 고구려, 신라와는 달리 납석제(蠟石製) 불상이 크게 유행하는 특이성을 보인다. 예산사면석불(禮山四面石佛)과 같은 대형석불과 군수리 절터에서 나온 소형의 선정인여래좌상 등 6세기 중엽부터 활발히 조성되기 시작한 납석제 석불은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그 전통이 이어질 정도로 널리 선호된 백제적인 조상재료였다. 반면 화강암석불은 6세기 말 내지는 7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등장한다.

百濟佛教文化 VI

중국, 한국, 일본의 동양 삼국 가운데 화강암으로 불상을 조각하고 탑을 세운 나라는 우리 나라 뿐이다.

화강암 석불은 표면처리 방법이나 조각 도구가 전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특히 백제에서 창안하고 그 기법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태안마애삼존불(泰安磨崖三尊佛)과 서산마애삼존불(瑞山磨崖三尊佛)이다. 우리 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또 불교수용 시기에 비해 비교적 늦게 석불이 등장하는 것은 화강암을 불상의 재료로 선택하고 그 기법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일 것이다. 백제에서 창안된 화강암 석불의 전통은 통일신라시대로 이어져 석굴암 조각으로 승화된다.

6세기대의 백제 불상은 7세기로 접어들면서 뚜렷한 조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공주 의당(公州 義堂)과 경북 선산(慶北 善山)에서 출토된 관음보살상(觀音菩薩像)등에서 보듯이 종래의 정신성을 강조하던 엄격한 정면관(正面觀)으로 부터 늘씬한 신체와 율동적인 포즈를 통한 외형적인 형태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형태미는 오히려 백제 멸망 직전인 7세기 중엽의 불상에서 더욱 두드러져 백제 문화의 완숙한 경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성립된 백제 문화는 538년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이후, 557년에는 경론(經論), 율사(律師), 예사(禮師), 비구니(比丘尼), 축금사(祝禁師), 조불공(造佛工), 조사공(造寺工)등 6인을 보내고, 588년에 노반박사(盤博士), 와박사(瓦博士), 화공(畵工) 등을

보내어 아스카데라(飛鳥寺)가 건립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백제는 북위, 고구려의 영향과 그리고 남조의 영향 등 다방면에서 복합적으로 문화를 수용·소화하여 일본에까지 전파하였던 것이다.

사찰건축유적

백제의 사찰건축은 탑/중문/금당/강당이 남북자오선상에 배치된 일탑일금당형식이 대부분이며 금강사지/정림사지 군수리사지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불교공예

· 석조물 : 백제의 석조공예품의 예로서는 미륵사탑, 정림사지탑 2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주 무녕왕릉 출토품인 왕과 왕비의 매지석과 석수, 공주/부여박물관 소장의 반죽동 대통사지 석조, 중동석조, 부여 석조 등이 있다.

· 불 상 : 넓은 의미로는 불교의 예배대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불교의 조각을 통칭하는 것으로, 수없이 많은 종류의 대상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상으로 불격에 따라 불(佛), 보살(菩薩), 명왕(明王), 천(天), 나한(羅漢) 등이 있다.

· 금속제품 : 백제시대의 불교금속 공예품으로서 현존하고 있는 것은 백제금동대향로를 비롯하여 부소산 출토의 청동개, 탑 심초석 아래에서 발견된 풍탁설, 금성산 출토의 청동탑편, 미륵사지 출토의 금동풍탁 등이 있다.

5. 백제의 건축

백제의 건축 I

남북조시대 최대의 사찰인 영령사(永寧寺. 北魏 元年, AD. 516)는 《낙양가람기(洛伽藍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방형의 4면에 각각 문을 배치하고 중앙에 탑을 비롯한 주요 건물을 세웠다고 한다. 중국에 도입된 가람의 배치 방식은 중앙에 사리를 안치한탑을 세우고 4면에 문을 세운 인도의 탑원에서 기본적인 수법을 채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보다 약간 앞서서 불교를 도입한 고구려의 청암리 사지는 초기 가람배치 형태에 대해 상당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청암리 사지는 중앙에 팔각형의 건물지가 있고 윗쪽에 큰 건물지와 좌우측에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 전면에는 두 개의 작은 건물지가 나란히 놓여 있다. 대체로 중앙에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지를 중심으로 사방에 각각의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청암리 사지의 건물 배치는 기본적으로 초기 가람배치의

유형으로 추정되고 있는 탑원과 전주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어서 주목된다. 웅진시대에 백제의 불사건축은 성왕 5년(538)에 창건된 대통사가 있다. 대통사는 공주시 반죽동의 평지에 조영된 가람으로서 정확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당과 강당, 탑으로 추정되는 일부 건물지들이 노출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서혈사지는 공주시 웅진동의 망월산 중턱에 있다. 사지의 전모는 알 수 없으며 동서 9.5M, 남북 5.85M 규모의 건물지가 발굴되었다. 북쪽 인근에서 승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석굴이 발견되었다. 석굴의 내부는 50여 평 정도이며 불상을 안치했던 시설로 보이는 좌대가 북편에 남아 있다. 굴 앞에는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는 대지가 펼쳐져 있다. 중국의 경우 남북조시대에 석굴사원은 운강 석굴(雲崗 石窟), 돈황 막고굴(敦煌 莫高窟), 감숙 맥적산석굴(甘肅 麥積山石窟), 낙양 용문석굴(洛陽 龍門石窟), 하북 향당산석굴(河北 響堂山石窟) 등이 남아 있다. 석굴사원은 불탑을 조성하여 불사리를 안치하였던 탑원굴에서 주로 유래되어 불상을 안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건축 II

이 시기에는 백제 무왕(武王)때 창건되었다고 추정되는 미륵사지(彌勒寺址)를 비롯하여 사리감의 명문에 의해 축조 연대가 567년으로 밝혀진 능산리사지(陵山里寺址), 다량의 소조불(塑造佛)과 도용(陶俑)이 발견된 정림사지(定林寺址), 금동보살상(金銅菩薩像)과 남석제선정인여래좌상(蠟石製禪定印如來坐像)이 발견된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등의 사찰들이 건립되며, 이들의 배치구조는 미륵사지(3탑3금당식)를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1탑1금당식(一塔一金堂式)의 구조를 가진다.

더불어 불교문화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석탑으로 엔타시스의 석주(石柱)와 사방에 뚫린 문의 구조, 창방(唱榜)과 평방(平枋)의 표현 등에서 목조건축의미를 계승하고 있는 미륵사지탑(彌勒寺址塔)과 정림사지 오층석탑(定林寺址 五層石塔)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석등(石燈), 석조(石槽), 석상(石像)등의 불교관계 유물들이 제작되었다.

우리 나라의 석등은 불교의 유입과 더불어 석탑과 거의 비슷한 시기부터 제작되었을 것이지만 삼국시대의 작품으로는 백제시대의 단편적인 자료만이 알려져 있다. 미륵사지 출토품으로 전하는 세점의 석등편은 현재 8각으로 된 화사석(火舍石)과 옥개(屋蓋) 뿐이지만, 원래의 장소에 하대(下臺)가 남아 있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8조의 합각(合角)만이 간략히 묘사되어 단출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화사석에도 방형의 화창(火窓)을 네면에 뚫었다. 미륵사지에 남아 있는 하대부분은 8엽의 복연판(伏蓮瓣)과 그 중앙에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어 원래 원형의 간주석(間柱石)이 끼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건축 III

백제가 교류를 하였던 남조에는 제(齊)의 영명(永明) 7년(489)에 석굴사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모습을 보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아쉽다. 서혈사지 근처에 있는 백제의 석굴사원은 사리탑대신 불상을 안치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서혈사지 석굴은 석굴내에 불상을 안치하는 석굴사원의 수법을 백제가 남조로부터 도입하였을 것이라는 당시 상황의 일면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공주의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고분은 전을 사용한 백제건축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사례로 남아 있다. 이들 고분은 볼트구조로 축조되어 있으며 백제의 건축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무령왕릉의 전에서 보이는 문양은 연화문과 그물무늬등으로 나타나 있다. 벽체는 전을 4, 5단의 길이쌓기와 한 장 또는 두 장의 옆세워쌓기를 교대로 조적해서 축조하였다. 천장은 양쪽의 측벽 상단에서 연속되는 반원통형 볼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에서도 남북조시대의 묘는 전곽(槨)이 널리 사용되었다. 남조의 제릉(帝陵)은 주로 타원형 평면으로 된 돔(Dome)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능에 사용된 전의 문양은 연화문과 그물무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남조의 대묘와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보이는 전의 문양은 매우 비슷한 형태를 나타나 있다.

백제는 성왕대에 이르러 사비로 천도하면서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문화적으로도 성숙되었다. 사비시대에 백제는 이미 웅진시대에 대륙으로부터 수입한 상당한 건축기술을 바탕으로 특유의 우아하고 화려한 건축문화를 전개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당시 백제건축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대체로 화려한 모습에 대해 사치스럽다는 표현으로 비판적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부소산성은 백제가 사비시대에 이르러서는 나성을 둘러 도성의 방어체제를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소산성의 북쪽은 백마강에 의한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다. 동쪽과 서쪽으로는 나성이 연결되어 남쪽 평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다. 산성 내에서는 군창터와 병영건물터, 남문터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백제의 건축 IV

사비기대의 궁궐지는 부여 박물관 앞 건물지와 익산의 왕궁리 등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사비시대에 백제의 궁궐에 대해 특별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무왕 31년(630)에 궁궐의 중수가 있었거 의자왕 15년(655)에 태자궁을 수축하였는데 왕궁 남쪽에 매우 화려한 망해정을 세웠다고 한다. 무왕조에는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파고 20리 밖에서 물을 끌어 대었으며, 사방의 호안에 버드나무를 심고 가운데에 섬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데 당시에 궁궐의 연못을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가 사비시대를 진행하기 직전 중국에서는 수문제가 남북조시대를 마감하고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 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었다. 수문제는 낙양을 동도(東都)로 정하고 남으로 항주(杭州)와 북으로

축군(逐郡)에 이르는 대규모의 운하를 건설하였다. 또한 수양제는 당시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안제교(安濟橋, 605-617년)를 건설하였다. 대외적으로 수나라는 고구려와 중국 북부지역을 놓고 세력을 다투던 적대 관계에 있었으므로 후방의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백제와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간의 교류관계로 보아 백제는 남북조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대륙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삼국사기의 무왕조에 있는 궁궐의 연못 조성과 관련된 토목 사업에 대한 기록은 당시에 백제의 궁궐 건축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비시대의 궁궐은 그 전모를 아직 알 수 없으나 수당대(隨唐代)의 궁궐제도를 살펴보면 서 가상해 보고자 한다. 수당대의 궁궐은 《주례(周禮)》의 삼조(三朝)제도를 채택하여 축선에 맞추어 대조함원전(大朝含元殿), 일조선정전(日朝宣政殿), 상조자진전(常朝紫宸殿)을 세우고 좌우, 전후로 여러 전각을 참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궁궐은 아니지만 미륵사지는 무왕에 의해 창건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설화를 남기고 있다. 삼원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가람의 규모와 계획수법은 궁궐건축에서 기초하였던 《주례(周禮)》의 삼조(三朝)제도를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미륵사지의 창건은 무왕이 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볼 때 궁궐에 준하는 사찰을 건립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백제의 건축 V

동서로 삼전(三殿)을 배치하는 제도는 남북조시대의 동위(東魏)에서 나타나 있다. 동위의 궁궐은 삼조제도에 따라 동서로 삼전을 배치하였다가 정전(政殿)을 중심으로 2조의 궁전을 종축상에 배치하게 되었다. 종축상에 전을 배치하게된 궁궐제도는 동위에서 수·당으로 계승되었다고 한다.

사비시대에 불교 사원은 정림사지와 금강사지,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 미륵사지 등에서 자취를 볼 수 있다. 정림사지에서는 탑을 중심으로 하는 축선상에 문과 주요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다. 문의 좌우에서 시작되는 회랑지가 맨 뒷편에 있는 건물지까지 연결되어 일곽을 이루고 있다. 금강사지도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 탑과 불전을 주축으로 하는 문지에서 연장 되어 있는 회랑이 뒷편의 건물지로 연결되어 일곽을 이루고 있다. 축선을 이루고 있는 탑과 주요 전각의 배치방식은 초기 청암리 사지에서 보이는 탑을 중심으로 사방에 전각을 배치하는 방식에서 발전된 수법으로 보인다.

군수리사지에서는 문과 탑을 잇는 축선상에 주요 전각이 배치되어 있다. 후방의 가장 큰 건물지 좌우에 나란히 하나씩의 건물지가 나타나 있으므로 세 개의 전각이 병렬로 배치된 예를 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동남리사지에서도 후방에 세 개의 건물지가 나란히 병렬로 배치되어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삼전(三殿)의 횡열 배치방식은 미륵사지에서 전형적인 삼원을 형성하는 발전된 수법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나라 백제시대의 건축은 목조건물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 우아한 모습으로 상상되는 실체를 볼 수 없어서 아쉽게 한다. 그러나 동양에서 최초로 목조건축을 석조로 변안하여 축조한 미륵사지 서탑은 또한 백제시대의 우리 나라 석조 건축문화가 매우 뛰어난 수준에 이르러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륵사지 서탑 이후에 나타나 있는 정림사지 석탑은 더욱 세련된 조형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당시 백제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한 상상을 무한하게 한다. 백제의 건축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남아 있는 유구를 고찰해 보았을 때 당시 동양의 건축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실감나게 한다.

궁궐건축유적

궁궐은 생활시설인 궁과 방어시설인 궐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으로, 한 나라의 지배자인 왕이 살며 나라를 다스리던 곳이다.

백제의 궁궐이 있던 곳은, 한성시대에는 몽촌토성에, 웅진시대에는 공주 공산성 일대에, 사비시대에는 부여 부소산 관북리 일대에 자리 잡았다.

이곳은 현재에도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원건축유적

백제의 사원건축은 탑/중문/금당/강당이 남북자오선상에 배치된 일탑일금당형식이 대부분이며 금강사지/정림사지 군수리사지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일반건축유적

일반건축은 수혈주거지와 지상건물로 나눌 수 있다.

수혈주거지는 움집이라고도 하는데, 즉 땅을 파고 주거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크게 바라 지붕이 위치하는 움집과 지표면 위로 일정정도의 벽체가 마련된 반움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수혈주거지는 대략 기원후가 되면 지상가옥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 상이, 원삼국시대까지 대부분 수혈주거임, 수혈에서 지상식으로 이행되는 과도기)

원 지

원지란 연못자리를 말한다.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원지는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왕권이 안정되면서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초목과 짐승을 키우며 원지생활에 심취한 것으로

6. 백제의 산업

1) 백제요지

백제시대의 요지(窯址)는 크게 기와요지와 토기요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또한 기와와 토기를 동시에 구웠던 요지도 있다. 백제시대 요지는 크게 아궁이, 연소실, 소성실, 굴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궁이는 불을 지피는 입구이다. 연소실은 아궁이를 통하여 빨갛게 지펴지는 곳이다. 소성실은 구워야 할 물건을 채는 곳으로 가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굴뚝은 연기를 뽑아내기 위한 구조물이다. 백제시대 요지는 앞에서 설명한 네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구조가 간략화되는 경우도 많이 찾아 볼수 있다.

백제시대의 요지는 지하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은 다시 등요(登窯)와 평요(平窯)로 나누어볼 수 있다. 등요는 언덕의 경사면에 터널형으로 길게 설치한 것으로 평면형태가 부정형의 삼각형 또는 독사뱀머리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비하여 평요는 평평한 곳에 만들어진 것으로 평면형태가 사각형이다. 백제의 요지가 입지한 곳은 대부분 가마를 마련할 수 있는 경사면과 쉽게 굴을 팔 수 있는 풍화암반이 있는 곳이 많이 채택되었다. 백제시대 와요지(瓦窯址)는 대부분 지하의 굴을 뚫어 만든 굴가마이다. 가마는 굴을 파들어가 우선 기본 모양을 만든 후 아궁이부분은 긴 돌을 사용하여 입구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때는 주변의 기와, 전돌, 작은 돌이나 진흙을 함께 사용하여 보완하기도 하였다.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와요지는 주로 부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여 정암리유적, 동남리유적, 신리유적, 쌍북리유적, 현북리유적, 소룡골유적, 정동리유적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청양 왕진리유적, 보령 천방유적 등이 있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정암리유적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2기의 와요지를 조사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10기를 조사하여 모두 12기가 정식으로 조사되었다. 12기의 와요지중 11기가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출토유물로는 다양한 무늬가 있는 평기와 와 와당(瓦當), 전돌등이 있으며 벼루나 토기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정암리요지가 순수하게 기와만 구웠던 것이 아니라 토기도 같이 구웠던 와도겸업용(瓦陶兼業用)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토기요지(土器窯址)는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진천 산수리·삼룡리유적, 해남 군곡리유적, 승주 대곡리유적, 평택 현화리유적, 광주 신창동유적, 아산 운곡리유적, 익산 신흥리유적, 부여 송곡리유적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진천 산수리·삼룡리유적만이 순수하게 토기요지로서 발견된 것이고 나머지유적들은 주거지나 조개더미를 발굴할 때 발견된 것이다.

진천 산수리·삼룡리유적은 원삼국초기부터 A.D.4세기경까지의 토기요지로 모두 19기

가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서 원삼국시대 토기요지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지역의 토기요지는 모두 미호천변에 위치한 야산의 경사면에 입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구조상의 특징으로는 아궁이를 꼽을 수 있다. 이 유적의 아궁이는 대부분 생토면을 수직으로 깊숙히 파고 설치하였기 때문에 연소되는 면이 지하에 깊숙히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굴뚝은 가마뒷면에 따로 빼서 설치하지 않고 연소실 뒷부분의 천장을 뚫고 설치하였다. 산수리·삼릉리유적의 토기요지들은 크기가 대형과 소형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형가마는 모두 지하식이고, 소형가마는 모두 반지하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토기제작 용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구조적 변천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되는 타날문토기의 유형은 원삼국초기부터 말기이후까지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시기가 늦을수록 연질토기보다는 경질토기의 비율이 높아지고 토기의 기형이 전형적인 백제토기의 기형에 가깝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백제농기구

백제는 기후가 온난하고 지리적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과 같은 큰 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농경에 적합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선사시대에는 생산도구가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력의 증가에는 일정정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원 전후부터 남한지역에 철기문화가 널리 보급되어 농업생산에서 철제농기구의 사용이 점차 활발해지고, 종류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철제농기구의 사용은 그 이전보다 농업생산력은 급격히 증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철제농기구의 광범위한 보급은 농업생산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제농기구의 사용량이 A.D. 4~6세기에 이르면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철제농기구로는 철부(鐵斧), 철도자(鐵刀子), 철제낫, 따비날, 가래날, 쇠스랑, 쇠삽날등을 들 수 있다. 철부는 크게 주조철부(鑄造鐵斧)와 판상철부(板狀鐵斧)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조철부는 팽이형 도끼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기존의 목제 팽이를 철제로 전환시켜 폭이 좁은 형태로 발전시킨 경작용 농구이다. 철부중 주목을 끄는 것은 판상철부이다. 판상철부는 긴사다리꼴 모양으로 아래 날쪽이 약간 퍼진 단조의 납작한 철판형태이다. 일반 도끼에 비해 아주 커서 대부분 길이가 25cm가 넘는 초대형이다.

철도자(鐵刀子)는 철로 만든 작은 손칼이다. 이것은 적은 양의 철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이면서도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분묘 유적은 물론 생활유적에서도 거의 빠짐없이 발견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던 도구였다. 특히 중남부 지역의 생활유적들에서 곡물수확구인 반월형돌칼이 사라지고 이에 상응할만큼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철제낫(鐵鎌)은 철도자를 대신하여 논·밭농사에 널리 사용되던 수확기구이다. 낫은 4세기 이후 날모양과 각도가 다양해지는데, 수확할 때에 그루터기를 뿌리째 베어낼 수

있어 작업효율을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노동력을 절감시킬수 있었다.

말굽형 따비날은 목제 따비의 날끝을, 그리고 철제 가래날은 가래의 날끝을 U자형 철판으로 보강한 갈이기구이다. 이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땅이나 도랑을 파거나, 제방을 쌓거나, 또는 논농사의 농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백제지역에서는 충북 증원 하천리 주거지에서 원삼국시대의 것이 출토된 바 있으며, A.D.4세기 이후의 것으로는 서울 석촌동 3호분 동쪽 고분군과 구의동,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남원 세전리 등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쇠삽날은 삼형으로 흙에 맞춰 끼우고 밭을 가는데 사용하는 쟁기보습을 말한다. 대개 날 가장자리에 5~7cm 폭의 V자형의 철판을 끼운 것이다. 이것은 나무 몸체를 끼우는 좁은 홈이 있어 상당히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단조제품으로 독특한 제작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쇠삽날은 우경(牛耕)을 가능하게 하였다.

철제농기구와 함께 백제시대에는 많은 목제농기구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는 무안 양장리유적, 광주 신창동유적, 부여 궁남지유적등을 들 수 있다. 이 유적들은 모두 저습지나 연못유적으로 목제가 보존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창동유적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목제농기구가 출토된 소택지의 존재가 알려진 곳이다. 이 유적의 소택지에서는 각종 토기류와 함께 다양한 목제유물과 벼씨 및 탄화미를 비롯한 곡물자료가 발견되었다. 목제로 된 농기구로는 쟁이와 쟁이자루, 낫자루등이 출토되었다.

무안 양장리유적은 A.D.4~5세기경의 농경관련 수로와 수로시설이 남아 있는 유적이다. 이 수로에서 많은 양의 목제품과 백제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목제농기구로는 가래, 가래날, 낫자루, 쟁이, 고무래등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양의 목제품이 출토되기는 했으나 이미 상당부분 파손되거나 일부만 남아 있는 것이 많아서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철제농구에 비해 목제농구는 저습지처럼 환원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매우 적다. 따라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따른다.

3) 백제의 상업 및 무역용구

백제시대에 사용되었던 상업 및 무역용구는 중국과의 교역, 일본과의 교역, 삼국간의 교역을 통해서 발생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교적 많은 자료가 남아 있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생긴 무역품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백제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과 굴곡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을 지닌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서해를 마주하였고 남쪽으로는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다. 이러한 지형조건은 해안을 따라 교역 활동을 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백제가 이 지역에 국가를 세우기 이전부터 이미 중국 산둥반도와 일본 열도 및 유구지역을 잇는 해상교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로는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중국

화폐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제작된 도씨검(桃氏劍)과 명도전(明刀錢), 한(漢)의 오수전(五銖錢)등이다. 이들 중 도씨검은 익산 신룡리 금마면과 완주 상림리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특히 완주 상림리에서는 26점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한성시대(漢城時代)의 백제는 중국과 공식적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근초고왕부터 웅진 천도전까지인 372~475년 동안 진(晉)·송(宋)·북위(北魏)등 여러국가와 모두 29회의 국제관계를 맺은 것을 문헌으로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백제와 중국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증거로 각종 중국물품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많은 양이 발견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3세기말~5세기후반에 이르는 남조의 유물로서, 한성시대의 중국 동진·송과의 빈번했던 대중관계(對中關係)를 반영하는 주요 교역품으로 볼수 있다.

유물이 출토된 곳은 서울 몽촌토성, 강원도 원성 법천리, 서울 석촌동 고분군, 전북 부안 죽막동, 익산 태봉사, 부여 부소산성, 익산 입점리등을 들수 있다. 몽촌토성에서는 서진회유전문도자편(西晉灰釉錢文陶瓷片), 육조청자편(六朝靑磁片)을 비롯한 각종 중국청자편이 출토되었다. 특히 중국청자는 몽촌토성을 비롯해 부안 죽막동제사유적, 부여 부소산성, 익산 입점리고분등에서 모두 출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중국과 백제와의 활발한 교류관계를 알 수 있다.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밀린 백제는 476년(문주왕 2년)에 웅진(熊津)으로 천도하여 한성을 기반으로 하였던 정치 경제 문화의 상당수를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웅진 시대 초기에는 교역도 그 영향으로 상당히 침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도후 중국 남조의 송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역활동에 다시 재개되었다. 그리하여 무녕왕릉대가 되어서는 양나라와 활발한 교역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증거는 무녕왕릉발굴에서 발견된 여러 중국물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무녕왕릉에서는 청자육이호(靑磁六耳壺), 청자사이병(靑磁四耳瓶), 청자등잔(靑磁燈盞)등이 출토되었다.

백제는 538년(성왕 16년)에 웅진에서 사비(泗)로 또다시 천도하였다. 그런데 천도이후 중국과의 교류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 때는 중국에 조공과 사신을 보낸 것 외에도 중국의 여러분야 전문가와 서적을 중국에 요청하는 등 더욱더 선진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 사비시대의 대중교역에 가장 적극적인 왕은 무왕(武王)이었다. 이 당시 중국에서 생산되어 사비시대 백제로 교역된 물품은 황취, 금갑, 각종 청자류, 개원통보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유물이 발견된 유적은 부여의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유적, 부여 관북리유적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부소산성에서는 중국청자편과 흑갈유양이관(黑褐釉兩耳罐), 개원통보등이 발견되었다. 익산 왕궁리유적에서는 청자편이 출토되었는데, 이 청자편은 중국의 하북성(河北省) 경현(景縣)의 북조(北朝) 후기(6세기 후반)의 고묘(古墓)에서 출토된 적이 있는 청자 연변문육이병(蓮弁文六耳瓶)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백제는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으며 그러한 증거들로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중국물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역의 증거는 수입된 물품뿐만 아니라 백제가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이나, 교역품을 실어 나르기 위한 여러 운송수단들이 폭넓은 의미에서의 무역용구에 포함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운송수단인 배가 출토된 예가 빈약하여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다. 또한 일본과의 교역과 삼국과의 교역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백제시대의 전장구

백제시대의 전장구는 크게 무기(武器)와 마구(馬具)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 무기는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공격용무기, 방어용무기, 전투용무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중 방어용무기인 투구·갑옷·방패등은 유물이 없어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공격용무기(攻擊用武器)는 다시 원거리무기(遠距離武器)와 근거리무기(近距離武器)로 나누어진다. 원거리무기로는 활과 화살을 들 수 있다. 화살중 화살대·깃등은 썩어서 없어지고 철로 만든 활촉만 남아 있다. 활촉은 3~4세기에는 무경식역자촉(無莖式逆刺鏃), 착두형촉(鑿頭形鏃), 골촉형촉 등이 유행하다 전차 유경식(有莖式)으로 바뀌고 5세기 후반에는 장경촉(長頸鏃)으로 변화한다. 활촉은 여러 유적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다.

근거리무기는 대도(大刀)와 검(劍)으로 구분된다. 대도는 손잡이의 장식에 따라 환두대도(環頭大刀)와 무환두대도(無環頭大刀)로 나눌 수 있다. 천안 청당동, 논산 모촌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검은 세장한 검신에 단면은 능형이다. 병부(柄部)는 긴 편으로 단면이 장방형이며 손잡이와 결합하기 위한 구멍이 2개 뚫려 있다. 투검창은 크게 창머리와 창대 그리고 물미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창머리만이 남아있을 뿐이며 창대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울 석촌동고분, 몽촌토성, 부소산성등에서 출토되었다.

마구(馬具)는 제어구(制御具), 기승구(騎乘具), 장식구(裝飾具), 보호구(保護具)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어구로는 재갈이 있다. 재갈은 말을 원하는대로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그 형태에 따라 표비, 판비, 환판비, 원환비로 나뉜다. 몽촌토성과 논산 모촌리고분에서 출토된 것이 대표적이다.

기승구로는 안장과 등자(子)가 있다. 등자는 말에 올라탈 때 디디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말에 올라 앉았을 때 발을 올려 놓고 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연산 표정리고분에서는 둥근 모양의 등자가 출토되었다.

장식구로는 각종 길이의 가죽띠에 부착되는 행엽(杏葉)과 운주(雲珠), 마령(馬鈴)이 있다. 행엽은 말의 각종 길이에 있는 가죽띠 끝에 드리워 장식하는 것이며, 운주는 말의 길이에 사용되는 금구로 주로 가죽띠가 교차되는 곳에 부착한다. 마령은 종과 함께 가슴길리와 고들개 등에 매달아 소리를 내게하여 말의 걸음을 재촉하게 한 것이며 또 장신구의 역할도 하였다. 행엽은 청주 신봉동고분군, 익산 입점리고분, 부안 죽막동등에서 출토되었다.

말을 보호하는 무장구로는 마갑(馬甲)과 마주(馬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백제지역에서 발견된 예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 없다.

농기구

농기구는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는 도구를 지칭하며 철제농기구와 목재농기구로 구분된다. 철제 농기구로는 주조철부, 판상철부, 철도자, 철제낫, 따비, 쇠팡이, 쇠삽날, 쇠스랑등이 있으며 목재농기구는 팽이, 낫, 가래, 고무래 등이 있다.

목재 농기구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광주 신창동유적, 무안 양장리유적등을 들 수 있다.

어로구

어업생활에서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어업방법에 있어 좀더 효과적으로 그 결과를 얻기위해 필요한 도구이다.

유물로는 어망추, 낚시바늘, 작살 등이 있다.

상업 및 무역 용구

교역품은 고대에 백제와 중국, 왜와의 사이에 주고 받던 물품으로 중국청자, 오수전, 명도전등이 있다.

무역용구로는 진도 벽파리의 배를 들 수 있다.

요 지

요지란 기와나 토기등을 구웠던 시설물을 말한다.

요지는 크게 기와요지와 토기요지로 나눌 수 있으며, 아궁이/연소실/소성실/굴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지의 종류로는 등요와 평요로 나누어지며 다시 지하식/반지하식/지상식으로 구분된다.

제철로

제철의 재료인 철광석 또는 사철을 목탄이나 석탄과 함께 넣어 철을 뽑아내는 것으로 제련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철을 생산하는 화로이다.

전장구

· 무기류 : 전쟁시 사용되거나 권력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유물로 도(刀), 화살촉, 철모, 철준, 철도자 등이 있다.

· 마구류 : 말을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의 총칭으로 재갈, 재갈멈치, 고삐이음쇠,

굴레, 고뻬(함), 안장, 안장갈래, 다래, 고들개, 밧걸이(등자), 방울(마령), 말띠드리개(행엽) 등이 있다.

· 기 타

7. 백제의 공예

백제금속공예의 개관

백제는 기원 전후 무렵에 고구려와 같은 갈래인 부여족의 유이민(流移民)이 한강 유역에 내려와 마한지역을 통합하면서 고대국가로 성립을 이루게 된 나라이다. 따라서 백제문화는 근본적으로 고구려의 영향과 그 전통 속에서 전개되어 나간 것이 분명하지만 지리적인 조건, 즉 한강 유역의 비옥한 자연환경과 중국의 남조 쪽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들임으로써 점차 고구려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백제 특유의 온유하고도 세련된 성격으로 변모되어 갔다.

한편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 내륙지역은 예산의 남서리, 아산 남성리 그리고 부여 연화리 등의 청동기에서 볼 수 있는 정교한 주조기술로 미루어 가히 이 지역이 한국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음을 실감케 한다. 따라서 백제의 금속공예가 1971년 발견된 무녕왕릉 출토품과 같은 놀라운 수준의 금속공예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진보적인 청동기 문화를 소유하였던 마한지역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한대 및 고구려의 발달된 금속공예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백제의 금속공예술은 더욱 찬란하게 꽃피우게 된 것이라 짐작된다.

이러한 백제는 4세기 말경부터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진정책과 왕위를 둘러싼 정권다툼으로 인하여 국가기반이 흔들리면서 문주왕대(文周王代)인 475년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에도 백제는 웅진에서 다시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는데 웅진으로 천도하기까지를 한성시대(4세기초~475년)라 하며 웅진 천도부터 사비 천도까지를 웅진시대(475~538년), 그리고 부여로 도읍을 옮긴 538년부터 백제멸망까지의 123년간을 사비시대로 부르고 있다. 이와같이 백제는 삼국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그 수도를 세 번이나 옮겨 조영함에 따라 백제문화를 시기적으로 구분하기가 용이하며 고고학적, 미술사적인 유물, 유적의 시대편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성시대에는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과 같은 곳에서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백제 금속공예품으로서의 본격적인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듯 하다.

[웅진시대]

웅진시대는 전촉분과 같은 진보적인 중국의 문화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물론 이전 시기에도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고구려와의 대외적인 관계의 악화에 따른 교역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해상루트를 통한 남조(南朝)의 양(梁) 등과 직접적인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따라서 백제문화 전반에 걸쳐 남조문화의 영향을 농후하게 반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특히 금속 공예에 있어서도 진보적인 제작기술을 지닌 다양한 작품의 출현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녕왕릉 출토의 금속공예품들이다.

무녕왕릉의 금속공예품은 비록 왕실의 한정된 부장품이라는 자료로서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놀라우리만치 섬세하고도 정교한 제작술이나 참신한 조형감각 등은 신라, 고구려와는 다른 백제적인 특질을 보여주고 있다.

무녕왕릉의 부장품은 그 상한이 525년으로 비정되어 거의 웅진시대 말기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동진에서 시작되어 남조와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백제문화는 무령왕의 재임기를 전후하여 그 성숙기를 맞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무녕왕릉의 금속 공예품에서는 그러한 남조문화의 화려하고 완숙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사비시대]

사비시대는 538년 지역적으로 협소한 웅진을 떠나 사비로 천도하여 멸망할 때까지의 123년 동안 부여지방을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를 말한다. 특히 불교문화가 보다 융성해지면서 많은 사찰과 함께 탑, 불상 등의 불교조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불교 관련 금속공예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이외 청동탑편과 금동풍탁 및 풍탁설, 길고 연뢰형 장식이 첨가된 청동 숟가락 등은 삼국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유물이며 이러한 것들이 백제금속공예의 독창성 및 선구자적 위치 등에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금동제 봉황장식에서 보이는 세련된 외형과 참신한 의장, 청동제 귀면 장식과 같은 유물에 나타난 과감한 생략과 강조를 적절히 조화시킨 해학적인 표현은 백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미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백제의 금속공예는 초기인 한성시대에는 시기적으로 그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다가 웅진시대에는 비약적으로 발달된 금속공예 수준을 무녕왕릉을 통해 알 수 있었고 사비시대에는 부드럽고 세련된 백제 예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찬란하게 꽃 피워졌음을 현재 남아 있는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제시대의 금속공예품에는 금속제를 이용한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와 각종 조형물들의 외면을 치장하기 위한 장식구들, 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었던 생활용품, 공양을 위한 향로, 그리고 주로 목관에 사용되었던 공구 등이 있다. 백제시대 왕실 금속공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무녕왕릉의 출토 예에서 백제의 고도로 발달된 장신구와 장식구

들의 예를 볼 수 있으며 충청과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고분군에서 철정과 관고리와 같은 공구류를 살필 수 있다. 90년대 고고학계의 최고 발견품 가운데 하나로 꼽힐 수 있는 능산리 출토 용봉향로도 백제의 금속공예 문화의 정점을 말해주는 유품으로 들지 않을 수 없다.

백제의 금속공예품 가운데 장신구는 뛰어난 세련미를 발하는데, 그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1) 관식

금속공예품 가운데 관식과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들은 왕이나 지배계층의 부장품 속에서 고도의 기술을 발휘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장품으로 묘주 신분의 고하를 가늠하는 일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금속공예 최고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관식은 옛 문헌인 『唐書』백제조(百濟條)의 기록과 꼭 부합되는 자료이다. 『唐書』의 백제조(百濟條)에서 "왕은 오라관(烏羅冠)에 금화위식(金花爲飾)"이라 하였는데 이는 검은 비단으로 된 관에 금꽃을 장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新唐書』에 의하면 "왕은 소매가 큰 자포(紫袍)에 푸른 비단 바지를 입고 흰 가죽띠에 검은 가죽신을 신고 검은 천으로 된 관에 금꽃을 장식하고 군신(郡臣)들은 붉은 옷을 입고 관에 은꽃을 장식하며"라 하였는데 이는 『新唐書』 이외 대부분의 기록들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당시 백제인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부여 하황리에서 출토된 관식이나 부여 옥곡리에서 출토된 관식과 같은 것이 위와 같은 문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하겠다.

2) 이식(耳飾)

백제의 이식제작에 있어 고구려의 영향, 신라영향, 가야영향 등 당시 상당한 교류가 있었음을 출토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 백제의 이식 즉 귀걸이의 특징을 들자면 주환은 세환의 가는 고리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주환 또는 연결고리에 수하식을 연결하는 기법으로 금사를 감아 내린 뒤 고은 기법은 사용한 것이 있다. 또한 영락장식이나 누금세공기법의 적용이 적으며 끝장식의 대부분이 심엽형 또는 엽형 장식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 가는 고리로만 되어 수하식이 없는 소환(素環)식의 이식은 백제지역 고분에서 가장 빈번히 출토되는 유품이다.

3) 경식(頸飾)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7절, 9절의 경식과 같은 각각의 금봉을 연결시킨 제작방식은 그 금봉의 연결방식이나 중앙 육각형과 양단의 원형, 중앙의 굽음과 양끝의 가늘음 등 독특한 형태이다. 각각의 금봉의 끝을 늘여 금사로 하여 결구한 다음 꼬리를 감아 처리한 기법은 경식의 수하식을 주환이나 연결고리에 연계시키는 기법과 통하는 것으로 백제

적인 특징으로 부각시켜도 좋을 듯 하다.

4) 천(鈎)

무녕왕릉에서 발견된 명문이 있는 팔찌, 은봉 2개와 금봉 2개의 양끝을 서로 걸어 꼬은 4절식의 팔찌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매우 독특한 형태이다. "庚子年..."의 명문이 들어있는 팔찌는 패용자, 제작시기, 제작자 등이 뚜렷하며 조각수법도 뛰어난 유 일품으로 삼국시대 어느 나라 보다도 뛰어난 기술과 장인정신을 보여 준다.

5) 과대 및 요패

『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 제2 古爾王條에서는 복식제도를 정하였는데 "6품이상은 자색옷을 입고 관에 은으로 만든 꽃장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11품 이상은 짙은 붉은 색의 비색, 16품 이상은 청색옷을 입고, 8품 이상은 검정색띠를 사용하였다." 라는 기록 등이 보이는 바 백제 역시 고구려와 같이 紫帶, 帶, 赤帶, 靑帶, 黃帶, 白帶 등의 띠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나 현재 확실한 유물이 없어 그 형태나 양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추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은제과대의 대소과판(大小 板) 뒷면의 자녹색은 옛기록과 일치되는 점으로 보인다.

이상 백제의 금속공예품 가운데 장신구들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백제의 금속공예품은 비단 장신구에서만 예술성을 찾을 수 있는 결코 아니다. 백제인들이 실생활에 사용하였던 혹은 의식과 의례에 사용하였던 생활용품에서도 백제적인 우아함과 세련미 넘치는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무녕왕릉출토 동탁은잔에서 보이는 회화적 양식 기법으로 처리된 우아한 문양은 백제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며 또한 능산리 출토 용봉향로의 경우 그 탁월한 조형기법은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 출토 향로 중 가장 우수한 조형미를 자랑하면서 백제의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게끔 한다. 백제의 금속공예는 부드럽고 세련된 미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으며 고도로 발달한 기술로써 무녕왕릉의 각종 부장품들과 용봉향로와 같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작품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토기공예

- 고분유적 : 왕릉이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일괄하여 고분유적이라 한다.
- 생활유적 : 일상생활과 관련된 유적으로 집터, 조개더미가 대표적이다.
- 관방유적 : 국방에 관련된 유적을 의미하는데 군사유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터, 군영(軍營), 연무장(練武場)등이 있는데 성터에는 궁성, 나성, 산성, 장성, 읍성등이 있다.
- 기타유적 : 출토지가 불분명하거나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기관에 소장된 유물,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등을 일괄하여 기타유적이라한다.

와전공예

- 평기와 : 평기와에는 지붕의 기왓등을 형성하는 수키와와 기왓골을 형성하는 암키와가 있다. 이는 눈과 빗물에 대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와이다.
- 막새기와 : 막새는 지붕의 추녀 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와로 수키와 끝에 원형의 드림새가 부착된 수막새와 암키와 끝에 장방형의 드림새를 부착한 암막새로 구분되고 있다.
- 전 : 전에는 분묘를 축조하기 위한 묘전(墓傳)과 건물내외의 바닥이나 묘단에 부설되는 부전(敷傳), 그리고 건물의 벽면을 쌓아 올리는 벽전(壁傳)등이 있다.
- 장식기와 : 장식기와에는 용마루의 양쪽 끝에 높게 장식된 치미(尾) 각 마루 끝에 벽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귀면기와 서까래의 부식을 방지하고 이의 치장을 위한 서까래기와 등이 있다.

금속공예

- 장신구 : 몸에 직접 치장하는 용구를 가리키며, 관식, 귀걸이, 팔찌, 교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생활용품 : 청동제 다리미, 솥 등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것을 가리킨다.
- 장묘구 : 사자(死者)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가리킨다.
- 공구 : 목관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던 관정(棺釘)이나 망치 등을 가리킨다.
- 장식용구 : 금·은제의 작은 영락(목걸이) 장식과 같은 직물이나 가죽 등의 치장을 위한 것 혹은 건축물 등의 치장을 위한 것을 말한다.
- 기타금속공예 : 상기의 설명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여기에 포함시킨다.

기타공예

- 석제 : 공예중 재질이 돌로된 것으로 초석, 숫돌, 지석, 거두집, 방추차, 석기 등이 있다.
- 토제 : 공예중 재질이 흙인 것으로 어망추, 방추차, 가락바퀴, 토제품 등이 있다.
- 유리 : 공예중 재질이 유리인 것으로 구슬, 다면옥 등이 있다.
- 옥 : 공예중 재질이 옥인 것으로 구슬, 관옥, 소옥 마노제옥, 곡옥 환옥 등이 있다.
- 도제 : 공예중 재질은 흙이며 유약을 발라 구운 것으로 도자기류가 이에 속한다.
- 목제 : 공예중 재질이 나무인 것으로 목기, 두침, 목간, 바구니, 목제품, 목교 등이 있다.
- 기타공예 : 재질이 곡물이나 조개껍데기등으로 된 것으로 곡물, 씨앗, 구각(조개껍데기), 골석제, 은제옥, 금속제옥 등이 있다.

8. 백제의 문자

와 전

기와나 벽돌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인각와와 명문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인각와는 고구려나 고신라의 기와에서는 거의 문자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삼국 중 백제만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금 문

금문은 금속재료를 사용한 것 중 불상을 제외한 것을 대상으로하며 남아있는 유물로는 칠지도, 무령왕비 명문있는 팔찌, 부소산성 출토 금동제 투조장식 등이 있는데 글씨체는 주로 해서체로 새겨져있다.

비 문

돌에 새겨진 문자를 비명이라하며 묘지명이나 비문, 탑에 새겨진 비문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속하는 유물로는 무령왕릉 지석, 흑치상지 묘지명, 흑치준 묘지명, 부여 용 묘지명, 정림사지 5층석탑 비문 등이 있다.

목 서

목서란 먹을 이용하여 어떤 대상물에 쓰는 것을 말하는데 출토된 유물이 몇점 되지 않아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출토된 유물로는 궁남지 출토목간, 왕궁지 출토목간, 무령왕비두침 등이 있다.

불 상

보통 불상의 광배 뒷면에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글씨체는 해서체가 주를 이룬다. 내용은 대부분 가족의 현세에서의 평안과 사후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내용으로 당시대 백제인들의 불교관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출토된 유물로는 궁남지 출토목간, 왕궁지 출토목간, 무령왕비두침 등이 있다.

9. 백제의 문양

백제문양사 개관

문양은 그림으로 표현되는 문자라고 할 수 있다. 문자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전

에 인간은 그림으로써 자신의 언어를 표현하였고, 이후 천지만물의 모습에서 본따와 문자가 탄생되게 된 것이다. 어쩌면 문양은 문자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민족에 따라, 그 나라만의 고유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문양이 형성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은 대부분이 중국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색을 나타내는 문양을 재창조하게 된다.

문양은 단일문양에서 시작된다. 이 단일문양이 반복되면서 다시 연속되는 문양으로 응용되며, 또한 하나의 문양과 또 하나의 문양이 만나서 복합적인 문양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대상물에 이용될 때 균형, 조화, 비례, 대비, 반복 등의 조형 요소가 고려되어 다시 그것이 강조되기도 하고, 변화되면서 소재와 형태에 따라서 다른 특색을 보이게 된다. 또한 대상물에 있어서 문양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문양이나 바탕문양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백제의 문양은 백제미술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조형적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백제 문양은 단순히 사물만을 표현한 것에서 시작하여 저마다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각 미술의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 즉, 일반 생활용구라 할 수 있는 토기나 수저, 건축부재인 수막새나 암막새, 전돌, 금속공예에 해당하는 금관이나 귀걸이, 불교 미술에서 흔히 제작된 금동불상이나 석조불상들과 부처의 빛을 나타내는 광배 등 다양한 기능과 용도에 맞게 문양은 표현되었다. 이러한 문양은 같은 연화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건축부재인 수막새에 나타난 모습과 종교적 숭배심에서 제작된 부처의 두광에 나타난 모습이 서로 다르게 연출되게 된다. 이것이 문양을 보는 재미이다. 문양은 사실상 그 기물의 용도, 재질, 시문하는 도구에 따라 다른 효과를 지니게 되며 이를 어떻게 표현하였는가에 따라서도 다른 느낌이 나게 되는 것이다. 백제문양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힘들다. 그것은 각 문양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기물의 용도나 재질 등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그 문양이 또 어떤 문양과 함께 묘사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이 문양의 일반적인 특징인 동시에 백제문양의 특징이기도 하겠다. 한편, 백제문양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연화문수막새에 보이는 둥글게 부풀어오른 꽃잎의 부드러운 곡선미, 서산마애삼존불상에서 보이는 선들의 유연한 흐름과 둥글둥글한 조형감각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무녕왕릉 금속공예 출토 품들은 예리하고 정제된 감각 또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백제문양은 문양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인 부드러움과 날카로움, 유연한 곡선미와 정제된 직선미, 과감한 생략과 강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人物文

人物文에는 인물의 全身像을 문양으로 나타낸 人物文과 인물의 얼굴만 표현한 人面文, 불교적 소재인 飛天文, 어린아이의 모습을 문양화한 童子文, 귀신의 형상을 나타낸 鬼文, 도교적 소재인 神仙文 등이 포함된다. 귀문은 벽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방울이나

건축부재인 수막새, 전돌, 문고리, 금동향로의 뚜껑 등에 주로 묘사되었으며, 비천문은 광배 속에서 부처의 세계를 장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동자문은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유리제 동자상처럼 장신구에 뺨뺨머리에 간략히 처리된 얼굴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선문은 특히 백제금동용봉향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긴 도복을 입고 지팡이를 앞에 쥐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고요한 仙境을 산책하는 신선이나 낚시질하는 신선, 음악을 연주하는 奏樂仙人 등 그야말로 다채롭다. 이렇듯 다양한 기물에 묘사된 인물문은 각 기물이 지니는 재질과 용도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2) 動・植物文

動物文에는 鳳凰文, 龍文, 朱雀文, 虎文, 獅子文, 魚文, 龜文, 鳥文, 鷄文, 蛙文 등이 있으며, 植物文에는 蓮花文, 樹葉文, 忍冬文, 唐草文, 忍冬唐草文, 草文, 花文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사신에 속하는 鳳凰文, 龍文, 朱雀文, 虎文은 능산리고분처럼 고분의 벽화에 주로 표현되는데, 사신은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동물로 墓主를 보호하는 길상벽사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문양은 그 자체로 수막새나 頭枕, 銅器 등에 다른 문양들과 함께 묘사되기도 한다. 그 밖에 사자문은 주로 삼존불상에 마련된 대좌에서 웅크린 채 부처를 향해 앉아 있는 자세로 묘사되기도 하며, 蛙文은 허리띠 장식문양이나 토기에 이용되기도 한다. 그 밖에 조문은 새의 깃털을 연상시키는 치미에 활용되며 특히 선계에 속하는 신조로서 금동용봉향로에 날라가거나 춤을 추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식물문에서 가장 많이 묘사되는 문양은 연화문이다. 백제의 연화문은 불교의 영향과 관련되는데,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가 곧 연화로 상징되고, 나아가 부처님이나 진리 내지는 불교 그 자체의 상징으로까지 의미가 확대되어 불상의 광배나 대좌, 그 밖의 불교적 조형물 등에 장엄하게 된 것이다. 연꽃을 본딴 연화문은 꽃잎과 씨앗들이 있는 子房까지 묘사하면서 꽃잎의 두께나 길이, 꽃잎장식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는 수막새에도 많이 이용되었다. 또한 날라갈 듯 표현된 비운문이나 인동당초문과 함께 묘사되어 보다 장식적인 묘미를 살리기도 한다. 그 밖에 수엽문이나 화문은 단일문양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다른 문양들과 함께 복합문양으로 주로 묘사되는데, 금속공예에 속하는 귀걸이나 영락장식, 건축부재인 마루끝기와, 생활용품인 수저, 토기 등 다양한 용도의 기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山水文

山水文에는 雲文, 日文, 月文, 山岳文, 山景文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山岳文은 주로 산만을 두드러지게 묘사한 문양을 말하고, 山景文은 산 속에 여러 가지 경치를 모두 담아

놓은 문양을 지칭한다.

산경문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부여 군수리사지에서 출토된 산경문전으로 여기에는 仙岳을 상징하는 문양으로서 구름이 조형되기도 하며,

4) 幾何文

幾何文에는 기본적으로 線文과 點文이 있으며, 여기에서 더욱 다양하게 변화시킨 縱線文, 橫線文, 斜線文, 格子文, 魚骨文, 稜形文, 三角形文, 圓文, 四角形文, 同心圓文, 波狀文, 鋸齒文, 點烈文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기하문으로 연주문, 화염문등까지 포함시켜 보았다. 점과 선은 문양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것이지만 가장 흔하게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사시대의 토기, 암각화, 청동기문양에 선을 굵거나 점을 찍어 문양을 나타내어 왔지만 보다 발전하여 사선문을 만들거나 격자문을 만들기도 하며, 점열문을 연속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점열문의 경우는 특히 하나의 문양에 장식적인 처리로서 자주 이용되어왔다.

기하문은 주문양으로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보조문양으로 주로 활용되었고, 토기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면서 단순하게 하나의 문양만 나타내거나 다른 문양과 함께 서로 반복되거나 굵기를 조절함으로써 변화를 주고 있다. 그 밖에 물결의 모양을 본딴 파상문이나 톱니모양의 거치문, 동글동글한 구슬을 연결시켜놓은 듯한 연주문, 불꽃의 문양을 나타낸 화염문 등은 토기, 수막새, 귀걸이, 허리띠장식, 삼존불상의 광배 등에 다른 문양들과 함께 어우러지기도 한다.

5) 複合文

복합문은 각 문양이 어느 정도 대등한 비중으로 합쳐진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식물문에 속하는 연화문과 동물문에 속하는 봉황문이 함께 표현되었을 때나 기하문인 파상문과 역시 기하문인 삼각형문이 같이 묘사되었을 경우 복합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그릇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양들이 적절하게 혼합되면서 표현되었을 때에는 복합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인물문

人物文에는 인물의 全身像을 문양으로 나타낸 人物文과 인물의 얼굴만 표현한 人面文, 불교적 소재인 飛天文, 어린아이의 모습을 문양화한 童子文, 귀신의 형상을 나타낸 鬼文, 도교적 소재인 神仙文 등이 포함된다.

동/식물문

動物文에는 鳳凰文, 龍文, 朱雀文, 虎文, 獅子文, 魚文, 龜文, 鳥文, 鷄文, 蛙文 등이 있으며, 植物文에는 蓮花文, 樹葉文, 忍冬文, 唐草文, 忍冬唐草文, 草文, 花文 등을 대표

적으로 들 수 있다.

산수문

山水文에는 雲文, 日文, 月文, 山岳文, 山景文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山岳文은 주로 산만을 두드러지게 묘사한 문양을 말하고, 山景文은 산 속에 여러 가지 경치를 모두 담아놓은 문양을 지칭한다.

기하문

幾何文에는 기본적으로 線文과 點文이 있으며, 여기에서 더욱 다양하게 변화시킨 縱線文, 橫線文, 斜線文, 格子文, 魚骨文, 稜形文, 三角形文, 圓文, 四角形文, 同心圓文, 波狀文, 鋸齒文, 點烈文 등이 대표적이다.

복합문

複合文은 각 문양이 어느 정도 대등한 비중으로 합쳐진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植物文에 속하는 蓮花文과 動物文에 속하는 鳳凰文이 함께 표현되었을 때나 幾何文인 波狀文과 역시 幾何文인 三角形文이 같이 묘사되었을 경우 복합문에 포함시킬

10. 백제의 복식

개 관

백제의 국가 형성은 부여계 고구려 유이민에 의해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유이민이 백제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백제지역의 토착인들은 양잠(養蠶)을 할 줄 알고 삼베와 저포(紵布)를 짚으며 포의(布衣)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이들은 의복을 중시하고 왕을 조알(朝謁)할 때에는 남의 옷을 빌려서라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백제 지역에 유이민들이 이주하였을 때 유이민과 토착민의 복식 차이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문헌자료에 나와있다. 문헌 자료에는 부여·고구려와 백제의 의복이 같거나 거의 같다는 기사가 있어 백제 지역으로 이주한 유이민들의 복식은 다소 변형되었겠지만 그 기본형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 복식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260년 고이왕(古爾王) 27년에 이루어진 복식관제의 제정일 것이다. 왕과 관인을 관(冠)·의대(衣帶)·의색(衣色)으로 품계(品階)에 따른 차등을 두었으며 서민의 경우 자의(紫衣)와 비의(緋衣)의 착용을 금하기도 하였다. 백제의 국가 형성기에는 대륙문화(大陸文化)와의 교류가 활발하여 남조(南朝)를 위시하여 여러 국가의 선진적인 정치사상과 문화를 흡수하였다. 복식관제의 제정은 삼국 중 가장 이

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다 우수한 복식문화의 도입이 신속하였던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백제인이 기술적으로 옷감의 제조나 염색, 장신구 제작이 상당 수준이었음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 자신이 선진문물로서 자부하는 옷감이나 직조 방법 등을 일본에 전파하였던 기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우수한 백제의 복식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백제인의 전체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료로는 양 직공도(梁職貢圖)가 유일하다. 다행히 무령왕릉(武寧王陵)을 위시하여 백제인의 의생활을 단편적이거나 보여주는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있는데, 직물은 재질의 특성상 남아있지 않지만 금속 장신구를 비롯한 출토 유물들은 화려했던 백제복식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토 유물 가운데는 백제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유물이나 갑옷편, 조각상 등이 있어 백제 복식을 단편적으로나마 추정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백제복식이 고구려와 같다는 기록을 근거로하여 고구려 벽화의 복식 자료가 백제 복식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백제의 정치 불안기나 멸망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유민들이 이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유물에 남아있는 복식의 자료도 참고로 할 수 있다.

1) 백제의 복식 구조

(1) 삼국 시대 복식의 기본 구성

성 우리 민족 고유복식의 기본형은 유(襦 :저고리), 고(袴 :바지), 상(裳 :치마), 포(袍 :두루마기)를 중심으로하여 여기에 관모(冠帽), 대(帶), 화(靴) 또는 이(履)가 첨가된 것으로 북방 호복(胡服)계통의 의복에 속하는것이다. 호복계이란 한족(漢族)이 아닌 북방유목민족의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그 공통된 생활 양식인 기마 수렵생활에 편리한 복식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호복의 특징은 좁은 소매를 가진 저고리와 끝이 좁은 바지, 그리고 저고리의 여밈이 좌입형(左 型)이라는 것이다. 호복은 우리나라 복식의 초기 양식이며 중국복식을 받아들여 외래 복식을 수입하면서 고유복식과 외래복식과의 이중구조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외래 복식의 수입은 지배 계급에서 그 정치논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하여진것으로 서민계급은 전통의 호복을 그 고유성으로 잘 유지하여 중국에 까지 역수출 할 정도였다.

(2) 머리모양

백제인의 머리모양에 관하여 중국문헌에는 여자의 경우 편발(編髮)을 뒤로 늘어뜨리는데 출가하면 양쪽으로 나누어 머리 위에 둥글게 튼다고 하였다. 이 머리 형태는 상투(高)식으로 머리를 모아 머리 윗부분에 얹어 놓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머리를 모

아 뒷부분에 두는 형태의 머리로 결혼한 여자들이 즐겨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물 자료로는 방격규구신수문경(方格規矩神獸文鏡)에 상투를 쓴 남자의 모습이 묘사되어 남자의 경우 높이 들어올리는 상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림사지(定林寺址) 도용(陶俑)에 양상투(雙)를 한 상(像)이 있고 룡관(龍冠)을 쓴 상의 경우 뒷머리가 양 갈래로 나뉘어진 모습이 남아있다. 이 외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다양한 머리형태들이 묘사되어있는데 이 또한 백제인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관모(冠帽:모자)

관모는 머리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의미에 장식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가 첨가되어 어느 복식보다도 시대에 따른 변천과 사회 정치적 의도가 크게 반영되어 발달되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관모의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문헌자료에 의거해서 변(弁:고깔모), 책(), 절풍(折風), 조우관(鳥羽冠), 입(笠), 나관(羅冠), 건(巾), 건곡(巾) 금관(金冠)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관모는 현재 양 직공도의 백제사신이 쓰고 있는 관모와 부여박물관 소장의 변형모(弁形帽)를 쓰고있는 인면문토기편(人面文土器片)에서 백제의 관모형태를 볼 수 있다. 고분출토품 중에서 완형으로 출토된 신촌리(新寸里) 출토 금동관이 있으며 관장식(冠飾)으로 무령왕릉(武寧王陵) 출토의 왕과 왕비 금제관식(金製冠飾)이 각 2점이 한쌍으로 출토되었다. 또한 은제 관식(銀製冠飾)이 출토되어 문헌자료에서 왕은 금화식(金華飾)으로 관인은 은화식(銀華飾)으로 장식하였다는 기록을 뒷바침하고 있다.

(4) 상의

상의는 위에 입는 옷으로서 포(袍:두루마기)와 유(: 저고리)를 들 수 있다. 포는 방한용과 의례용으로 그 쓰임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옷고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를 매었다. 깃은 꽃고 섶은 겹치도록 옷을 여몄으며(直領校任式), 선()을 저고리와 마찬가지로 깃·도련·소매끝에 드리웠다. 또한 기록이나 벽화에서 보면 귀족층은 소매가 넓은 형태(廣袖)이고 서민층은 소매가 좁은 형태(窄袖)였다.

유는 삼국이 거의 같은 형태로 착용하였는데 기본형은 남녀가 서로 비슷하고 선()에서 차이가 있었다.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것이고 깃은 모두 곧은 깃(直領)이다. 깃은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목에 둘러대어 앞으로 여미어 주는 부분으로 곧은 직선의 깃인 직령(直領)과 둥근형태로 그 좌우의 정도에 따라 반령, 곡령, 단령이 있다. 유 의 섶은 여밈에 따라 좌임과 우임으로 나뉘는데 중국복식은 우임이 일반적이고 좌임은 우리 고유복식의 특징이다. 고구려고분벽화를 시대적으로 보면 좌임이 나타나다 좌임과 우임이 혼용되고 점차 우임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여밈은 고유복식과 외래복식의 역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부분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선()은 깃 도련 소매끝에 둘러져있는데 계급의 차이가 그 색깔로 구분되기도 한다.

백제의 상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우선 양 직공도(梁職貢圖)의 백제사신도, 백제 금동용봉래산향로(百濟金銅龍鳳蓬萊山香爐), 무령왕릉(武寧王陵) 출토 동자상(童子像)이 있다. 문헌자료로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古爾王) 28조에 왕은 자대유포(紫帶袍)와 청금고(靑錦袴)를 입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중국문헌에도 백제의 왕과 관원이 유포(袍)를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5) 하의

하의는 저고리 아래 입는것으로 바지(고: 袴)와 치마(상: 裳)가 있다. 바지는 그 용도에 따라 폭과 길이가 변하는데 궁고(窮袴)는 폭이 좁은 바지이고 대구고(大口袴:관과)는 폭이 넓은 것으로 대체로 신분이 높으면 관과를 입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군사용으로 궁고를 입었다. 바지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유물은 무령왕릉(武寧王陵)의 동자상과 양 직공도(梁職貢圖)의 백제국사, 금동용봉래산향로(百濟金銅龍鳳蓬萊山香爐)에 있는 인물상의 바지가 있다.

치마(상 裳)은 군(裙)의 원형이고 군은 상보다 군폭을 더해서 미화시킨 것이다. 상과 군이 여자들이 즐겨 입었으나 집안 무용총의 승려가 포아래 상을 입고 있었고 일본 천수국만다라(天壽國만多羅繡帳) 중의 승려인물이 상을 입고 있어 남자도 특수직업에서 상을 입었다고 생각된다. 백제의 상이 나타나는것은 금동용봉약래산향로(百濟金銅龍鳳蓬萊山香爐)의 5인 악사(樂師) 중 여자로 보이는 2명의 신선이 착용한 모습이 보인다.

(6) 장신구

몸치레는 의복을 장식하는 것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몸치레에 대한 의식은 원시 시대부터 있었지만 삼국시대에 들어오면 몸치레가 더욱 세분화되고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고분을 중심으로 발굴되고 있다.

몸치레의 종류로는 이식(耳飾 :귀걸이), 경식(頸飾 :목걸이), 천(釧:팔찌), 과대(帶), 지환(指環)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이식은 평면형과 입체형 수식에 의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구멍을 뚫어 꿰뚫에 삽입하는 것과 귀볼을 가압하여 수식하는 방법이 있었다.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이식은 가는 고리에 장식이 늘어진형태(細飾), 큰 고리에 장식이 달린형태(太飾) 등이 있는데 세환이식이 대다수이다. 특히 웅진(雄鎭) 시기로 추정되는 고분에서 출토된 이식들은 그 정교하고 화려하여 백제 공예술의 극치를 이룬다.

경식은 목에서 가슴까지 길이까지 주옥을 연결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수정이나 마노(瑪瑙)·호박(琥珀)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색감과 형태의 구슬로 만들었다.

천은 팔찌인데 고대인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뜻에서 팔찌를 착용하다 그것이 장신구로 변하였다고 한다. 백제의 팔찌는 각각 마디가 이어진 7절, 9절 팔찌와 대나무형태, 용무늬형태 등이 출토되었다.

과대(帶)와 요패(腰佩)는 허리에 일용품을 매달아 일상생활에 편의를 꾀하던 실용적인 성격에서 생겨나 하나의 장식이 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재료는 금은, 동, 철, 나무, 옥 등이 사용되었다.

(7) 신발

삼국시대의 신발은 형태상으로 대체로 화(靴)와 리(履)로 나눌 수 있다. 화는 방한용으로 적당하며 무풍적인 북방족이 많이 신었으며 리는 남방족이 신었는데 이러한 계통이 혼용되었다. 화는 장화모양의 신이며 리는 신목이 낮은 고무신과 비슷한 형태이다. 신발의 재료로는 가죽 천 실 삼 짚부터 금속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것이 사용되었다.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신발은 고분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부장용으로 혹은 의례용 신발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금동리가 있다. 회화자료로 양 직공도(梁職貢圖)의 백제사신이 신은 검은색 화(靴)가 있으며, 그 외 고구려 고분벽화에 다양한 신발모양을 통해 백제의 신발을 가늠해볼 수 있다.

2) 백제의 직조와 염색

삼국시대에는 각종 동식물에서 채집된 섬유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 수 있는 천을 만들었고, 여기에 염색술이 가미되어 의생활의 수준은 한층 발전한다. 당시 직물의 생산은 의복의 재료를 생산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화폐로 대용되기도 하였고 외교 수단이나 수출품으로 등장하는 등 중요한 산업의 하나였다.

(1) 삼국시대의 직조와 염색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직조는 신석기 시대로부터 출발하는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실을 제조할 때 사용하던 도구의 하나인 가락바퀴 및 직물과 관계되는 그림, 출토된 직조물이 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인위적인 섬유생산으로 전환하여 생산이 활발해졌고 직기구를 이용한 새로운 직조방법이 개발되어 각종 직물을 생산하게된다. 삼국시대에 생산된 직물의 종류로는 견직물에 견(絹)·나(羅)·사(沙)·주(株)·능(綾)·금(錦) 등이 있고 포직물에 겹포(布)·마포(麻布)·면포(綿布) 등이 있고 모시인 광폭세포(廣幅細布) 청포(靑布) 황명세포(黃明細布) 등이 있고 모직물에는 계()·전(氈)·장일(障日) 등이 있고 면직물로 백첩포(白疊布)가 있다.

삼국시대의 염색법에는 크게 날염·방염·침염이 있다. 날염법은 바탕직물에 무늬를 그려넣는 채회염과 무늬를 새긴 목판에 염액을 묻혀 무늬를 찍는 인화염이 있다. 방염법으로는 혈염을 들 수 있는데 실로 직물을 묶은 다음 염액에 담가 부분적으로 염색을 하는 교혈, 문양을 새긴 두 조각의 판 사이에 직물을 삽입하여 염색하는 협혈, 직물에 납으로 무늬를 그려 염색한 후 납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침염법은 실이나 직물을 염

액에 담가 동일한 색으로 염색하는 방법으로 실을 먼저 염색하여 직물을 짜는 선염법과 직물로 짠 다음 염색하는 후염법이 있다. 당시의 직물 중에는 금이나 이색룡 등은 먼저 오색사로 물들여 무늬를 넣는 선염법으로, 변주와 견은 후염법으로 염색하였다. 당시의 색관념은 상당히 발달되었는데 홍색계통은 비색 적색 자색으로 구별되었고 청색계통은 녹색 청색 벽색으로 구별되었으며 회색과 검정색 황색도 사용되어 상당히 다양하게 색상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백제의 직조와 염색

백제에서는 포(布)·견(絹)·마(麻) 등을 조세로 낼만큼 직조가 일반화되었다. 금(錦)은 5세기 중국 북위에 보냈던 조공(朝貢) 품목에도 보일 뿐만 아니라 직공(職工) 안정나(安定那)는 일본에 건너가 한금(韓錦)을 만들어 일본 금부련(錦部連)의 선조가 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백제의 직조기술을 말하여주는 유물은 가락바퀴나 바늘 등 재질의 특성상 오랜세월 유지되는 것 외에 나무로 제작하였을 직기 등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당시의 직조 기술이나 구체적 재현은 어렵다. 단지 능산리 36호분에서 직조편이 일부 출토되었는데 평직과 라(羅)로 밝혀졌는데, 라는 관식과 함께 출토되어 라관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또한 백제 기와 뒷면에 포목흔이 뚜렷히 남아있는데 비록 기와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천이지만 백제의 직조물이기도하여 주목된다. 이들 포목흔을 보면 평직이고 실의 두께차이에 의해 3종류로 구별되는데 기와 제작 용으로 올이 성글고 올과 올 사이의 간격도 큰 마직물로 보인다. 백제의 염색 기술을 보여주는 있는 유물은 없으나 관직에 품계를 설치하여 색의(色衣)로 구별한 점은 여러가지 색상으로 염색하는 기술이 이미 발달하였음을 이야기해주고 다. 또한

백제의 염색기술이 일본 효독기(645~654)에 전해져 피혁을 봉제하고 혁(革)을 염색하였다는 사실이 『령집해(令集解)』에 전해지고 있어 염색기술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시대 고구려 통일신라 관영(官營) 공장에서 염직이 생산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백제의 우수한 염직 기술도 조부와 같은 중앙관서에서 관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순애, 『한국복식사』, 한국방송통신대학21, 1983

김동욱, 『백제의 복식』, 백제문화연구원, 1985

안명숙 김용서, 『한국복식사』, 예향사, 1998,

권태열, 「백제복식에 관한 고찰」, 『백제연구3』, 충남대백제연구소, 1972 3~5

권주순, 『한대복식과 한복의 교류관계에 대한 연구』, 효성여대논문집, 1971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6

맹인제, 「백제의 공예」, 『마한백제문화7』,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5

충청남도, 『백제재현단지조성조사연구보고서-문화예술』,

백제 복식의 일본 전파

일본의 고대문화는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아래 세워진 것이다. 일본의 일본에 있는 백제와 관련된 유물 중에는 복식사에 많은 점을 시사해주는 것들이 있어 백제 복식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한 백제가 4세기 중반경에 이르러 야마토 정권으로 짐작되는 왜와의 공식적인 교섭이 시도되었다. 나아가 백제는 366년에 오색채견(五色彩絹) 등 복식문물을 선물하여 백제의 복식문화에 대한 욕구를 촉발시키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문화적 교류는 4세기 이후 출현하는 하니와(埴輪)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백제의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토기와 연관성이 있으며, 인물 하니와의 경우 삼국의 복식을 반영하고 있다.

백제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는 두번째 큰 시점은 광대토왕대 고구려의 남진으로 백제가 고전하던 5세기 초반과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5세기 말경이다. 국내의 불안함으로 백제 주민들은 일본 열도로 진출에 활기를 띠는데 일부 백제 귀족은 가와찌 아스카(飛鳥)에서 그 기반을 다졌다. 아스카일대는 고대문헌에 나타난 가와찌 아스카의 전체 씨족수를 통해보면 한국계가 36%를 점하고 있거니와 삼국계주민 가운데 무려 백제계가 무려64%에 이르듯이 그 비중이 지대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아스카 석인상의 복식은 백제 복식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백제의 일본으로의 문화전파에 있어 세번째 계기는 성왕대이다. 성왕대 백제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일본으로 불교와 사원건축에 필요한 각종의 기술자를 비롯하여 오경박사와 같은 유학자까지 파견되었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불교를 중심으로 전래된 이 문화는 야마토 정권의 소재지이자 일본고대국가형성의 주요무대였던 아스카에서 취하여 아스카 문화라고 일컫는다. 이곳에서 백제문화의 압도적인 영향을 현재 남아있는 많은 유물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복식의 경우 천수국수장과 같은 유물에서 백제 나아가 삼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유원재,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1996

왕족의 복식

백제 왕족들이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상을 재현과 더불어 설명하였다.

재현에는 무령왕릉 출토 장신구를 활용하였다.

귀족의 복식

백제의 귀족들이 입었을 의상을 재현과 더불어 설명하였다.

주로 문헌사료를 근간으로 재현하였으며, 능산리 출토 관식 재현 자료도 수록하였다.

일반인 복식

백제의 일반 서민과 군인이 입었을 의상을 재현과 더불어 설명하였다.

복식관련유물

백제의 복식을 반영하고 있는 조각·회화·출토유물을 모아 놓았다.

복식문헌자료

국내·중국·일본의 문헌자료로서 복식과 관련된 부분을 주제별로 발췌하여 놓은 것이다.

기타유물

백제 복식에 대한 추정자료로서 고구려 고분벽화와 백제인이 도입하여 이룩하였던 문화 중 복식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였다.

2) 문헌정보 통계분야

문헌정보통계분야는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백제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연표로 본 백제사, 백제사료집성, 백제사연구도서 목록, 백제유적 조사연표 등 4부분이며, 주로 자료에 대한 소개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목차별 분류현황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하겠다.

(1) 연표로 본 백제사

백제의 역사를 연대별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표로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국 및 중국·일본의 역사를 서로 비교·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2) 백제사료집성

백제사료집성에서는 모두 8개의 분야로 나누어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1차사료 1,368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각 분야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원류기사(출자, 시조, 위치)
- ② 대외관계(조공, 봉책, 청구, 회맹, 견사, 우호)
- ③ 문화(제사/신앙, 복식, 예속, 학술/의술, 건축, 병기/악기, 언어, 설화/전설, 음악, 연회)
- ④ 인물(왕/왕족/왕계, 신하, 기타 인물)

- ⑤ 지리(토양/기후, 도서, 영역, 산업, 행정, 지명)
- ⑥ 정치/제도(지방제도, 관제, 세법, 형법, 역법, 구휼, 책봉, 도성제)
- ⑦ 군사(전쟁, 사냥/순행, 부흥운동, 패망, 군사제도)
- ⑧ 기타(이탈, 귀순(귀화), 화재, 질병, 이변, 인구, 도래)

(3) 백제사연구도서목록

백제사 연구도서 목록에서는 연구보고서·논문·단행본·정기간행물·도록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관련 자료 1,984편을 수록하였다.

(4) 백제유적 조사연표

백제유적 조사연표에서는 1913년부터 1999년까지 모두 347개에 달하는 백제관련 유적조사 예를 수록하였다.

제3장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구축자료의 분석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내용은 크게 3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는 핵심부분, 둘째는 이들 자료와 연계하여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버 시청각자료 및 참고자료 제공부분, 셋째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첫째의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역사·문화분야의 개설적 자료와 고고미술분야 및 문헌정보통계분야의 체제 및 자료내용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체제구성에 대한 검토

1) 이론적 배경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구축자료는 사이버상에서 제공되므로 그 이용대상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란 나이·성별·학력·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이용자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사이트가 백제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의 보편화 및 발전,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구축목적⁵⁾에서 볼 때 그 이용자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대상을 한정시키고, 그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이트의 구성내용을 통해 이용자들이 선별적으로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사이트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구축내용의 선택이 필요하다. 먼저, 이용대상은 본 사이트의 구축목적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크게 일반인,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크게 3부류로 구분하더라도 각각의 대상에 있어서도 그 범위가 큰데, 예를 들면, 학생이라고 해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구축내용은 이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5) 충청남도, 『「CYBER 백제 역사 문화관」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998.10, pp.37~38.

일반인과 학생을 위해서는 백제 역사·문화를 통사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백제의 성립과 발전·멸망에 이르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전문가를 위해서는 많은 문헌사료와 고고자료 등을 제공하여 사이버상에서 연구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트를 구성하는 내용의 체재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체제분석

(1) 목차의 체제

우선 정보제공 내용의 구성체제는 분야별로 3단계의 階序的 분류로 되어 있다. 1단계 항목을 보면, 역사일반분야, 고고미술분야, 민속학분야, 문헌정보통계분야 등 4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항목은 다시 2단계 목차로 세분되는데,

- **역사일반분야** → 백제사 개관/백제의 제도/백제의 경제
 - **고고미술분야** → 백제의 도성/백제의 성곽/백제의 고분/백제의 불교문화/백제의 건축/백제의 산업/백제의 공예/백제의 문자/백제의 문양/백제의 복식
 - **민속학분야** → 백제의 종교·사상/백제의 예술/백제의 민속/백제의 생활/백제의 설화·전설/백제의 인물
 - **문헌정보통계분야** → 연표로 본 백제사/백제사료집성/백제사 연구도서목록/백제유적 조사연표
- 등이다. 끝으로 3단계 세부목차로는

역사일반분야

· 백제사개관 →

백제란?/백제인의 고향/백제의 건국과정과 주민구성/백제의 건국시기/백제의 왕위계승/왕위계승도/재위기간/도성과 시대구분/인구와 사회·경제구조/영역과 전쟁/외교

· 백제의 제도 →

- | | | |
|---------------|-------------|------------|
| 1. 정치·행정제도 | 2. 군사제도 | 3. 법률·교육제도 |
| 1) 관등과 관직 | 1) 군사조직 | 1) 법률 |
| 2) 5부제(部制) | 2) 방어체제와 무기 | 2) 교육 |
| 3) 22부와 22담로 | | |
| 4) 방군성제(方郡城制) | | |

· 백제의 경제 →

- | | |
|------------|---------|
| 1. 토지/조세제도 | 2. 산업구조 |
| 1) 토지제도 | 1) 농업 |
| 2) 조세제도 | 2) 수공업 |

고고미술분야

- 백제의 도성 → 한성·웅진성·사비성
- 백제의 성곽 → 산성·평산성·장성·평지성
- 백제의 고분 → 적석총·토광묘·옹관묘·석실분·전축분·화장묘·기타고분
- 백제의 불교문화
 - 사찰건축유적
 - 불교공예(석조물·불상·금속제품)
- 백제의 건축 → 궁궐건축유적·사원건축유적·일반건축유적·원지
- 백제의 산업 → 농기구·어로구·상업 및 무역용구·요지·제철로·전장구
- 백제의 공예 → 토기공예·와전공예·금속공예·기타공예
- 백제의 문자 → 와전·금문·비문·목서·불상
- 백제의 문양 → 인물문·동/식물문·산수문·기하문·복합문
- 백제의 복식 → 왕족의 복식·귀족의 복식·일반인 복식·복식관련유물·복식문헌자료·기타유물

민속학분야

- 백제의 종교/사상 →
- 1. 전통신앙의 생활
- 2. 백제의 유교

3. 백제의 도교

4. 백제의 불교

- 1) 불교의 전래와 國家佛敎로의 발전
- 2) 계율의 성행과 승직제도(僧職制度)
- 3) 미륵신앙(彌勒信仰)
- 4) 관음신앙(觀音信仰)과 법화경(法華經) 신봉
- 5) 미타신앙(彌陀信仰)
- 6) 백제불교의 일본전수(傳授)

• 백제의 예술 →

1. 백제미술의 특징
2. 조각
 - 1) 백제 불교미술
 - 2) 백제의 불상조각
3. 그림과 글씨
 - 1) 그림
 - 2) 글씨

• 백제의 민속 →

1. 풍설
2. 백제(百濟)의 관혼상제(冠婚喪祭)
 - 1) 관례(冠禮)
 - 2) 혼례(婚禮)
 - 3) 상례(喪禮)
 - 4) 제례(祭禮)
3. 백제의 세시풍속

▶ 참고문헌

• 백제의 생활 →

▶ 백제의 개관

1. 의생활
2. 식생활
3. 주생활
4. 농경생활
5. 어로생활
6. 수렵생활
7. 성명(姓名)
8. 예절(禮節)
9. 백제인의 악기와 무용
10. 백제의 의술

• 백제의 설화/전설

• 백제의 인물 → 왕족 · 승려 · 학자 · 귀족 · 외교가 · 장군 · 예술가 · 기타 인물

문헌정보 통계분야

• 연표로 본 백제사(백제왕)

• 백제사료집성 → 원류기사, 출자, 시조, 위치, 대외관계, 문화, 인물, 지리, 정

치제도, 군사,기타

- 백제사연구도서 목록 → 연구보고서, 논문, 단행본, 정기간행물, 도록.
- 백제유적 조사연표

등이다. 이 가운데 역사일반분야 및 민속학분야에서는 각각의 세부목차에 의해 개설내용을 싣고 있으며, 고고미술분야 및 문헌정보통계분야는 세부목차에 대한 개설과 함께 그 아래에 자료별 항목을 두어 각각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각각의 분야별 내용에 대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분 야	내 용	항 목 수	비 고
역사일반분야	백제사 개관	12	개설내용
	백제의 제도	8	"
	백제의 경제	4	"
고고미술분야	백제의 도성	4	개설내용, 항목
	백제의 성곽	408	" , "
	백제의 고분	1,285	" , "
	백제의 불교문화	145	" , "
	백제의 건축	877	" , "
	백제의 산업	1,602	" , "
	백제의 공예	15,201	" , "
	백제의 문자	482	" , "
	백제의 문양	160	" , "
	백제의 복식	33	" , "
민속학분야	백제의 종교/사상	6	개설내용
	백제의 예술	5	"
	백제의 민속	7	"
	백제의 생활	11	"
	백제의 설화/전설	75	항 목
	백제의 인물	210	"
문헌정보통계분야	연표로 본 백제사		개설내용
	백제사료집성	1,386	항 목
	백제사연구도서목록	1,984	"
	백제유적조사연표	347	"

* 본 도표는 백제역사정보에 실린 자료에 한정되어 있으며, 항목의 수는 각 분야의 내

용에 실린 항목수로 산정되었다. 개설의 경우에는 각 내용별 또는 주제별 목차 등을 항목으로 산정하였으며, 도면보기·상세보기·사진자료 등은 별도의 항목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도표의 수치는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를 화면상에서 계산한 것으로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2) 체제구성상의 문제

① 목차 배열상의 문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내용의 체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항목의 순서는 이에 적합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구축내용은 ‘역사일반분야’ 다음에 ‘고고미술분야’가 있다. 그러나 ‘고고미술분야’는 발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구체적 사례의 제시라는 점에서 개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된 다음 단계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민속학분야’가 ‘역사일반분야’ 다음에 위치해야 한다(역사일반분야/민속학분야/고고미술분야/문헌정보통계분야).

② 목차의 명칭

구축내용의 상위 항목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민속학분야’의 경우 항목에서 ‘백제의 종교·사상’, ‘백제의 예술’, ‘백제의 민속’ 등을 다루고 있어 분류목차와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소목차의 체제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민속학분야’라는 목차 대신에 ‘문화일반분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만 ‘역사일반분야’라는 목차와도 부합될 수 있다.

③ 목차의 재구성

가. 역사일반분야 - 백제역사정보는 백제의 전체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백제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백제부흥운동 및 백제문화의 대외전파, 특히 일본으로의 문화전파 등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사일반분야’는 「백제사 개관/백제의 제도/백제의 경제/백제의 부흥운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백제사 개관’에서 백제의 발전과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므로 ‘백제의 성장·변천’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민속학분야 - 백제문화의 대외전파는 현재 ‘민속학분야(문화일반분야)’에서 「백제의 종교·사상/백제의 예술/백제의 민속/백제의 생활/백제의 설화·전설/백제문화의 대외전파」로 구성하도록 한다.

다. 고고미술분야 - ‘백제의 불교문화’는 이 분야가 ‘고고미술분야’이므로 ‘백제의 불교미술’로 목차가 바뀌어야 함. 그리고 사찰건축유적은 ‘백제의 건축’의 사원건축유적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한 곳은 삭제되어야 하는데,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백제의 불교문화’의 사찰건축유적을 삭제하고, ‘백제의 건축-사원건축유적’으로 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백제의 불교미술→석조물·불상·금속제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성 내용에 대한 검토

1) 역사일반분야·민속학분야

[역사일반분야]

이 분야는 본 사이트의 방문자들로 하여금 백제의 전체 역사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설화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한다. 역사일반분야의 내용은 크게 백제사 개관, 백제의 제도, 백제의 경제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백제사 개관** : 백제의 역사 전체를 아주 소략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간략하며, 나열식으로 서술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용어상에 있어서도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개관에서는 백제의 건국-발전-변천-멸망-부흥운동 등의 과정을 계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설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백제의 발전과 변천, 멸망과정 및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 근초고왕대 중국 요서·일본열도 진출문제 - 영토의 차지로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견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자왕대의 정치현상 - 최근 의자왕대의 정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헌기록에 치중하여 의자왕대의 정치현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국운영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불합리한 용어의 교정 - 고구려 유민, 호남지역, 토벌 등

· 각 왕의 재위연도 표기 필요

· 내용상 오류 수정·보완 - 예) 백제란? : ‘일본정부에 의해 서기 720년에 편찬된 역사서인’ → ‘서기 720년에 편찬된 일본의 역사서인’

· 왕위계승도 누락 - 보완

○ **백제의 제도** : 정치·행정제도의 경우 중앙의 제도와 지방의 제도가 함께 나열식으로 설명되어 있음. 따라서 이를 중앙통치제도와 지방통치제도로 나누어 그 성립·변천과정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존속시기가 다른 중앙 및 지방제도를 함께 기술하고 있는데, 가급적 시기별 또는 주제별로 내용을 구성하여 서술하는 것이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너무 기록을 중심으로 한 나열식 설명을 하고 있어 내용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산만하다. ‘방어체계와 무기’ 부분에서는 내용상 앞뒤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 자료를 예로 제시한 경우가 있다.

1. 정치·행정제도

1) 관등과 관직

· 내용서술이 너무 『삼국사기』 기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도표화가 필요)

· 관등의 성립·분화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중국사서에 실린 내용 소개)

· 6좌평은 직장(職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 관직적 성격으로 출발, 후에

관등화가 이루어졌음.

- 학설에 대한 소개, 이때 개인적 관점은 가급적 피하고 공론화된 학설 소개가 필요.

2) 5부제

5부제는 백제가 건국한 직후부터 나타나서 사비시대까지 그 성격이 변화하면서 존속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과정과 시기별 특성을 설명해야 한다.

- 1단계 : 5부제 소개, 2단계 : 5부제 성립과정, 3단계 : 5부제의 변화
- 용어는 가급적 통설의 범위 안에서 단정적으로 서술하여야 일반인들의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있다.
- 궁남지 출토 목간의 내용 소개 - 보완

3) 22부와 22담로

- 존속 시기가 다른 중앙 및 지방제도를 함께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성립시기가 늦은 22부를 먼저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 행정제도와 지방 통치조직을 구분하여 항목을 설정하고, 내용서술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것이 필요.

- 22부의 도표화, 관직의 성립과정, 22부의 담당업무와 기능 보완.
- 담로제 설명시에 『삼국사기』 기록 가운데 왕·후를 칭하는 자료제시 및 설명 후에 서로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이 필요.

4) 방군성제

- 너무 기록대로 설명하여 내용에 체계성이 없고, 산만함. 일반론적 견해와 사료에 대한 설명을 병행하여 서술하는 것이 필요

- 방군성과 관련된 『삼국사기』 · 『한원』 · 『일본서기』 등의 사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삼국사기』 의자왕 20년조의 5부(방) 37군 200성에 대한 기사, 『일본서기』 흠명기의 군령(郡令) · 성주(城主)의 기사 등)

2. 군사제도

1) 군사조직

-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기록의 나열에 치중되어 있으며, 체계성과 조직성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음.

· 백제의 군사조직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전쟁 등과 관련하여 병력 수, 지휘관 등에 대한 기록을 통해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앞에 나온 병력동원문제는 끝부분에 위치해야 하며, 왕도 5부의 각 부에 배치된 군사 500명의 예가 생략되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

· 군사조직에서 좌장·병관좌평·사군부·마부·도부 등 관련 관부의 성립과정 등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

2) 방어체제와 무기 - 무기에 대한 설명 보완이 필요, 특히 발굴된 유물인 화살촉·도끼·칼·창·낫 등의 출토와 『주서』의 기록(말타기와 활쏘기를 중시한다)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임. 즉, 내용상의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

3. 법률·교육제도

1) 법률 - 법률의 제정시기 및 유형 등을 먼저 기술하고 후에 부연설명을 해야 함. 너무 사료의 나열에 치중하였다.

2) 교육 - 『주서』백제전, 『양서』신라전 등에 보이는 관련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백제 교육관련 자료는 너무 적으므로 삼국의 관련자료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백제의 경제** : 내용이 대부분 자료의 나열적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백제의 경제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미흡하다. 물론 사료의 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으나 고구려 또는 신라의 예와 비교·검토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구성이 이루어지고, 설명되어야 한다.

1. 토지/조세제도

1) 토지제도 - 토지 소유형태, 계층별·시기별 토지소유의 변화, 경제관련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함.

2) 조세제도 - 조세제도의 일반론적 정비시기 및 백제 조세제도의 정비시기 문제, 조세의 유형별 분류, 조세 수취기관에 대한 설명 보완 필요. 조세관련 자료는 매우 적으므로 고구려 등의 관련자료와의 비교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산업구조

1) 농업 - 농업의 유형, 재배작물, 농업의 발전과정, 농경법, 농경도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미사리에서 조사된 농경유적과의 비교·설명 필요.

2) 수공업 - 수공업의 형태(관영수공업, 민간수공업), 종류(철제수공업, 금속가공 수공업, 직물류 등의 유형별 분류), 관련 사례에 대한 보완(근초고왕대에 왜에 파견된 冶匠 卓素, 신라 황룡사 9층탑을 세운 백제의 阿非知, 무령왕릉 출토 은제팔찌를 만든 多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속학분야]

민속학분야는 크게 백제의 종교/사상, 백제의 예술, 백제의 민속, 백제의 생활, 백제의 설화/전설, 백제의 인물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백제의 설화/전설, 백제의 인물에서는 자료의 제공이라는 목적이 강하며, 그 외는 개설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주로 개설에 대한 내용상의 문제, 누락된 내용, 오·탈자 등에 주안점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

1. 백제의 종교/사상

1) 전통신앙

- 오·탈자의 교정
- 내용상의 오류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 필요

2) 유교

- 오·탈자의 교정 및 문안에 대한 수정·보완
- 내용의 중복(교육제도와 중복되는 내용의 경우 일부 생략)
- 원문인용의 경우에는 한자를 먼저 쓰고 괄호 안에 한글 병기

3) 백제의 도교

- ‘백제의 도교’ → ‘도교’로 목차 수정
- 오·탈자의 교정
- 원문인용의 경우에는 한자를 먼저 쓰고 괄호 안에 한글 병기

4) 불교

(1) 불교의 전래와 국가불교로의 발전

- 국가불교로의 발전 내용이 미흡 - 단지 사찰조영만을 예로 들고 있으나 전륜성왕사상, 왕권강화 등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

(2) 계율의 성행과 승직제도

(3) 미륵신앙

(4) 관음신앙과 『법화경』 신봉

(5) 미타신앙

(6) 백제불교의 일본 전수

- 구체적 사례를 통한 내용 보완 - 『일본서기』(흥명기 13년 10월조)에 성왕이 서부 달솔 노리사치계 등을 보내 석가불금동상 1구와 번개 약간, 경론 약간권을 전했다는 기록 등.

- 오·탈자 및 내용의 중복 교정

2. 백제의 예술

1) 백제미술의 특징

- 이 부분은 백제의 예술에 대한 개설내용이다. 따라서 ‘백제예술의 특징’으로 목차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 예술에는 미술뿐만 아니라 그림·글씨·음악·무용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설내용에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백제의 생활’에 설정되어 있는 백제인의 악기와 무용은 ‘백제의 예술’ 부분에 포함되어야 하며, 문학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

다.

- 그리고 ‘백제의 생활’에 설정되어 있는 백제인의 악기와 무용은 ‘백제의 예술’ 부분에 포함되어야 하며, 문학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 문법상 · 내용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 · 보완

2) 조각

(1) 백제 불교미술

- 불교미술의 특징과 의미, 발전과정에 대한 체계적 서술이 필요.

- 불상의 미술사적 가치 · 특징보다는 사지나 발견 예 등에 대한 내용에 치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고고미술분야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

- 오 · 탈자의 수정 및 문안의 보완이 필요.

(2) 백제의 불상조각

- 불상의 종류 · 형태만 서술 - 불상조각의 특징, 미술사적 가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즉 백제 불상조각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 석불의 형식에서는 종류만 나열하였으나 고구려 · 신라 등의 석불과의 비교를 통한 백제 불상조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체적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못하며, 단락 구분 및 문장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 중국의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급적 평이한 용어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그림과 글씨

(1) 그림

- 오 · 탈자 수정 및 문안 교열

- 백제 그림을 설명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한정되고 있으므로 백제 그림의 일반적 특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글씨

- 글씨체 자체의 특징 · 변천 등에 관한 내용보다는 유학 및 한문학 등에 대

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글씨체의 종류와 변천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고미술자료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

3. 백제의 민속

1) 총설

- 내용상의 문제 : 백제의 문화적 특징은 지리적인 구분에 의해 나누어 설명할 수 없음. 백제는 2번에 걸친 천도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왕도는 행정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성시대 문화의 중심은 서울지역이었으며, 웅진시대는 공주, 사비시대는 부여였다. 따라서 백제문화의 중심권역은 시기에 따라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금강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구분할 수 없다.

- 관혼상제와 세시풍속 등은 고고학적 발굴자료를 통한 연구보다는 문헌자료 또는 민속, 그리고 주변국가들의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연구할 수 있음. 따라서 내용상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

2) 백제의 관혼상제

(1) 관례

- 『삼국지』 마한전에 기록된 내용 보완 - 성인식 또는 지게 지는 모습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이해

(2) 혼례

- 혼례과정에 대한 설명이 미흡, 특히 고구려의 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백제의 사례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예: 『수서』 백제전 「부인은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아니하고, 처녀는 머리를 땅아 뒤로 드리웠다가 시집을 가면 두 갈래로 나누어 위로 틀어 엮는다. …결혼하는 의식은 대개 중국과 같다.」)

(3) 상례

- 상례에 대한 설명에서 주로 묘제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고미술분야-묘제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장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무령왕릉 출토 지식내용 또는 정지산 유적 등을 통한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제례

· 현재의 개설 내용은 대부분 국가의례에 관한 내용으로 통과의례로서의 제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따라서 통과의례로서의 제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 내용은 국가제의 또는 국가의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백제의 세시풍속

- 오·탈자 및 문장의 교정
- 참고문헌의 부호 표기상의 문제

4. 백제의 생활

· 개설내용의 경우 단편적으로 본문의 목차와 관련된 내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백제인의 생활상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백제인의 생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사회생활에 대한 설명에서 무역에 관한 내용, 성명 등 확실성이 없다. 또한 이미 백제의 민속에서 설명된 내용을 중복하여 기술하고 있는 등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1) 의생활

- 오·탈자 및 한자사용 문제 : 오·탈자의 수정과 한자는 한글과 병용.
- 자료인용상의 문제(『후한서』→『삼국지』)
- 문구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보완.

2) 식생활

· 단편적인 고고자료만을 통해 설명, 따라서 일반론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 문헌기록에 보이는 내용 보완(예 ; 『주서』백제전 「오곡과 각종 과일·채소 및 술·음식·반찬·의약품은 거의 중국과 같다.」, 『수서』백제전 「오곡과 소·돼지·닭이 있으나 대개 火食을 하지 않는다. 또 굶은 밤이 난다.」

- 오 · 탈자 및 문구상의 오류 수정

3) 주생활

(1) 서민주택

· 서민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문헌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고고자료를 통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적사례를 통한 설명이 필요 - 내용에서 고고학적 발굴성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고고학적 자료의 이용은 전무(예 ; 부소산 백제시대 수혈주거, 미사리집자리 유구 등의 발굴자료를 통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2) 궁궐

· 왕궁이 위치했던 한성 · 웅진 · 사비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되 고고학적인 발굴성과를 참조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비시기의 경우는 원지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으로 실제 궁궐에 대한 설명은 없음. 사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예 : 『삼국사기』 온조왕 15년조, 「作新宮室 儉而不陋 華而不侈」) - 내용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음.

4) 농경생활

- 일반 생활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 농경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비류왕대 벽골지의 축조 등 관련자료에 대한 충실한 보완이 필요)
- 재배작물의 종류 및 변화에 대한 보완
- 내용과 문구상의 오류 수정 · 보완이 필요.

5) 어로생활

· 무역 또는 항해술과 관련된 내용은 이를 어로와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왕대 漁獵의 용구를 불살랐다는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6) 수렵생활

· 백제의 수렵이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수렵생활은 경제생활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야 하며, 왕의 수렵 또는 전렵과는 다

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법왕대 민가에서 기르는 매 등을 놓아주었다는 기록을 귀족층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며, 부정적인 서술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성명

- 성명은 신분제로 바뀌어야 함.
- 내용에 있어서 분명하지 못한 점이 많음(성·성명·성씨 등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성씨 문제와 신분 문제로 혼용되어 있음)

8) 예절

- 내용이 대부분 관혼상제와 중복됨, 예절에 대한 부분 보완이 필요.
- 인용 사서에 대한 수정(『위지』→『삼국지』, 『통전』→『진서』)
- 『삼국지』, 『후한서』 마한조 등에 기록된 내용은 성년식으로 보기도 하지만 지계를 사용한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함(내용상 보완이 필요)

9) 백제인의 악기와 무용

(1) 악기

- 오·탈자의 수정 및 중복된 내용의 정리
- 백제금동대향로에 나오는 5인의 주악상에 보이는 악기 등 자료의 보완이 필요.

(2) 기악무

- 백제시대 악사와 무용수가 꽤 높은 벼슬로 우대되었다는 점 - 모든 악사나 무용수가 모두 높은 관등을 지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리직 또는 그 우두머리 등에 한정하여 이해하여야 하므로 내용상 보완이 필요.

10) 백제의 의술

- 백제관련 내용이 너무 빈약하므로 고구려·신라 등의 자료를 통해 보완.
- 여러 역사서에 기록된 자료의 활용-특히 『일본서기』에 보이는 관련 관직명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

5. 백제의 설화/전설(75)

백제의 설화/전설은 모두 75항목이 제공되고 있으나 누락된 자료가 많으므로 자료에 대한 추가 수집·보완이 필요하다.

- ① 항목의 분류 문제 - 가나다순 또는 주제별 분류가 필요.(가나다순이 좋을 것으로 생각)
- ② 내용의 보완 및 교정 - 설화가 실린 책명, 전해지는 지역 및 내력,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 설화·전설을 통해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참고자료의 문제(보다 학술적인 참고자료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 백제역사 재현단지조성연구보고서는 너무 개설적임)
- ④ 참고자료가 중복하여 기록되고 있음.

6. 백제의 인물(210)

백제의 인물은 왕족(64)·승려(23)·학자(11)·귀족(45)·외교가(7)·장군(24)·예술가(5)·기타 인물(31)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인물을 통한 이해이다. 따라서 인물을 통해 그 인물이 살았던 당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물의 신분, 살았던 시대상, 인물의 활동, 업적, 후대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을 통해 역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각 부분별 항목순서를 가나다순으로 분류
- ② 기타인물의 재분류(복신-왕족, 여자인-장군, 억례복류-장군, 사타상여-장군 등)
- ③ 내용은 가급적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필요.
- ④ 내용의 보완(이용자료가 대부분 『삼국사기』와 『일본서기』에 국한되어 있으며, 정사라고 할 수 있는 자료만 이용됨. 인물과 관련된 설화 등 자료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

2) 고고미술분야 · 문헌정보통계분야

[고고미술분야]

고고미술분야는 모두 1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개설내용을 두고 있으며,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각 항목으로 분류하여 개요·사진·도면·상세보기 등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료의 경우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항목 분류 및 선정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② 이 분야는 주로 발굴조사 등을 통해 출토된 고고·미술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주로 백제사를 전공하는 학생 또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 정확성과 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며, 새로운 자료의 발굴조사 등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다. 각 분야별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백제의 도성(4)>

백제의 도성은 천도에 의해 한성·웅진·사비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시기별 변천에 의해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성의 이동에 따른 시기별 특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 개설내용

· 문안내용의 수정·보완(예: ‘마한에 속한 백제사에서’→‘백제사의 전개과정은’)

· 한글병용 및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태도 지향

· 학계의 여러 학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화

· 백제도성의 변천 및 특징-사비시대(Ⅲ)의 내용 중 부소산성 발굴조사 진행 결과에 대한 표가 누락됨(보완필요)

· 상세설명 : 상세설명의 이용자는 주로 전공자 또는 학생들일 것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내용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유적의 경우 계속적으

로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한성-풍납리토성** : 상세설명의 경우 1966년 시굴조사 등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1997~2000년에 걸쳐 실시된 발굴조사 등에 대한 설명은 없음, 고고자료는 가급적 최근의 조사성과를 반영하도록 해야 함.

· **공산성-도면보기** : 도면은 가급적 유적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거나 또는 유구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갖는 도면을 신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면의 명칭과 척도가 함께 수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참고자료의 경우 발굴조사 보고서는 가급적 모두 기재.

· **사비성** : 사비성에는 나성을 포함시켜 설명해야 함. 부소산성은 왕성의 배후산성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나성과 세트를 이루어 왕도를 구성. 따라서 부소산성뿐만 아니라 나성까지 포함하여 설명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부소산성-개요 및 상세설명에 내용상 차이가 있음(복합식산성 문제:발굴조사 결과 복합식산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됨), 자료내용의 교정 및 참고자료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백제의 성곽>

백제의 성곽은 산성·평산성·장성·평지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총 407개 항목 가운데 산성이 385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산성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아직 정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모두가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다.

* **개설내용** : 개설내용은 백제의 도성에서 이미 설명된 풍납리토성·몽촌토성·공산성·부소산성 등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백제의 성곽은 산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백제산성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예 : 산성의 기능, 축조방법, 축조재료, 입지, 축조방법 등).

가. 산성(385)

- 중복된 항목 및 고구려성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목의 재조정이 필요 - 총 385개 항목 중 2곳은 중복(운주산성, 임존성), 6곳은 고구려성(무등리 1·2보루, 아미성, 두루봉보루, 고성산보루, 천보산 보루성5)

- 각 항목은 도·시·군별로 분류하여 제공해야만 자료를 찾고, 이용하기에 편리.

- 기존에 백제산성으로 알려진 자료 가운데 조사결과 백제산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설명의 보완이 필요.(예:이성산성, 건지산성 등) 따라서 개별 유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백제산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료는 삭제하거나 항목으로 그대로 분류할 경우 그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시대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함께 분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전라남·북도 지역의 자료는 대부분 누락되어 있음 - 보완이 필요.

- 위치가 누락된 항목이 많음 - 보완이 필요.

- 상세설명 - 주로 유적에 대한 설명에 치중되어 있는데, 유적의 역사성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상세설명에는 전문가 등을 위해 발굴 조사 자료 등 참고자료를 충실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 평산성(2)

- 나성은 평산성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백제의 도성-사비성에 포함시켜야 함.

- 은대리성은 고구려성이므로 제외시켜야 함.

다. 장성(1)

라. 평지성(19)

- 유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백제산성이 아닌 것은 제외시켜야 함(예:당포성과 호로고루성-고구려성)

<백제의 고분>

백제의 고분은 적석총 · 토광묘 · 옹관묘 · 석실분 · 전축분 · 화장묘 · 기타 고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분야는 다시 유구별로 항목을 분류하여 개요 · 사진 · 도면 · 상세보기 등을 통해 개별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가하고 있다.

* 개설편

· 개설편에서는 고분의 형태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을 뿐 백제시대 묘제(墓制)의 시기별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따라서 백제 묘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오 · 탈자의 수정
- 용어상의 문제 - 수정 및 보완

가. 적석총(12)

- 유적별 · 지역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음.
- 개별 유구는 독립된 항목이므로 유구 설명시 개괄적인 조사개요 및 전체유적에서 유구가 지닌 가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설명문에는 대부분 유구에 대한 설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유적과 유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항목분류의 잘못(논산 표정리 A구 11호분, A구 13호분은 각각 횡구식, 횡혈식석실분임)
- 청원 주성리유적 적석묘 - 청원 주성리고분과 항목이 동일, 청원 주성리고분은 삭제.
- 석촌동3호분-사진자료 누락(보완필요),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음.

나. 토광묘(526)

- 유적별 · 지역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음.
- 전남 · 북 지역은 모두 누락.
- 오 · 탈자 수정 - 공주 하봉리 8-2호분 소재지(장지면→장기면), 천안 동정동 11호분→두정동

다. 옹관묘(122)

- 유적별 · 지역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음.
- 내용의 보완 - 나주 반남지구 신촌리 제9호분 설명내용 없음
- 명칭의 통일 - 옹관, 독널 → 옹관으로 통일

라. 석실분(455)

- 유적별 · 지역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음.
- 내용의 보완 - 형태, 규모/크기, 구조, 축조방법 등 기록되지 않은 항목이 많음. 사진 · 도면 등의 보완.
- 보령 명천동 4호분(석실분) - 개설과 ‘상세보기’의 설명내용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를 보다 분명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개설에서는 보다 개괄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상세보기’에서는 유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신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지산 1호분 참고자료 오류 - 국립중앙박물관→국립공주박물관
- 항목의 재분류 - 부여 저석리1호분은 수혈식전곽묘이므로 전축분으로 분류.

마. 전축분(3)

- 전문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움 - 가급적 어려운 용어는 한글식 또는 평이한 설명으로 대체하여 기술하는 것이 필요.
- 무령왕릉의 경우 출토유물에 토기류, 무기류, 기타류로 기재되어 있는데 대표성을 갖는 유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예:108점 2,906점 출토, 지석, 금은제 장식류, 기타 등)
- 용어상 오류 - 연도→선도로 표기

바. 화장묘(6)

- 유적명칭의 수정(부여 쌍북리고분군 - 내용상 1기이므로 ‘고분군’ 대신 ‘화장묘’).

사. 기타 고분(160)

- 유적별 · 지역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음.
- 형태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용어 통일이 필요(장방형 또는 석곽묘 등으로 기록)
- 영산강유역 대형옹관묘 포함. 따라서 ‘4.옹관묘’와의 분류기준이 필요.

<백제의 불교문화>

백제의 불교문화는 사찰건축유적·불교공예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비시대의 유적·유물에 해당된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고고미술자료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불교문화 항목은 백제의 건축 및 백제의 공예 부분과 항목이 중복되어 있어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하도록 하겠다.

* 개설내용

- 문장구성상의 문제 -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교정 및 보완이 필요.
- 용어상의 문제점

가. 사찰건축유적(15)

사찰건축유적은 ‘백제의 건축’과 중복되는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로 하겠다.

- 누락된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보원사지, 사자사지, 서복사지 등) -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사지만 기록.
- 명칭의 통일(오합사지-성주사지로 해야 함).
- 내용 및 참고자료의 문제 :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인 정림사지의 경우 「1942~1943년 일본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발굴되었다」는 사실만 기록, ‘상세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1979~1980년, 1984년 등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으며, 참고자료의 경우에도,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1993. 이왕기, 백제건축양식과 기법, 백제문화 27, 1999 만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정림사지와 관련해서는 충남대박물관, 『정림사』(1981)가 발간되었으며, 정림사연지발굴조사보고서는 『백제연구』 18집(1987)에 실려있다. 그리고 명문와에 있는 명문 예시의 경우 원문을 먼저 기술한 후에 괄호안에 한글을 표기하도록 한다.

예시) 정림사지

개요 : 이 절터는 1942·43년에 일본인 등택일말(藤澤一末)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발굴되었는데 당시 ‘태평팔년무진정림사대장당초(太平八年戊辰定林寺臺藏當草)’라는 명문와가 출토되어 정림사터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이 절터에는 백제의 오층석탑과 그 북쪽 강당터에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석불좌상이 남아 있다. 가람의 배치는 중문·탑·금당·강당을 남북일직선상에 배치한 일탑일금당식(一塔一金堂式)으로 특히 근래의 조사에 의하면 중문 앞 좌우에는 2개의 네모진 연못이 존재하였음이 밝혀졌다.

참고자료 :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1993, pp.147-148. <글>
이왕기, 「백제 건축양식과 기법」 『백제문화』 제27집, 공주사범대학 백제문화연구소, 1999. p.104. <글, 도면>

미륵사지의 경우에도 1989년 1차 보고서, 1996년 2차 보고서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간행되어 있으며, 남월사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적 또는 유물의 경우 발굴조사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적일 경우라도 가급적 학술서적을 자료로 제시하여야만 이용자가 자료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오·탈자의 수정 - 참고자료 백제문화 27집의 발간기관 : 공주사범대학 백제연구소→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수원사지 개요 : 東國餘地勝覽→東國輿地勝覽, 용정리사지(상세보기) : 사지시대→사비시대 등

· 오합사지 사진자료 - 통일신라시대 소조불두를 게재하고 있는데, 비록 성주사지가 통일신라때 중창되었다고는 하나 여기에서는 백제때 창건된 오합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삭제하고 백제 와당이나 유적전경 등의 사진을 실는 것이 바람직 함.

나. 불교공예

○ 석조물(28)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음.

○ 불상(84)

· 유적별, 지역별, 유형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음.

· 용어가 어려운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 그리고 용어에 ‘or’이 있는데 이는 ‘또는’으로 수정.

· 항목의 재분류 : 납석제연화불상대좌 - 불상은 일실되어 남아있지 않고 불

상대좌만 있으므로 ‘석조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음.

- 오자 수정 : 정림사지출토 소조양수편 ‘韶造’→塑造

○ 금속제품(17)

· 유물별,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음(서로 관련있는 항목은 이어서 배열하는 것이 필요, 예를 들어 ‘백제금동대향로’와 그 ‘출토경위’는 서로 10 항목이나 떨어져 있어서 항목만 보아서는 ‘출토경위’가 무엇의 출토경위를 설명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예시)

항 목 명	소 재 지	비 고
백제금동대향로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사지	
향로의 각종 문양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사지	
선인상(仙人像)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사지	
귀신영이(鬼神靈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사지	
주악상(奏樂像)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사지	
인물상(人物像)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사지	
상상의 동물상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사지	
실제 동식물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사지	
청동개(靑銅蓋)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산 서북사지	
풍탁(風鐸)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7	
출토경위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사지	

· 백제금동대향로의 경우 각각의 문양·조각상 등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제의 문양과 중복됨. 또한 불교공예-금속제품에 대한 설명이므로 각각의 문양을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백제금동대향로’의 한 항목으로만 다루되 보다 자세하게 설명내용을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각각의 항목으로 분류된 ‘향로의 각종 문양’, ‘선인상’, ‘귀신영이’, ‘주악상’, ‘인물상’, ‘상상의 동물상’, ‘실제동식물’ 등의 항목은 삭제. 그리고 ‘출토경위’, ‘향로의 유래’ 항목은 ‘백제금동대향로’ 항목 다음에 나란히 배치해야 함.

- 항목에 감사석조보살입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분류상의 오류.

· 일광삼존불 - 개요의 내용이 ‘상세보기’의 요약 형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상 차이가 없다. 개요의 경우에는 ‘일광삼존불’이 지닌 의미·중요성 등을 언급하여 항목으로 선정된 이유 등을 알 수 있게 하고, ‘상세보기’에서는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목은 불상으로 분류되어야 함.

- 오·탈자에 대한 수정

<백제의 건축>

백제의 건축은 궁궐건축유적·사원건축유적·일반건축유적·원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건축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개설내용

개설내용에서는 시대별 백제 건축양식의 변화와 그 특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야별 건축양식의 변천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부분 사찰건축 및 궁궐건축에 한정되어 있으며,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건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 한성시대 건축에 관한 내용 누락
- 중국자료 소개의 경우 백제의 건축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이 필요.
- 백제의 건축Ⅱ의 대부분은 불교문화Ⅱ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완이 필요.
- 건축Ⅳ와 Ⅴ의 경우 내용의 순서가 잘 맞지 않음(Ⅳ에서 수·당대 궁궐제도를 설명한 후에 다시 Ⅴ에서 동위의 궁궐제도를 설명)
- 궁궐건축과 사원건축은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적합한 내용에 대한 삭제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궁궐건축유적(22)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음.
- 유적설명은 각 유적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예:공산성 추정왕궁지 제2건물지-「적심석군 형태는 제1건물지와 마찬가지로이며, 기단토 역시 제1건물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공산성 추정왕궁지 제1건물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 화면에 항목이 있음)
- 풍납동토성 관련자료는 누락
- 오·탈자 및 도면 수정 : 부여 관북리유적 E지구 샘터 - 개요 및 상세보기 내용 오자 및 도면의 경우 샘터가 아닌 관북리 왕궁지유적 전체 발굴조사 도면을 싣고 있어 샘터의 유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 도면보기 : 유적의 항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면을 싣고 있는 경우(부여 관북리유적 E지구건물지, F지구 건물지, D지구 건물지 등), 도면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아 자료로 이용하기에 어려우며, 유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면을 싣도록 하는 것이 필요.

나. 사원건축유적(37)

- 유적별·지역별 배열이 필요 - ‘미륵사지’의 경우 관련 항목 가운데 맨 앞에 위치되어야 함)
- 사진자료의 오류 - ‘미륵사지 동원탑지’의 사진자료(현재 실린 것은 중원 석등대석임)
- 내용상의 오류 수정 : ‘성주사지’ 창건연대 - 무왕대(599~600) 창건으로 되어 있는데, 해왕~법왕대로 비정되고 있음. 따라서 초창 및 중창(847년)을 구분하여 설명.
- 정림사지 관련 항목(4개) : 도면·사진자료 등이 모두 누락됨, 중요성에 비추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동남리사지 : 개요 보완(1938년 조사사실만 언급, 1993~1994년도 조사사실 보완)

다. 일반건축유적(807)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음.
- 항목의 재분류 - 포천 성동리유적 구연부편 1, 당하리유적 평저호 17항목(백제의 공예-토기공예-생활유적으로 분류)
- 주거지의 경우 원삼국시대로 분류되고 있는 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 - 마한시대로 비정되는 유적은 포함해도 무방.
- 논산 정지리 백제취락지의 경우 저장공까지 모두 포함시켜 항목으로 분류, 총 335개 항목으로 41.5%를 차지, 그러나 아직 정식 보고서가 미간행된 상태로 유구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개별 유구를 모두 각각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임, 이 경우 앞으로 발굴조사의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유구만을 선별하여 항목분류를 하던가 아니면 유적별로 항목을 분류하여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 항목의 중복 : 항목 가운데 ‘용인 수지 수혈주거지’와 ‘용인 수지 1지점 1호 주거지’는 같은 주거지로 중복되어 있음.
- 특정유적의 편중현상 : 미사리유적 89, 대곡리유적 65, 광주 쌍촌동유적 79, 정지리유적 335 등 4개 유적에서 583항목(70%)을 차지하여 일부 유적에 편중됨.

- 유적 또는 유구에 대한 설명이 너무 소략하다. 유적 또는 유구 등의 성격 · 의의 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단양 수양개유적 5개 항목 : 기원전 1세기전후 즉, 철기시대유적으로 백제시대와 무관한 유적이므로 삭제
- 공주 백제왕궁지(추정) : 궁궐건축유적으로 분류

라. 원지(10)

- 대통사지 석연지 : 원지에서 다루기에 부적합(백제의 공예-기타공예-석재에서 다루어야 함)
- 부여 관북리정지, 부여 구아리정지 : 우물이므로 일반건축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의 보완 : 궁남지(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1999년에 『궁남지』라는 보고서가 간행되어 있으나 다른 자료를 수록)

<백제의 산업>

백제의 산업은 농기구 · 어로구 · 상업 및 무역용구 · 요지 · 제철로 · 전장구 등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기구와 전장구가 대부분의 항목을 차지하고 있어 내용의 업데이트시 각 부분별 항목의 안배가 필요하다.

* 개설내용

- 개설내용은 각 부분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오 · 탈자의 수정이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 백제의 산업 가운데 어로구 · 제철로에 대한 개설내용은 없음 - 보완이 필요

가. 농기구(224)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되어있지 않음.
- 유적의 중복(하봉리유적 출토 철준)
- 각각의 유물을 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수량면에서 너무 많음. 따라서 특징적이거나 완제품, 또는 유적별 관련 출토품을 일괄적으로 항목분류하는 등의 일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
- 유물에 대한 설명이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음.

- 상세설명이 없는 경우 화면에서 ‘자세히’ 삭제 : 익산 기양리 출토 철부편, 익산 이양리 출토 철부, 부소산성 출토 철검 2항목, 신봉동출토품 등 다수.
- 항목 명칭의 통일 : 전남 광주시 출토 낫자루 등 3항목 → 신창동 출토 유물로 출토지를 병기(팽이, 낫자루 등의 명칭도 마찬가지로 임)

나. 어로구(44)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고남리패총유물이 29건(66%) 차지, 단일유적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음.
- 항목의 재분류 : 고남리패총의 유적에 대한 설명 항목이 14개나 되며, 간돌살촉(마제석촉) 11개 항목, 화덕자리 등에 대한 설명도 4항목이나 됨. 따라서 어로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
- 부산시 영도구의 동삼동패총 유물도 포함(6항목, 14%)-백제와 무관하므로 삭제.

예시)

분류 항목	소 재 지
타제침두기(打製尖頭器)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
마제골촉(磨製骨鏃)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
마제골침기(磨製骨尖器)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
골제품(骨制品)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

다. 상업 및 무역용구(33)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산업과 관련하여 용구를 설명하면서 모두 중국에서 전래된 물품, 즉 교역물품만을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이 항목들은 ‘교역물품’ 등의 목차를 별도로 만들어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굳이 이 부분에 포함시키려면 백제에서 다른 지역과 교역한 물품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다른 분야와 중복된 항목의 재분류 :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몽촌토성, 공주 무령왕릉, 익산 왕궁리유적, 입점리고분(청자사이호 출토), 부소산성 등 유적에 대한 설명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 이들 유적은 이미 다른 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있으므로 이 곳에서 다시 항목으로 분류하면 안됨.
- 자료의 보완 : 사진자료의 누락이 많음.

라. 요지(104)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특정유적에 편중됨(정암리유적 49(47%), 진천 산수리유적 9, 진천 삼룡리 11(10.5%)-총 66% 차지) - 유적의 안배가 필요.
- 동일유적에 대한 설명 : 정암리유적 B-6호 요지 등은 연소실·아궁이·소성실·연도, 해남 군곡리 토기요지는 출입시설·아궁이·소성실·굴뚝 등 각 부분별로 항목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목배열시 서로 떨어져 있으며, 진천 산수리유적 등은 '87-1호 요지' 등 유구 전체를 한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적 또는 유구의 설명에 있어서 획일적인 기준이 없다. 항목설정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한 유구는 상세설명에서 통합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도면은 '해남 군곡리 토기요지의 경우 1항목에만 수록되고 있다.
- 정암리요지 : 개요와 '상세보기'의 설명내용에 큰 차이가 없음. '상세보기'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유적·유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마. 제철로(108)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상당부분의 유적이 최종보고서가 아닌 중간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진천 석장리유적 등)
- 특정 유적에 편중(석장리유적 35항목(32%), 충주 이류면 33항목(31%) 등)
- '제철로'이면서 각종 출토유물에 대한 항목이 있음(철부, 철정, 철도자, 철검, 쇠망치 등), 이러한 유물은 '무기류' 또는 '백제의 공예-공구' 등의 항목에서 다루어져야 함.
- 충주 완오리 야철유적 불명석렬 : 도면보기에 유적에서 출토된 자기의 도면만 있고, 유적에 대한 도면은 없음, 자기의 경우에도 설명이 없어 자료로서의 의미가 없음 - 보완 필요.
- 철지도 : 백제의 공예-금속공예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미 항목으로 분류되어 설명되고 있음. 따라서 이곳에서는 삭제.

바. 전장구

○ 무기류(971)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용어의 통일이 필요(철제낫 또는 철검, 철부 또는 도끼, 철도자 또는 철손칼, 쇠살촉 또는 철촉)-가급적 한글식 용어 사용이 바람직.
- 특정유적에 편중(신봉동유적 281항목 29% 차지) - 유적의 안배가 필요.
- 천안 청당동 출토 환두대도 : 개요와 '상세보기'의 설명이 거의 비슷함.
- 신봉동 출토 석촉 : 모두 68항목이며, 명칭도 철촉·살촉·쇠살촉·화살촉 등 다양함 -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며, 비슷한 항목은 통합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

○ 마구류(116)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유물명칭의 문제 : '격포리출토' 등 유물명칭 일부 누락, 명칭의 통일이 필요 - 발걸이 또는 등자(발걸이로 통일), 마함 또는 말재갈(말재갈로 통일), 용어가 한자식과 한글식 모두가 사용될 경우 가급적 한글식으로 사용.
- 유물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상세보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내용을 보완하던지 아니면 생략.
- 교구류는 금속공예-장신구로 분류

○ 기타(1)

- 몽촌토성 출토 골제칼 : 설명카드에 누락된 항목이 많음(출토지와 참고자료만 있음) - 내용의 보완이 필요.

<백제의 공예>

백제의 공예는 토기공예·와전공예·금속공예·기타공예로 구분되어 있다. 백제의 공예는 본 사이트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며, 이 가운데 토기공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분량(항목)이 많은 것에 비해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이 부분이 기여하고 있는 바는 그리 크지 않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항목의 설정과 내용 추가시에 새로운 항목분류 방법을 필요로 한다.

① 항목이 유물의 파편(구연부·저부·파수·동체부편 등)에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출토지를 알 수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남겨놓지 말고 ‘출토지 미상’으로 기록해야 한다.

*** 개설표내용**

- 오·탈자 및 문장 구성상의 문제 수정·보완.
- 토기공예·와전공예·금속공예·기타공예로 분류되어 있는데, 금속공예에 대한 개설표내용만 서술되어 있으므로 다른 항목들에 대한 개설표내용의 보완이 필요.

가. 토기공예

○ 고분유적(3,966)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토기편 등도 모두 1항목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음. 따라서 중요유물만 항목으로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유적별로 항목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 특히 각각의 토기 및 토기편 등을 항목으로 설정할 경우 발굴조사의 증가로 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 문제가 있음.
- 항목의 중복 : 광주 쌍촌동 출토 구연부 3항목 - 삭제
- 신봉동출토 파수부잔 : 사진자료가 다름.
- 사진 및 도면자료가 빠진 부분의 보완이 필요 : 고고자료의 경우 설명만으로 자료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진 또는 도면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생활유적(4,421)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토기편 등도 모두 1항목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렇게 되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음. 따라서 중요유물만 넣을 것인지 아니면 유적별로 항목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 특히 각각의 토기 및 토기편 등을 항목으로 설정할 경우 발굴조사의 증가로 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 문제가 있음.
- 항목의 재분류 : 각 지역 출토 벼루는 기타공예-토제로 분류(익산 왕궁리유

적 출토 벼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벼루,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도연, 정립사지 연지 출토 도연, 익산 왕궁리유적 출토 벼루, 미륵사지 출토 도연 2항목 등)

· 오·탈자의 수정 : 유물명 및 출토지 오류 - 부여 왕궁리유적 출토 기대 2항목, 연봉, 원관형토제품 등→부여가 아니라 익산 왕궁리유적이다. 따라서 출토지는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43번지 일대로 수정, 양장리유적 출토 백자편→박자편, 죽모동 제사유적→죽막동 제사유적

· 사진 및 도면의 불일치 : 왕궁리유적 출토 기대(왕궁리유적 성벽출토) - 도면이 다름.

○ 관방유적(1,505)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토기편 등이 많은 항목을 차지 : 계족산성 출토 토기편 39항목, 설봉산성 출토 파수 11항목 등 유물의 특징이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파편들까지 항목으로 분류함으로써 내용의 양만 많이 차지하므로 장기적으로는 특징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 것이 필요.

· 항목의 재분류 : 송국리유적출토 자배기(3)(생활유적), 신봉동고분군 109호 출토 발, 108호 출토 단경소호(고분유적), 부여 부소산성 나지구 출토 토제벼루편, 벼루 등(기타공예-토제)

· 공산성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성격문제(생활유적 또는 관방유적) - 성안에서 출토되었을 지라도 왕성 등의 경우 건물지 등 생활유적과 관련이 있는 유적에서 출토된 경우에는 생활유적에 포함시켜야 함.

· 항목 및 내용상의 오·탈자 수정 : 부여 삼층사 출토 토기편→부여 삼층사 출토 토기편, 공산성 장태지 출토 토기→장대지, 신금성 출토 호 or 옹→호 또는 옹, 부여 왕궁리유적 출토 두껍·개배·등잔 등 26항목의 명칭 및 출토지→익산 왕궁리유적 출토품이므로 항목명칭 및 출토지 수정이 필요함(출토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43번지 일대).

○ 기타유적(1,991)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분류기준의 모호 : 생활유적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토기파편까지 모두 항목 설정 :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삭제.

예시)

유 물 명	출 토 지	비 고
상무지구 출토 토기몸통부분(土器胴體部)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쌍촌동 · 유촌동 일대 상무지구	
상무지구 출토 토기몸통부분(土器胴體部)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쌍촌동 · 유촌동 일대 상무지구	
상무지구 출토 토기몸통부분(土器胴體部)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쌍촌동 · 유촌동 일대 상무지구	
상무지구 출토 토기몸통부분(土器胴體部)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 쌍촌동 · 유촌동 일대 상무지구	

· 출토지의 보완 : 총 1,991개 항목 가운데 출토지 미상이 341개 항목임. 출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토지 미상’으로 기록해야 함.

· 항목과 참고자료가 바뀐 경우의 문제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궁남지」, 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항목→부여 궁남지출토 이형토기편.

· 항목의 재분류 : 부여 궁남지출토 추형토제품, 군산 여망리 남전A유적 출토 토제원판(도면이 너무 작음), 정암리가마 출토 벼루, 부여 충화출토 벼루, 관북리 백제유적 출토 도연, 양지유적 출토 도지미, 공산성 백제추정왕궁지 출토 벼루, 금성산 조왕사지 벼루, 부여 왕궁리출토 벼루→기타공예-토제로 분류

· 내용의 수정 : 부여 왕궁리유적 출토 반 · 자배기 · 시루 등 45항목의 항목명칭 및 출토지-익산 왕궁리유적 출토품임(출토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43번지 일대).

예시)

항 목 명	소 재 지	비 고
부여 왕궁리 유적 출토 부형토기(釜形土器)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 왕궁리 유적 출토	
부여 왕궁리 유적 출토 개(蓋)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 왕궁리 유적 출토	
부여 왕궁리 유적 출토 자배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 왕궁리 유적 출토	
부여 왕궁리 유적 출토 대부완(臺附碗)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 왕궁리 유적 출토	
부여 왕궁리 유적 출토 대부완(臺附碗)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 왕궁리 유적 출토	
부여 왕궁리 유적 출토 개(蓋)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 왕궁리 유적 출토	

· 항목의 삭제 : 완주군 반교리출토 무문토기

나. 와전공예

○ 평기와(903)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유물에 대한 설명이 보고서의 해당부분만 발췌하여 서술함으로써 특징에 대한 설명이 잘 안됨.
- 명칭의 통일이 필요 : 암키와, 평기와, 수키와 등
- 출토 기와의 각각을 항목으로 분류함으로써 항목만 많이 차지 : 기와의 경우 개개의 기와에 대한 설명은 큰 의미가 없음(계족산성출토 암키와의 경우 33항목을 차지하고 있으나 모두 파편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특징적인 유물만 남기고 나머지 항목은 삭제.
- 사진 및 도면이 없는 항목 : 보완이 필요.
- 내용 수정 및 보완 : 왕궁리유적 출토 수키와 - 설명내용과 사진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사진자료는 수막새기와의이면서 설명은 인명와에 대한 것임), 28항목은 출토지 수정(출토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43번지 일대)
- 항목의 재분류 :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 출토 기와·수키와 67항목 - 대부분이 와당 즉, 막새기와임.
- 대부분의 항목이 공주·부여에 편중, 기타 익산·논산·연기·대전 등임. 이외의 지역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

○ 막새기와(538)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유물에 대한 설명이 보고서의 해당부분만 발췌하여 서술함으로써 유적과 유물과의 상관관계 등 특성에 대한 설명이 잘 안됨.
- 출토 기와의 각각을 항목으로 분류함으로써 항목만 많이 차지 - 기와의 경우 개개의 기와에 대한 설명은 큰 의미가 없음.
- 대부분의 항목이 공주·부여에 편중, 기타 익산·논산·연기·대전 등임. 이외의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상세설명’의 내용이 너무 빈약 - 구태여 ‘상세설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음. 따라서 상세설명을 보완하던가 아니면 생략.

○ 전(74)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출토지 보완 : 출토지가 기록되지 않은 항목이 많음. 미상인 것은 ‘출토지 미상’으로 표기
- 상세설명의 문제 : 외리유적 출토 산수귀문전(표의 개요가 10줄인데 ‘상세설명’은 2줄임)
- 출토지 수정 : 왕궁리유적 전 2항목(충남 부여→전북 익산)
- 항목의 재분류 : 부여박물관 소장 치미→장식기와, 공산성 지당출토 개배→토기공예-관방유적으로 분류.

○ 장식기와(84)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출토지 미상이 많음(74항목 중 16개 항목) - 보완이 필요.
- 출토지 수정 : 왕궁리유적 출토 치미 4항목(충남 부여→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 항목의 재분류 : 부여박물관 소장 상자형전→와전공예-전, 연산지방출토 파수부잔→토기공예-기타유적으로 분류

다. 금속공예

- 항목 분류상의 문제 : ‘장신구’와 ‘장식용구’, ‘기타 금속공예’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장신구’와 ‘기타 금속공예’로 구분하는 것이 좋음.

○ 장신구(202)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전문용어의 한자사용 문제 :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음.
- 항목의 중복 : 무령왕릉 금제소주 73점, 나주 신촌리 출토 금동식리(생활용품)-삭제.

○ 생활용품(91)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항목의 재분류 : 구아리유적 우물지출토 완, 광주신창동유적출토 구연부편, 광주신창동유적출토 파수(이상 토기), 미륵사지출토 요대금구(장신구), 청주 신봉동 출토 낚시바늘(백제의 산업-어로구), 무령왕릉 오수전(기타 금속공예), 부

여 관북리 백제유적 개원통보(백제의 산업-상업 및 무역용구)

○ 장묘구(7)

· 너무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내용을 작성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가급적 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

○ 공구(335)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특정 유적에 편중(청원 주성리유적 출토 꺾쇠 72, 관정 20 항목(27.5%) 차지)
 - 꺾쇠·관정 개개의 유물을 항목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경우 항목만 많이 차지할 뿐 각각의 유물이 가지는 의미나 특징은 미약, 특히 청원 주성리유적 출토 꺾쇠 72항목의 개요는 거의 비슷함 - 각 유적 출토품 가운데 특징적인 것만 항목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일괄로 다루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분류상의 문제 : 이천 설봉산성 가-9토광 출토 보습, 몽촌토성출토 철제 호미 및 쇠삽날→백제의 산업-농기구로 분류.
 - 항목명칭의 수정 : ‘군산 조촌동 출토’로만 표기(유물명칭이 없음). 12호분출토 관정 공주 웅진동→공주 웅진동 12호분 출토 관정, 익산군(현 익산시) 기양리출토 자물쇠편→익산 기양리출토 자물쇠편 등.

○ 장식용구(111)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다른 항목(장신구, 기타 금속공예 등)과 거의 구분이 안됨(부여 능산리출토 은제요대 후미장식, 청동과대금구, 무령왕릉 청동제 관고리, 부여 관북리출토 청동제순가락, 무령왕릉출토 동경 등)-장식용구 항목은 없애고, 장신구 또는 기타 금속공예로 분류하는 것이 좋음.

○ 기타 금속공예(84)

- 항목분류가 불분명(‘부소산성출토 금동용봉장식’의 경우-‘장식용구’ 항목이 있음에도 기타에 포함되어 있음)
- 항목의 재분류 : 무령왕릉출토 금제관장식, 철촉, 마구류 등이 모두 포함되

어 있어 재분류가 필요. 북암리 1호분 석실묘 연도출토 녹유탁잔→토기공예-고분유적.

- 항목 명칭의 문제 : ‘국립부여박물관소장’ 항목은 내용을 보면 경질토기에 대한 설명인데, 분류도 맞지 않고 항목도 불분명(삭제)

- 능산리 제5호출토 순금 화형식금구 : 개요 및 ‘상세보기’의 설명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분량도 비슷하여 ‘상세보기’의 의미가 없음(‘상세보기’의 보완이 필요)

라. 기타 공예

○ 석제(262)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용어의 통일 : 숫돌·지석(숫돌로 통일), 용범·거푸집(거푸집으로 통일) 등.
- 사진자료의 보완.
- 유물의 항목명이 불명확한 예 : (천안 대흥리유적 3호주거지) 석제(00135)-석도 반제품의 파편으로 추정.
- 항목의 중복 : 강동구 암사동유적 출토 인기(2항목), 부여 사택지적당탑비(4항목, 백제의 문자-비문으로 분류), 무령왕릉출토 지석(7항목), 석수(5항목) 등 중복
- 웅진성출토 초석 10항목 : 별다른 특징이 없는 항목은 일괄로 설명하는 것이 좋음.
- 백제시대 이외의 유물을 항목으로 분류 : 천안 대흥리유적 출토품 24항목(청동기시대 유적 출토 유물임)-삭제.
- 분류상의 문제 : 무안 사창리 1호 웅관출토 관옥, 무안 사창리 3호 출토 곡옥(‘옥’의 항목임), 산직리지석묘(청동기시대 묘제이므로 삭제), 무령왕릉(내용이 없으며, 삭제), 금강사지 기단(백제의 건축-사원건축유적에 분류), 부소산성 출토 토제품(토제), 청북마을 A유적(내용 없음, 삭제).

○ 토제(176)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분류상의 문제 : ‘어망추’는 어로구로 분류되어야 함(대전 월평동 D-112 어망추, 공산성 출토 어망추, 용인수지 출토 어망추, 몽촌토성 출토 어망추 3항목,

부소산성 출토 어망추 2항목 등), 익산 왕궁리유적 출토 중국청자(백제의 산업-상업 및 무역용구), 민락동 M-1호 주거지 용도미상의 석재(기타공예-석재), 천안 대흥리유적(청동기시대 유적이므로 삭제), 부여 동남리석조, 부여 관북리석조(석재)

· 오자의 수정 : 부안 죽모동유적→부안 죽막동유적, 왕궁과유적 출토 이형토제품→왕궁리유적 출토 이형토제품(출토지 수정), 부여 왕궁리 방추차 2항목(항목명칭 및 출토지 수정→익산 왕궁리)

○ 유리(125)

· (무령왕릉) 곡옥 · 관옥 등 3항목, (논산 모촌리 고분 1호분) 곡옥(옥에 분류)

○ 옥(101)

· 곡옥 1점씩을 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설명이 비슷, 따라서 출토지별로 일괄유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음.

· 참고자료의 문제 : 무령왕릉출토 유리제관옥의 참고자료로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조사연구보고서』(1996)를 제시→무령왕릉발굴조사보고서 등 발굴보고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전문가들이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내용 이외의 자료를 참고자료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오 · 탈자 수정 : 부안 죽모동 곡옥→부안 죽막동 곡옥.

○ 도제

· 내용 없음, 그리고 '토제'와 중복되므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좋음.

○ 목제(28)

· 분류상의 문제 : 제공되고 있는 항목 28점 가운데 12점은 토기편 등으로 목제품이 아님(몽촌토성 출토, 무령왕릉 출토 자기 등. 이 가운데 중국계 자기류는 '백제의 산업-상업 및 무역용구'로 분류).

· 항목의 중복 : 부안 양장리유적 출토 용도불명품(항목이 바로 이어져 있으면서 중복)

○ 기타공예(196)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용어가 너무 전문적임.
- 항목의 재분류 : 항목분류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음(토기류, 농기구, 무기류 등과 모두 중복되는 항목들임), 철부 70항목은 백제의 산업-농기구, 꺾쇠 · 관고리 · 관뿔은 백제의 공예-금속공예-공구로 분류, 몽촌토성 88-6패각, 신원리고분출토 곡물류, 구아리유적 북편 우물지출토 복숭아 씨앗의 경우→‘고고미술포함-기타 항목’이 필요.

<백제의 문자>

백제의 문자는 와전 · 금문 · 비문 · 묵서 · 불상 · 기타 문자로 구분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금문이 400항목이나 실제 금문은 3항목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인장와이다. 따라서 재분류가 필요하며, 특히 인장와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이 유사한 내용이므로 업데이트시에 항목의 분류기준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설내용이 없음 - 보완이 필요.

가. 와전(68)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항목의 명칭통일이 안됨(인장와, 인각와, 명문화, 인각명와편 등→인장와로 통일)
- 사진 및 도면 등이 누락된 항목의 보완 필요.

나. 금문(400)

금문(金文)이란 쇠붙이 등에 글씨를 새긴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질이 금속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재료가 금속이 아닌 유물은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항목의 재분류(인장와, 금동대향로 11항목, 연화문석조, 굽다리접시, 변기, 단지, 금제귀걸이, 흑치상지 · 흑치준 묘지명, 사택지적당탑비, 창왕명석조사리감 등이 모두 포함) - 실제 금속재료에 명문이 있는 것은 400항목 가운데 3항목에 불과(무령왕비 명문있는 팔찌, 부소산성 금동제 투조장식 명문, 철지도 등), 나

머지는 석문 또는 인장과, 문양, 공예품 등임.

다. 비문(5)

· 비문은 ‘비문(碑文) 및 석문(石文)’으로 분류해야 함 - 부여읍 묘지명, 무령왕릉 지석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문이 아님.

· 무령왕릉 왕비지석 누락

· 무령왕 지석의 경우 뒷면 원문은 누락됨.

· 정림사지 5층석탑 명문에 누락된 한자가 많음(엄밀한 의미에서 비문이 아님).

· 유인원기공비 참고자료 문제(군지를 참고자료로 기재-금석문 관련 자료나 전문학술서적을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라. 목서(3)

· 궁남지 및 왕궁지출토 목간 : 기타공예-목제와 중복

· 참고자료의 문제 : 궁남지출토 목간(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고고미술분야」 II,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조사연구보고서』 (1996) ; 부여군, 『백제의 고도 부여』, 1998을 참고자료로 제시. 그러나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궁남지』 (1999) 발굴조사 보고서가 이미 간행되어 있음, 발굴조사 보고서 및 학술서적을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불상(5)

· 금문에 분류된 항목과 일부 항목 중복.

· 사진자료의 보완이 필요, 개요의 출토유물이 목서와 동일하므로 수정.

· 불상의 보완이 필요 - 기축명아미타여래불보살석상,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이상 금문에 분류된 항목-원문보완이 필요), 계유명삼존천불비상, 무인명사면석상(이상 신규 보완자료)

바. 기타문자(1)

· 양직공도 백제조 - 백제관련 사료이지 ‘백제의 문자’에 포함될 항목이 아님.

· 참고자료의 문제(유원재,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1996. 이도학, 『새로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 원사료 관련자료 제시가 필요)

<백제의 문양>

백제의 문양은 인물문·동/식물문·산수문·복합문으로 분류되어 있다. 항목은 이들 문양이 나타나 있는 각각의 유물을 가지고 분류하였다.

* 개설내용

문양이 지니는 일반적 특징과 함께 백제문양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다만 백제문양의 시대별 변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 문장상의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
- 한글병용 : 본 사이트의 이용자가 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해 일반인까지 다양하므로 반드시 한글과 한자를 병용해야 함.
- 유물의 개요 및 상세보기 등에서 유물의 출토지점 및 현재 수장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가. 인물문(21)

- 오·탈자 수정(금동대향로 진악선인상 등 5항목→주악선인상)
- 항목의 명칭 보완(금동대향로 낚시하는 인물상을 설명하면서 명칭은 ‘금동대향로’라고만 붙임)
- 금동대향로 황웅(동/식물문에 분류되어야 함)
- 참고자료의 문제(가급적 발굴조사보고서 등 직접적인 관련자료를 제시)
- 개요의 설명 보완이 필요.
- 항목의 재분류 : 부여 왕궁지출토 인면문토기편 - 기하문에 분류되어 있음.

나. 동/식물문(47)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부여 외리출토 산수봉황문전, 반룡문전, 봉황문전 등이 빠짐.
- 금동대향로 관련 항목의 참고자료 보완.
- 석수 : 기타공예(석재)에서 이미 설명되고 있음(삭제).

다. 산수문(2)

- 금동대향로, 금동대향로 비운문 2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 항목은 내

용상 중복된 것으로 1항목으로 합해서 설명해야 함.

- '금동대향로' 설명에 용문과 운문에 대한 설명만 있음, 그러나 향로 자체가 산(봉래산)의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향로 전체의 형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부여 외리출토 산수산경문전, 산경귀형문전 등이 빠짐.

라. 기하문(46)

- 유적별, 지역별 분류가 필요.
- 금동보살입상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불상편에서 다루어야 함)
- 기마인물상(금동대향로) : 인물상과 중복됨(설명카드의 문양에는 인물상으로 기록)
- 기하문의 경우 문양별로 항목을 분류한 후에 관련유물 등은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각종 토기 및 금은세공품 등의 경우 백제의 공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물을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남.
- 금동대향로 인면조비신상 : 문양에서 동물문으로 기록, 따라서 동/식물문으로 분류해야 함.
- 인면문토기편 - 인물문으로 분류해야 함.
- 토우 : 인물문으로 분류

마. 복합문(43)

- 금동대향로 중복, 연화문수막새 등도 기와편에서 다루어야 함.
- 백호도-회화부문에서 다루어야 함. 미술·회화 등에 대한 항목이 없으므로 기타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음.
- 항목분류를 유물 중심이 아닌 문양 중심으로 해야 함(삼각형문, 초문, 능형문 등) - 다만 분류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재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 기타항목의 설정과 분류 : 백호도·현무도·주작도·청룡도 등(공주 송산리 6호분 四神圖)

<백제의 복식>

백제의 복식은 왕족의 복식·귀족의 복식·일반인복식·관련유물·문헌사

료·기타 복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헌사료는 문헌정보통계분야의 백제사료집성-문화-복식의 내용과 중복되는 항목이므로 생략해야 한다.

*** 개설향용**

- 오·탈자의 수정·보완, 내용 및 문장상의 문제 보완.
- ‘백제의 복식’ 개설향용은 ‘백제의 생활 - 의생활’과 중복되는 부분임. 따라서 ‘백제의 복식’ 부분에서는 출토유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의생활 부분과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가. 왕족의 복식(1)

- 『삼국사기』 기록 등 왕족복식 관련 개설향용 보다 충실하게 보완.

나. 귀족의 복식(1)

- 문헌기록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양직공도」의 백제사신 모습 활용.

다. 일반인복식(1)

- 참고자료의 보완

라. 관련유물(8)

- 참고자료의 보완(정림사지출토 도용-정림사지발굴조사보고서)

마. 문헌사료(14)

- 상세설명에 원문만 기록하고 있는데, 해석도 실어야 일반인 또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이 부분은 문헌정보통계분야의 백제사료집성-문화-복식의 내용과 중복되는 항목이므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서로 비교·보완한 후에 이곳에서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바. 기타 복식(7)

[문헌정보 통계분야]

문헌정보통계분야는 연표로 본 백제사·백제사료집성·백제사연구도서목록·백제유적 조사연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백제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내용에 있어서 정확성과 체계성을 필요로 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연표로 본 백제사>

연표로 본 백제사는 시간별 흐름에 따라 백제사를 주변국의 정치상황과 관련시켜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① 백제사가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백제사 관련 사건내용의 칸을 확대하고, 중국사서 및 『일본서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신라본기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좀더 보충. 그리고 동아시아정세 부분을 간략화할 필요가 있음.

② 내용상의 오류 : 수정·보완(근초고왕 15년 - 『서기』 1권 편찬, 이 사실은 근초고왕 사망이후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음, 따라서 근초고왕대 『서기』를 편찬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임)

<백제사료집성(1,386)>

백제사료집성은 원류기사·대외관계·문화·인물·지리·정치/제도·군사·기타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서는 백제의 역사·문화 관련 기초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만큼 자료에 있어 정확성을 필요로 하며, 특히 한자의 경우 誤字가 없어야 한다. 일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항목의 순서가 불규칙, 시대순으로 항목을 배열. 그리고 가급적 출전자료별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

② 사료 항목의 순서는 국내사서(『삼국사기』 - 『삼국유사』 등) - 중국사서 - 일본사서(『일본서기』, 『고사기』) 등의 순서로 하여 시대순으로 배열.

③ 오·탈자의 수정·보완, 특히 사람 이름과 관련된 부분의 오자가 많음(도사염→요사렴, 구당수→구양수, 영과덕분→영고덕분, 『三國遺史』→『三國遺事』, 『南濟書』→『南齊書』 등).

④ 『일본서기』 등 일본측 사료의 항목에서 ‘○○천황’으로 기록한 부분은 ‘○○紀’ 또는 ‘○○ ○년’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음(예 : 서명천황 → 서명기 또는 서명 2년 등) - 항목을 통해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 ○년’으로 하는 것이 좋음.⁶⁾ 특히 『일본서기』의 내용은 일본의 입장에서 서술하였기 때문에 비록 백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내의 상황을 기술한 내용은 참고자료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백제사에 적용시킬 경우 역사왜곡의 논쟁에 빠질 염려가 있으므로 사료분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원류기사(63)

○출자(19)

○시조(23)

· 이 부분은 백제의 시조에 대한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서기』 권제19 흠명천황조 등 사료 13항목은 백제 시조와는 무관하며, 일본내 특정 姓氏의 시조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류기사-시조’에서 제외시키고 ‘기타-도래’에서 다루어야 함.

· 항목의 중복 : 『고사기축사』 중권 응신천황, 암파서적간행 - 4번 중복

· 연대 뒤에 왕력을 보완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좋음.

○위치(21)

나. 대외관계(299)

○조공(102)

· 일본과의 관계를 대부분 조공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 서술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항목을 ‘조공’이 아닌 ‘외교’로 바꾸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백제의 입장에서는 ‘조공’의 형태를 띤 ‘외교’였으므로 ‘외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오·탈자 수정 : 『일본서기』 흠명기 권제19 흠명기(護德己婁→護德己州己婁,

6) 다만 본 내용에서는 분류된 항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관계로 사이트에 명시된 항목명을 그대로 轉載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妃→奴)

○ 봉책(43)

· 『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등 3항목은 봉책기사로 보기 어렵다. ‘대외관계-기타’ 항목을 추가로 설정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청구(44)

○ 회맹(5)

○ 견사(91)

· ‘조공’ 항목과 일부 내용상 중복

· 오·탈자 수정 : 『삼국사기』 권제25 백제본기 제3 문주왕→『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문주왕

○ 우호(14)

·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 : 책을 설치, 낙랑과의 통로를 막았다는 기록으로 우호와는 관계없음. ‘문화-축성’으로 분류

다. 문화(257)

○ 제사/신앙(65)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관련 14항목은 일본내의 사정에 대한 기록이므로 ‘대외관계-문화’ 항목을 추가로 설정하여 분류.

○ 복식(29)

○ 예속(46)

· 오·탈자 수정 : 『일본서기』 권제11 인덕천황(마을 처→망을 처)

○ 학술/의술(14)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관련자료 4항목은 ‘대외관계-문화’ 항목으로 분류

○ 건축(22)

· 오·탈자 수정 : 『삼국지』 권30 위지동이전(‘形如冢’의 冢 공란이며, ‘學家共在中’에서 擧(들거, 모두거)를 ‘받들봉’으로 함)

· 항목의 재분류 : 『고사기축사』 및 『일본서기』 관련 4항목은 백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대외관계-기타’ 항목으로 분류.

○ 축성(26)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권제10 응신천황→‘대외관계-기타’
『일본서기』 권제27 천지천황→‘군사-부흥운동’

○ 병기/약기(7)

○ 언어(6)

○ 설화/전설(5)

- 항목의 삭제 : 『일본서기』 권제19 흠명천황-백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

○ 음악(2)

○ 연회(9)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관련 6항목→‘대외관계-우호’(일본내의 상황을 기록한 것임)

라. 인물(283)

○ 왕/왕족/왕계(155)

- 오 · 탈자의 수정 : 『일본서기』 권제19 흠명천황-록기탄→탁기탄

『일본서기』 권제14 웅략천황-使王其國→‘기’ 삭제

『일본서기』 권제24 황국천황-馳驛秦曰→馳驛奏曰(진상하

였다→아뢰었다)

○ 신하(95)

- 오 · 탈자 수정 :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태종춘추공-座平 · 左平→佐平, 갖혀서병나죽을유→과리할수(瘦), 基鋒不可當也→其鋒不可當也

『삼국사기』 권제24 백제본기 제2 근초고왕-朝廷左平→朝廷佐平

○ 기타 인물(33)

- 항목의 재분류 : 『삼국지』 권30 위지동이전 3항목-특정 인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으로 ‘문화-예속’으로 분류

- 내용 정리 : 『한원』 권1 번이부 백제-관련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핵심내용만 남기고 모두 삭제

마. 지리(171)

○ 토양/기후(42)

- 오 · 탈자 수정 : 『한원』 권1 번이부 백제(닭계→鷄)

○ 도서(9)

- 항목의 삭제 : 『일본서기』 권제16 무열천황- ‘인물-왕/왕족/왕계’와 중복, 무령왕 관련자료이므로 삭제

○영역(36)

· 오·탈자 수정 : 『일본서기』 권제19 흠명천황-부탁할 탁→𪛗, 아첨할영→佞, 찢을 휘→撻, 멋대로 천→擅, 살필찰→察, 六月조去→六月逃(도)去, 陰構姦心→陰構姦心, 臣國孤危→任那若滅 臣國孤危 등.

○산업(28)

○행정(46)

○지명(10)

· 항목의 삭제 : 『일본서기』 권제23 서명천황, 『일본서기』 권제28 천무천황 (일본측의 사정을 기록한 것이므로 항목을 삭제)

바. 정치/제도(135)

○지방제도(24)

· 항목의 삭제 : 『고사기축사』 중권 신공황후(왜가 백제를 직할지로 삼았다는 신화적인 내용으로 백제와 관계없음)

○관제(39)

○세법(6)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권제29 천무천황(대외관계-기타)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문주왕(지방제도)
『구당서』동이 백제전(형법)

○형법(11)

○역법(6)

○구휼(7)

· 오·탈자 수정 : 『삼국사기』 권제24 백제본기 제2 비류왕(基→其)

○책봉(8)

· 오·탈자 수정 : 책봉인데 ‘책봉’으로 기록.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권24 황극천황,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일본서기』 권30 지통천황, 『일본서기』 권 27 천지천황, 『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등 5항목은 왜국에서 백제인에게 관작을 준 기록이므로 ‘대외관계-기타’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임).

○도성제(34)

· 항목의 중복 : 『한원』 권1 번이부 백제→지방제도에 분류됨, 삭제.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권제19 흠명천황→‘대외관계-건사’

사. 군사(155)

○ 전쟁(111)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권제22 추고천황→‘대외관계-건사’
『일본서기』 권제27 천지천황 2년조 3항목→‘부흥운동’
- 내용 보완 : 『일본서기』 권제27 천지천황→‘해석참고’ 내용 보완.

○ 사냥/순행(14)

○ 부흥운동(9)

- 자료의 보완 : 『삼국사기』 의자왕조만 포함, 『일본서기』가 대부분을 차지, 신라측 기록, 기타 금석문, 중국측 기록 등은 제외됨(부흥운동은 ‘군사’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목차로 처리하는 것이 좋음).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권제19 흠명천황의 5항목은 백제부흥운동이 아니라 가야 부흥과 관련된 것으로 ‘대외관계-건사’에서 다루어야 함.

○ 패망(9)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권제14 웅락천황 2항목(한성함락 관련 기록이므로 ‘군사-전쟁’으로 분류)
『삼국사기』 권제28 백제본기 제6 의자왕(원문에 ‘堦’를 (흠토+다개)로 표시, ‘堦’는 ‘階’와 같은 자로 쓰였으므로 둘 중에 가능한 자를 쓰면 됨).

○ 군사제도(12)

- ‘군사제도’라고 하면 ‘정치/제도’와 중복되므로 ‘군사제도’→‘기타’로 변경.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권제19 흠명천황(군사제도와 무관, 삭제)
『삼국사기』 권제25 백제본기 제3 진사왕, 『삼국사기』 권제25 백제본기 제3 전지왕,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온조왕, 『삼국사기』 권제26 백제본기 제4 무령왕 등 4항목은 ‘문화-축성’에서 다루어야 함.
『고사기축사』 중권 응신천황(군사제도와 무관, ‘대외관계-청구’에서 다루어야 함)

아. 기타(49)

○ 이탈(7)

○ 귀순(귀화)(12)

· 항목의 재분류 : 귀순과 도래의 성격이 불분명, 백제의 입장에서 기술해야 하므로 『일본서기』의 자료 10항목은 ‘도래’로 분류하여야 함.

○ 화제(5)

· 항목의 삭제

『삼국유사』 권제1 기이제1 태종춘추공 2항목(화제와 관련없는 내용)

『일본서기』 권제24 황극천황(일본내의 사건으로 백제사와 무관)

○ 질병(5)

○ 이변(14)

○ 인구(1)

· 누락된 내용의 보완 - 『구당서』 동이전 백제조(統郡三十七 城二百 戶七十六萬), 『신당서』 동이전 백제조(三十七郡 二百城 戶七十六萬), <정림사지탑비명>(凡置五都督 三十七州 二百五十縣 戶二十四萬 口六百二十萬) 등

○ 도래(5)

· 항목의 재분류 : 『일본서기』 권제10 응신천황→‘대외관계-문화’로 분류

<백제사연구도서목록(1,984)>

백제사연구도서목록은 연구보고서·논문·단행본·정기간행물·도록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곳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가. 연구보고서(429)

· 백제관련 이외의 보고서 삭제 :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 구의동-토기류에 대한 고찰-, 이성산성, 이성산성 4·5차 발굴조사보고서, 마곡사대웅전 실측조사보고서, 성남 태평동지석묘 발굴조사보고서, 철강문명발달사연구보고서, 금산 장대리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단 백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고서는 수록).

· 유적의 성격·지역별·가나다순 등의 분류기준이 필요 - 주제별로 분류(성곽·고분·주거지·사찰지·기타) 후에 지역별, 가나다순(발행기관, 또는 저자)으로 분류를 병행.

· 목록의 재분류 : 약보고서 및 각종 지표조사보고서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약보고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좋으며, 지표조사보고서 중에서도 백제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논문(403)

· 주제별 분류(일반/정치·경제/사회·문화/고고/미술/기타) 후 가나다순(저자)으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함.

· 항목의 재분류 : 발굴조사보고서에 실린 부분도 논문 항목으로 분류되어 중복됨.

다. 단행본(182)

· 가나다순(저자)으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함.

· 중복된 항목 삭제 : 문정창, 『백제사』 중복(3번)

· 목록의 재분류 : 단행본에 논문명이 항목으로 분류된 예가 있음(12건)

라. 정기간행물(915)

· 가나다순(발행기관)으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함.

· 정기간행물의 잡지명을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논문명을 항목으로 분류하여 ‘논문’과 중복되는 현상 초래.

· 오·탈자 및 중복 수정 : 광개토대왕릉의 백제와 왜(武田辛男→武田幸男)

백제사비도성 삼치구→백제사비도성 삼작

4세기 백제의 인구와 주민구성(목록의 중복)

마. 도록(55)

· 가나다순(발행기관)으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함.

· 항목에서 저자의 빠진 부분 보완 : 저자 또는 발행기관명 기재.

<백제유적 조사연표(347)>

백제유적 조사연표는 1913년부터 1999년까지 조사된 347건의 발굴조사 내역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23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1999년 이후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① 항목에 대한 설명이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전재함으로써 조사유적이거나 성격·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안됨(내용이 너무 형식적인 경우가 있음)

예시) 공주 공산성

공산성은 주외면 금성리에 위치하고 있다. 백제시대의 웅진으로서 남아있던 성을 조선시대에 크게 수축하였다.
백제시대 수축된 것을 알수 있는 성벽의 일부가 지금의 동북성벽 바깥에 존재한다.

발굴년도 1917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조사기관 조선총독부

참고자료 조선총독부 편, 『대정 6년도 고적조사보고서』, 1920.

② 발굴조사된 유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굴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제4장 결 과

이 연구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자료의 체재와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보안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자료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의 백제사 연구성과를 토대로 문헌 및 발굴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방법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자료와 비교·검토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발생 원인

① 전체 체재 및 내용구성에 대한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부재 - 관련 전공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적인 사이트 구성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

② 자문시 사이트 구축내용의 활자화를 통한 자문이 이루어지지 못함 - 사이트 구축내용을 활자화하여 직접적으로 관련 전공자로부터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지지 못함, 즉 형식적 자문에 그침.

③ 구축자료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상호 비교·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④ 본 사이트의 내용 관리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관련 전담

부서의 부제.

2) 일반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 체제구성상의 문제

가. 「역사일반분야」의 체제는 백제의 성립·성장·변천·쇠퇴·부흥운동 등 백제 전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백제의 부흥운동(발발/전개/쇠퇴)’이 보완되어야 하며, 백제문화의 대외전파 특히 백제문화의 일본전파 등은 백제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민속학분야」에 ‘백제문화의 대외전파’에 대한 목차 및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나. 「고고미술분야」와 「민속학분야」의 순서 조정.

다. 「민속학분야」는 「문화일반분야」로 목차를 변경하여 「역사일반분야」와 대응시키는 것이 필요.

라. 「고고미술분야」의 ‘백제의 불교문화’는 ‘백제의 불교미술→석조물·불상·금속제품’으로 재구성.

② 각 분야별 소주제의 선정 및 명칭 문제 - 예를 들어 백제의 제도 중 ‘22부와 22담로’ 부분에서 22부는 중앙관서이고 22담로는 지방통치제도로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시기적으로 관계설정이 어려움. 따라서 ‘중앙행정제도’와 ‘지방통치조직’으로 나누어 설명, 6좌평제의 보완(‘6좌평과 22부’, ‘담로제’로 구분).

③ 내용상의 문제(내용의 질) - 내용의 수준은 일반인·학생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함.

④ 오·탈자의 문제 - 전담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⑤ 용어사용상의 문제 - 전담관리부서에서 문제점을 찾아 관련 전공자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

⑥ 내용 중복의 문제 - 전담관리부서에서 확인하여 수정.

⑦ 용어의 통일, 명칭의 확실성 부족 - 전담관리부서에서 확인하여 일반적 원칙에 준해서 수정·보완.

⑧ 내용이 너무 일반적인 성격에 국한되는 예가 있음 - 전담관리부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보완.

⑨ 왕의 재위기간 및 연도 표시.

⑩ 내용은 가급적 객관적·사실적인 표기법으로 서술(가급적 명확하게 표기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추측하여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⑪ 한자식 용어는 가급적 한글식 용어로 변환하여 사용(전문용어·고유명사 등은 예외)

⑫ 내용은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서술하며, 부정적인 서술은 지양.

⑬ 개설내용은 백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타 참고내용으로 보완.

3) 각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역사일반분야

① 용어상의 문제 - 내용상 용어가 부적절한 예가 있음(예 : 유민→남하세력)

② 단락구분문제 - 줄바꿈 또는 단락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수정·보완.

③ 연도표기시 왕의 재위연도 표시가 안됨 - 일반인들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왕의 재위연도 및 기년 등을 병기하는 것이 필요.

④ 가급적 일반화된 내용의 서술이 필요 - 현재 정설로 확립되지 않은 내용

을 일반화시켜 설명하거나 또는 추정, 생각 등을 기술한 예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백제사개관’에서 백제의 성장·발전과정에 대한 설명 보완.

(2) 고고미술분야

① 항목분류상의 문제 - 항목분류가 유적별 또는 지역별로 되어있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따라서 항목을 유적별·지역별로 구분해야 함.

② 참고자료상의 문제 - 발굴보고서 등 직접적인 참고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자료나 또는 관계가 적은 자료를 제시한 경우가 많음, 이는 전문가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따라서 유적 또는 유물의 경우 발굴보고서 또는 각종 조사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참고자료로 제시하여야 함. 나아가서 이들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연구자 및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역할까지 담당하여야 함.

③ 항목 개요 설명상의 문제 - 각 개별 유적 또는 유물설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유적·유물과 설명내용이 중복 또는 연계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한 자료의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설명이 미약하므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함.

④ 너무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 - 내용 설명시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가급적 알기쉬운 한글식 용어를 사용.

⑤ 사진 및 도면의 보완 - 고고미술자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물자료의 제시라는 점에서 사진 또는 도면의 제시는 반드시 필요하며, 축척도 제시.

⑥ 백제의 공예 - 토기공예의 경우 토기파편 등도 모두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나 너무 자료의 양이 방대하며, 앞으로 발굴조사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에서 실

질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유적·유물까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실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 즉, 유물의 경우 중요유물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유형별로 나누어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항목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업데이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용. 다만 현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 와전공예도 마찬가지로 임. ‘기타공예’에서 유리와 옥은 그 분류가 불명확하므로 한 항목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임(유리/옥).

⑦ 원삼국시대 유적·유물의 항목분류에 대한 문제 - 백제사 또는 백제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할 것임.

⑧ 발굴자료 항목설정상의 문제 - 각 유적에서 출토된 모든 자료를 각각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분류함으로써 분야에 따라서는 항목의 양이 너무 방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추후 내용의 업데이트 시에는 각 유적별 중요 유구·유물에 한정하여 항목으로 분류·설정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민속학분야

① 항목명칭의 변경

- ‘백제의 예술’ 가운데 ‘백제미술의 특징’은 ‘백제예술의 특징’으로 변경.
- ‘백제의 생활에서’ ‘성명’은 ‘신분제’로 목차를 변경하고 내용 보완.

② 항목의 재분류

- ‘백제의 생활-백제인의 악기와 무용’은 ‘백제의 예술’로 분류하고, ‘백제의 예술’ 부분에 ‘문학’ 등의 내용을 보완.
- ‘백제의 생활-예절’은 ‘백제의 관혼상제’와 중복되므로 생략.

③ 개설내용의 보완 : 개설의 경우 당시의 일반적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사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내용을 구성.

④ ‘백제의 인물’의 내용 보완 - 특정 인물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관련 설화 및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완.

(4) 문헌정보통계분야

① 각종 자료의 경우 주제별과 가나다순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자료제공에 있어서 찾기 쉽도록 항목배열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백제사 연구도서목록 가운데 논문의 경우에는 자료가 방대하므로 주제별-가나다순(저자)으로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이용자가 찾기 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자유게시판에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질문과 참고자료에 대한 문의가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② 목록에 제시된 자료는 모두 수집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 자료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관련 자료실을 구비하여 백제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관심을 제고시키고,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③ 국외자료의 경우 자료 성격에 대한 분명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항목 분류
- 예를 들면, 『일본서기』의 경우 일본측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므로 이를 내용별로 분류할 경우 백제사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

2.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내용 기본원칙의 설정

① 체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흐름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각 분야별 연구성과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질적수준도 담보되어야 함.

② 사이트 이용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내용은 쉽고 평이하게 할 것 - 이 경우 대개 의무교육을 받는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단, 초등학생들도 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③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외래어 등은 괄호 안에 병기(본 사이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사이트(2000. 5)」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어려운 한자가 그대로 사용된 예가 많음.)

④ 표기방식의 통일 - 책명, 논문명 등 각종 표기방식의 통일(예 : 강종원, 「백제 계백의 신분과 정치적 성격」, 『호서사학』 28, 2000.)

⑤ 구축내용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완을 통한 최신자료의 제공.

⑥ 구축목표에 대한 지속적 관리점검

⑦ 고고미술분야의 경우 사진·도면은 반드시 신도록 할 것.

제5장 정책제언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과 본 사이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사이트 구축내용의 수정·보완 및 업데이트 방안, 둘째는 사이트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이다.

1. 사이트 구축내용에 대한 부분

1) 단기적 방안

- ① 오·탈자 수정 및 적절하지 못한 용어 교정
- ② 개설·개요내용 가운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
- ③ 백제의 역사·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항목의 삭제
- ④ 분류가 잘못된 항목의 재분류 및 항목의 유적별·지역별 분류
- ⑤ 참고문헌의 수정·보완
- ⑥ 자유게시판 및 전문가마당의 관리 및 질문에 대한 답변

2) 중장기적 방안

- ① 전체 체계의 재구성 및 빠진 내용에 대한 보완 - 관련 전공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② 개설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내용보완 - 개설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공자들로부터 감수를 받을 필요가 있음.

③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개관과 연계된 자료실 운영 -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확보 및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의 개관과 연계하여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은 백제 역사와 문화의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보존·연구·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출토유물 전시위주에서 탈피, 첨단 영상기법 및 전시매체를 활용하여 그 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져 온 백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백제사를 다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박물관으로서 명실공히 백제문화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은 ‘백제역사민속박물관’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의 축적과 운영방향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④ 장기적으로는 전자도서관 개념을 도입하여 각종 자료에 대하여 사용자가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백제역사민속박물관’ 운영단계에서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준비작업은 필요함.

2. 사이트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현재의 관리상황 및 문제점

(1) 관리상황

① 전체시스템 관리(서버운영, 자료백업 및 관리, 자료관리자 관리, 교육·홍보, 기타 지정되지 않은 자료관리 등) - 정보화담당관실(지역정보담당 2인)

②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련자료 -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개발과 1인)

③ 백제역사재현단지 이외의 모든 자료 - 문화관광과(문화재담당 1인)

(2) 문제점

① **시스템운영 전담부서의 부재** - 총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나 아직 전담요원의 배치가 안된 상태임, 전담요원은 서버의 관리를 비롯한 자료의 수정·보완·백업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어야 함.

② **백제역사재현단지 관련 자료의 부족** - 내용상에 큰 변화가 없으며, 그 내용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상의 문제는 없음. 다만 백제역사재현단지 자료는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계획에 의해 자료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부분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완료된 이후의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백제역사정보 관리상의 문제** - 현재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는 비전공자일 뿐만 아니라 전담요원이 아닌 관계로 실질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특히 백제역사정보 부분은 전문분야에 해당하므로 관련 전공자를 통한 내용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이때 자료의 수정·보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료의 업데이트를 위한 자료의 수집·정리까지 담당하고, 또한 자유게시판·전문가마당 등을 관리하여 백제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2) 효율적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⁷⁾

- 7)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유지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연구용역인 『‘CYBER 백제역사문화관’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 1998, pp.47~51)에서 이미 지적인 사항이며, 참고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제공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 ② 내용의 중복여부를 신중히 검토, ③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웹사이트의 내용과 관련 기술을 최신의 것으로 유지, ④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사용내역을 수시로 점검, ⑤ 내용의 주기적인 업그레이드, ⑥ 방법, 기술의 업그레이드, ⑦ 부가서비스 제공, ⑧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통합, ⑨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에 대한 사전테스트 실시, ⑩ 정보검색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⑪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 강화, ⑫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 과정/결과에 대한 평가, ⑬

(1) 사이트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한 방안

① 정보제공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 및 내용의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 - 새로운 자료의 보완시에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역할 주체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업데이트하는 내용과 업데이트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하여 미리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또한 불필요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삭제하여 정보의 과잉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가. 정보제공자 : 전담기구를 선정하고, 이곳에서 수시로 수집 및 정리

나. 가공자 : 전담기구의 관련 전공자로 하여금 정보를 가공, 분야별 자문위원으로부터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함. 이때 분야별 자문위원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계의 전공자들로 구성하도록 한다.

다. 갱신주기 : 정보내용의 갱신주기는 분야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하도록 한다. 즉, 역사일반분야 및 민속학분야 등 개설내용의 경우에는 학설의 변경 등을 통해 내용이 달라지므로 갱신주기가 비교적 길다고 할 수 있으며, 고고미술자료 및 문헌정보통계분야 등은 새로운 자료가 수시로 증가하므로 갱신주기가 짧은 편이다. 따라서 갱신주기는 학계의 연구경향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역사일반분야 및 민속학분야 등 개설내용의 경우 - 연구성과물의 간행 주기 또는 학위논문 등의 간행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대개 6개월~1년을 주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6개월을 주기로 할 경우 정보의 가공시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1년을 주기로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 각종 자료에 해당되는 고고미술분야 및 문헌정보통계분야의 경우 - 발굴조사 등으로 새로운 자료가 계속 증가하므로 수시로 변경 내지는 추가될 사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설내용 보다는 갱신주기를 짧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발굴조사의 성과 및 결과물의 간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갱신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 대체로 분기별로 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 내용의 삭제 : 정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공자로부터 자문을 얻은 후에 수시로 삭제하도록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등이다. 이들 13개 항목은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이라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내용 가운데 사이트의 구축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원칙들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라. 내용의 업데이트 담당부서의 지정 : 수정·보완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자측에서 직접 담당할 수 있으며, 일정 분량 이상의 업데이트시에는 총괄부서에서 정보공개자측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내용의 중복 검토 - 내용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내용의 중복 여부를 체크하여 차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③ 이용자료에 대한 점검 -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사용내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자의 접속내용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사이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 정보검색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사이트에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따라서 이용자로 하여금 사이트 구축내용에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검색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⑤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평가체제 구축 -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구축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축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사이트 이용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전문가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와 일반인/학생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구분하여 전담기구의 관련 전공자로 하여금 이용결과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 사이트 개편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자유게시판 및 전문가마당의 활성화를 통한 관심 제고

·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일반인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관심있는 이용자들을 자연스럽게 동참시킴으로써 토론의 장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함(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백문백답」이라는 사이트를 두어 이용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음).

· 백제역사문화연구회(가칭) 등 학술모임 및 백제문화 정기답사회 등의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백제사에 관심있는 회원을 모집하여 정기적인 학술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적·유물 등에 대한 정기적인 답사를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

· 백제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공론화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촉발시키고, 백제관련 문화정책 수립시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⑦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의 시스템운영이나 웹사이트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이 필요 -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정해진 절차와 시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용을 갱신해야만 이용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⑧ 백제 역사·문화 연구동향 및 발굴성과 등에 대한 ‘정보란’ 운영 - 백제사 연구에 있어 논쟁이 되는 부분이나 최근의 연구성과, 발굴조사 동향 및 성과 등을 수시로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전문가에게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대개 다른 사이트의 경우 ‘새소식’ 또는 ‘HOT NEWS’ 등에서 최근의 자료나 연구성과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2)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을 위한 책임관리기관 선정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이 장기적으로 수요의 변화에 따라 적응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수 있는 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때 공익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충청남도의 역사·문화·관광 등에 대한 홍보 및 활용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이트의 특성상 관리는 서버와 정보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책임분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요소를 고려하여 책임관리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① 총괄 및 서버관리 - 충청남도 전산관련 부서에서 담당

② 내용의 수정·보완 및 업데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대한 관리 - 충남발

전연구원 (부설)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서 담당

③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담당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사이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

충청남도에서는 제1·2차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을 구축하여 우수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정보화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본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2000년 5월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지정받음으로써 명실공히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사이트로서 위상이 제고되었으나 유지관리 및 후속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사이트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배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트의 지속적인 관리와 내용의 수정·보완 및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4)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구축자료의 보완 및 운영계획

<1단계 계획>

① 오·탈자 및 내용상의 문제점 수정·보완

- 담당 : 백제역사정보 담당부서
- 기간 : 2001. 7. 1 ~ 2001. 12. 31
- 예산 : 자료구입 및 실경비(위촉연구원 1인 인건비)

② 전체 체제의 재구성 및 항목 재분류를 위한 작업

- 담당 : 백제역사정보 담당부서, 시스템 운영 담당부서
- 기간 : 2001. 9. 1 ~ 2001. 10. 30
- 예산 : 자료구입비

③ 고고미술자료 항목의 유적별·지역별 분류작업, 문헌정보통계분야의 백제사연구도서목록 재분류 및 보완

- 담당 : 백제역사정보·시스템운영 담당부서
- 시행 : 별도의 용역계획 수립
- 기간 : 2001. 11. 1 ~ 2001. 12. 31
- 예산 : 전산요원 및 자료정리 요원 약간명 인건비

④ 사이트 구축자료의 수집·정리 및 자료실 운영, 자유게시판 및 전문가마당 관리

- 담당 : 백제역사정보 담당부서
- 기간 : 항시적 운영
- 예산 : 자료수집 및 정리 경비(위촉연구원 1인, 도서구입, 자료 복사 및 제본, 서가구입, 자료실 운영)

<2단계 계획>

① 체제재편에 따른 추가보완 내용의 자료 수집·정리 및 전산입력

- 담당 : 백제역사정보·시스템운영 담당부서
- 시행 : 별도의 용역계획 수립
- 기간 : 2002. 1. 1 ~ 2002. 6. 31[자료 수집·정리(4개월), 전산입력(2개월)]
- 예산 : 전산요원 및 자료정리 요원 약간명 인건비

② 자료의 업데이트 및 갱신

- 담당 : 백제역사정보·시스템운영 담당부서
- 시행 : 별도의 용역계획 수립
- 기간 : 2002. 7. 1 ~ 2002. 12. 31
- 예산 : 자료정리 및 전산 요원 약간명 인건비, 자료수집비

③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및 백제유적 답사

- 담당 : 백제역사정보 담당부서
- 시행 :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기간 : 연차적 계획에 의해 항시적으로 운영
- 예산 : 학술세미나 개최 및 팜플렛 인쇄비, 차량대여비, 기타

참고자료

<사료>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삼국지』 · 『후한서』 · 『진서』 · 『송서』 ·
『남제서』 · 『양서』 · 『위서』 · 『주서』 · 『남사』 · 『북사』 · 『수서』 ·
『구당서』 · 『신당서』 · 『일본서기』 · 『신찬성씨록』

<문헌>

김기섭, 『백제와 근초고왕』, 학연문화사, 2000.
김영태, 『백제불교사상연구』, 동국대출판부, 1985.
박현숙, 『백제이야기』, 대한교과서, 1999.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신형식, 『삼국사기연구』, 일조각, 1990.
_____, 『백제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2.
유원재, 『중국정사 백제전 연구』, 학연문화사, 1995.
_____, 『백제의 역사와 문화』, 학연문화사, 1996.
_____, 『웅진백제사연구』, 주류성, 1997.
이기동, 『백제사연구』, 일조각, 1996.
이남석, 『백제석실분연구』, 학연문화사, 1995.
이도학,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1995.
_____, 『백제사』, 푸른역사, 1997.
윤무병, 『백제고고학연구』, 충남대백제연구소, 1992.
장경호, 『백제사찰건축』, 예경산업사, 1991.
장득진 편, 『한국사논저총목록(1)』, 민족문화사, 1985.
최몽룡 · 심정보, 『백제사의 이해』, 학연문화사, 1991.
최몽룡 편저, 『백제를 다시본다』, 주류성, 1998.
허홍식, 『한국금석진문(고대)』, 아세아문화사, 198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백제문화』.
국사편찬위원회, 『국역 중국정사조선전』, 1986.
_____, 『한국사(6)』, 1995.
백제문화개발연구원, 『백제사료집』, 1985.

부여군, 『백제의 고도 부여』, 1998.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마한·백제문화』.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백제연구』.

_____, 『백제사의 비교연구』, 1993.

_____, 『백제불교문화의 연구』, 1994.

_____, 『백제의 중앙과 지방』, 1997.

충청남도, 『백제의 종교와 사상』, 1994.

충청남도·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백제의 역사』, 1995.

충청남도,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조사연구보고서』, 1996.

충청남도, 『‘CYBER 백제역사문화관’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998.

충청남도연구단, 『지역 역사문화자원의 지식정보화 구현방안』, 2000.

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제1권)』, 1992.

한국미술사학회, 『백제 미술의 대외교섭』, 예경, 1998.

한국상고사학회, 『백제의 지방통치』, 학연문화사, 1998.

한국전산원, 『1999년도 정보화근로사업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구축 완료보고서』, 2000.

한국전산원, 『2000년도 정보화근로사업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구축 완료보고서』, 2001.